

국립국어원 2014-01-2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28-01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연구 책임자
서 혁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
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연구 책임자: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참여 연구진

연구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서혁 (이화여자대학교)

공동 연구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우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성 (이화여자대학교)

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희 (한성대학교)

신명선 (인하대학교)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보조 연구원

권혜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류수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세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은홍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요약 ❖

본 연구는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해 어휘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용 어휘 목록 및 어휘 교육 모형 개발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세대별 문식성 실태 및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실험을 다층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연구를 통해 최종 산출물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과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연구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식성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용 어휘 목록을 구축한다. 둘째,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을 기반으로 NIE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한다.

우선 텍스트 차원에서 신문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문은 사회의 공론장 구실을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기능적으로 정보 전달 기능이 큰 텍스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정보 격차로 인한 세대 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이, 인터넷 등 다채롭게 변화하는 복합 매체적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연구 자료로 선택하기에 적합하였다. 이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신문 1면은 해당 일자의 주요 신문 기사를 선별하여 제시하는 종합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영역의 기사가 모두 등장한다는 점에서 교육용 개념어를 추출하기에 용이한 연구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어휘 유형 차원에서는 신문에 출현하는 한자 개념어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개념어’란 다양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진 어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개념어 중 한자 개념어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신문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를 귀납적으로 계량한 결과, 개념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라는 점에 기인했다. 또한 여러 조사연구(설문조사, 표적집단면담, 시선추적장치)를 통해 청소년, 청·장년, 중·노년의 한자어 인식 및 능력이 집단 간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 이후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교육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적 차원에서도 생산성 있는 개념어는 어휘 출현 양상을 군집으로 제시할 수 있어 다양한 어휘 생산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보다 교육적인 효과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휘 교육 내용으로 한자어 교육에 주목하고 주요 분석 대상 어휘를 한자어로 제한하였다.

연구는 총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선행 연구 및 기존 어휘 목록

검토 단계(2장 참조)이다. 2단계에서는 신문 대상 어휘 교육 관련 연구를 검토(2장 참조)하였고, 메타 계량을 위한 기존 어휘 목록 검토를 진행(3장 참조)하였다. 또 매체별 신문 중 선택 및 분석방법을 확정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매체별·주제별·구조기능별 어휘를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설문조사, 표적집단면담, 시선추적장치 실험 검증과 각각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통계 지표를 제시(4장 참조)하였다. 4단계에서는 교육용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마련(5장 참조)하였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NIE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을 설계(6장 참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용 어휘 목록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도 총 5단계에 걸쳐 구축되었다. 1단계는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신문 1면의 원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Syn KDP)를 활용하여 어절 분리 및 어절 빈도 결과값을 확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어절 단위의 원시 말뭉치를 본 연구의 계량 기본 단위인 어근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2단계로 여기에서는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은 개념어 선정 및 등급부여의 단계로서 앞서 선별한 한자어에 대하여 첫 어근을 기준으로 개념어를 선정하고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2003)을 참고하여 어휘별 등급을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에서는 교육용 어휘 목록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어휘 선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개념어로부터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우선 ‘빈도 5’ 이상의 어휘만을 추출하는 양적 계량과 주제 영역 간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질적 계량이 이루어졌다. 특히 질적 계량에서는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의 어휘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에서 빈도 1~4까지의 어휘를 앞서 산출한 빈도 5 이상의 어휘 목록과 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목록을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으로 삼았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4단계의 기초 목록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한 어휘 평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과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현장 교사 4인과 국어교육 전문가 6인의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의 최종 평정을 통하여 최종 교육용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이 완성되었다.

위의 절차를 통하여 구축된 교육용 어휘 목록을 기존에 개발된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민현식(2003)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는 58.6%, 민현식(2004)에서 제시한 중학

교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는 78.3%가 중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개별 한자 목록에서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현식(2003)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목록과는 92.1%, 민현식(2004)의 중학교 교과서 한자 목록과는 97.9%의 중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78.0% 중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학적 관심을 촉구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로 선정된 어휘 목록은 매체 교육 및 어휘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되며 자기 주도적 어휘 학습 교재 구성의 근거 자료가 된다. 둘째, 본 연구의 어휘 교육 모형은 향후 어휘 교재 개발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며, 어휘 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다. 셋째, 세대별 어휘 교육을 위한 실험 결과들을 국민의 읽기 실태 파악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읽기 교육 연구 및 실천 영역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세대 간 문식성 차이를 줄이는 데 본 연구 결과물이 높은 기여를 할 것이며, 어휘 능력 평가 도구 개발 등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문어 텍스트 이외에 구어 텍스트로 확장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한자어 뿐 아니라 고유어, 혼종어, 외래어 등 어종을 확대하여 어휘 목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결과와 연계된 어휘 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모형 및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재 이외에도 게임, 카드, 앱,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물 교육 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구의 범위를 더 공시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히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기록하고 돌아볼 수 있는 대단위·장기간의 종단연구가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build a vocabulary educative content for improving literacy of the people. With the development for educational vocabulary list and vocabulary educative model set as the specific focus, we have conducted a multi-level investigation and experiment in order to understand literacy state and ability by generations. Through such fundamental research, ‘3500 Essential Words for Media Education’ and ‘Self-directed Teaching-Learning Words Model’ were developed as the final products, and the steps and procedures of this research were thoroughly presented.

Above all,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liminate difference in literacy between the generations, and to revitaliz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eneration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introduced in this study. First, build educational vocabulary list for improving the literacy and revit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Second, utilize the NIE based on the essential educational vocabulary lists to develop a ‘Self-directed Teaching-Learning Words Model’. In order for us to achieve our research goal of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in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we focused on the research data in the dimensions of text and vocabulary types to proceed with the study.

First, for the dimension of text, we selected newspapers for our study. Newspapers have characteristics of taking the role in the social public sphere, and it contains texts which are effectively functional for communication features. This can solve the problem of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due to the information gap. We selected this as the data of the background for our study, because it has complex medium qualities suitable for paper and internet which are changing with the media environment. Also, we selected the front page of the newspapers, which shows selected major current events, and the fact that articles covering various subjects appeared on the page was determined to be the useful research data for extracting educational vocabulary words.

For the vocabulary types, we focused on the Sino-Korean conceptual

words appearing on the newspapers. The Sino-Korean conceptual words refer to the productive vocabulary words that are formed through combination of various words to make meanings. We focused specifically on Sino-Korean conceptual words in this study, because we quantified that they were the majority of the words appearing in the newspaper texts. Also, many researches including surveys, focus group interview, and Eye-tracking showed differences in the ability of recognizing Sino-Korean words(Hanja-eo) among adolescents, adults, mid-age to elderly people. Therefore, we decided this to be suitable as the educational material aimed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In the educational perspective, the conceptual words with productivity has its benefits in the fact that they can be used to present vocabulary emergence patterns in groups to examine diverse emergence of vocabulary word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ino-Korean words(Hanja-eo) education as vocabulary educative cont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education, and we limited the main focus of vocabulary words to the Sino-Korean words(Hanja-eo).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five steps. First step is to review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existing vocabulary lists (see Chapter 2). In the second step, we reviewed the research on vocabulary education based on the newspaper (see Chapter 2), and we conducted a review of the existing vocabulary lists for measurement (see Chapter 3). Also, we confirmed on the analysis method and the type of newspapers according to different Medias, and we extracted the words throug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ased on different Medias, subjects, and structural functions. In Step 3, we combined survey results, focus group interview, and tests using Eye-tracking and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to present statistic index (see Chapter 4). In step 4, we provided ‘3500 Essential Words for Media Education’ as a list of vocabulary education (see Chapter 5). Finally in step 5, we designed ‘Self-directed Teaching-Learning Words Model’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 (see Chapter 6).

The ‘3500 Essential Words for Media Education’ was the main outcome of this study, which was built over a total of 5 steps. In step 1, we obtained the newspaper front pages to build the raw data for the study, and we utilized

Synthesized Korean Data Processor(SynKDP) for result values of the separations of words and frequency of separations. In Step 2, the raw corpus in the unit of words obtained from this was processed in roots of words, which is the basic unit for measurement in this study. This step included converting basic forms and selecting of Sino-Korean words(Hanja-eo). The next step was selecting concept words and assigning classification, and the concept word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irst root of the Sino-Korean words(Hanja-eo). In step 4, we conducted word selection to build educational vocabulary word list. For this, we structured a standard for selecting words among the entire concept words. First, we obtained quantification measurement to extract words above “frequency 5” and a qualification measurement to find balance between the subject areas. In particular, the qualification measurement gave weight to the words in the areas of cultures, sports/entertainments, science/technology/health, by combining with the words equal to or above “frequency 5” which were yielded before frequency of 1-4. We referred to the Graduated Vocabulary for Korean Education by Gwang-hae Kim(2003) for word classification. The list created based on this was made into ‘The Basic List for 3500 Essential Words’. Finally in step five, we conducted rating on the basic list from step 4,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s. During this process, we reviewed the appropriateness for using as educational words and for their difficulty level. We based on the rating results of 4 language arts teachers and 6 exper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found final rating of internal researchers to complete the final educational word list “3,500 Essential Vocabulary Words for Media Education”.

We aimed to find validity through comparison examination of educational vocabulary word list, which was built in the above procedure, with the previously developed textbook with Sino-Korean Words List(Hanja-eo). As a result, the Sino-Korean words(Hanja-eo) overlapped with 58.6% of the Sino-Korean words(Hanja-eo) from elementary school textbooks of Sino-Korean Words List(Hanja-eo) by Hyun-sik Min(2003) and 78.3% of the Sino-Korean words(Hanja-eo) from middle school textbooks of Sino-Korean Words List(Hanja-eo) by Min Hyun-sik(2004). In addition, we found many of the Sino-Korean Characters(Hanja) overlapping with individual Sino-Korean

Characters List(Hanja). It showed overlapping of 92.1% in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of Sino-Korean Characters List(Hanja) by Hyun-sik Min(2003) and 97.9%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of Sino-Korean Characters List(Hanja) by Hyun-sik Min(2004). This is higher level compared to 78.0% of overlapping with the basic educational Sino-Korean Characters List(Hanja) of 1,800.

This study triggers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vocabulary words and the interest in academics. Also,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result of this study in a variety of ways. First, the word list selected in “3,500 Essential Vocabulary Words for Media Education” can become basic data for media education and word education, and it can become an evidential data for organizing textbooks on self-directed vocabulary study. Second, ‘Self-directed Teaching-Learning Words Model’ of this study presents direction and the principles for future development of vocabulary textbooks, and it contributes to vit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on vocabulary education. Third, the study results for vocabulary education between generations can be used as an evidential data to understand the reading level of the public, and it will help in the expansion of reading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al field. Fourth,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in reducing the literacy gap between generations, and it will also help with the development of literacy ability evaluation tool.

Based on this study, the following further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First, the target of the study should expand beyond the literary texts into spoken texts. Second, word lists should be built on the words beyond Sino-Korean words(Hanja-eo), such as the proper word, hybrid, and loanword. Third, vocabulary workbook should be developed linked to the result of this study. Fourth, customized educational model and book should be developed mainly targeted on adults. Fifth, physical educational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in variety of forms such as games, cards, apps, and educational programs. Sixth, a long-term, large-scale research should be planned and conducted to officially expand the scope of the study, in order to accurately record and look back on the language practiced by Koreans.

목 차

1. 연구 개관	3
가. 연구 문제 설정	3
나. 과제 추진 일정	5
다. 과제 추진 경과	9
2. 선행 연구 검토	15
가. 문식성에 관한 선행 연구	15
나. 신문 어휘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	20
다. 어휘 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	23
라. 자기주도적 학습 및 신문 활용 교육(NIE)에 대한 연구	29
3. 어휘 목록 구축 절차와 방법	33
가. 어휘 목록 구축 원시 자료 확정	33
나. 어휘 목록 구축 방안 확정	42
4. 어휘 목록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59
가. 설문조사	59
나. 표적집단면담	90
다. 시선추적장치 실험	106
5.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목록	119
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어휘 평정	119
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134
6.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153
가. 어휘 교육 모형의 원리	153
나. 어휘 교육 모형의 특징	156
다. 어휘 교육 모형의 실제	158
7.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제언	195
가.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195
나. 제언	197

표 목차

<표 1> 사업의 주요 일정	6
<표 2>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	7
<표 3> 어휘 선정 과제 추진 경과	9
<표 4>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 과제 추진 경과	11
<표 5> 주구성표집 방법에 따른 신문 기사 분석 대상 낱자 예	20
<표 6> 기사 분석 대상 낱자 예	22
<표 7> 기사의 분석 유목 및 내용(고영철, 2010)	22
<표 8> 신문 지면의 구분	34
<표 9> 주제 영역 구분	35
<표 10> 신문 기사 수집의 절차	36
<표 11> 1면 기사 분류를 위한 정보값	38
<표 12>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1면의 기사 건수	39
<표 13>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일자별 기사 건수	40
<표 14> 종이신문의 주제 영역별 기사 건수	41
<표 15> 인터넷신문의 주제 영역별 기사 건수	41
<표 16>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축 절차	43
<표 17>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축 과정 순서도	46
<표 18> 어절 계량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7
<표 19>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 연구 내용 및 방법	48
<표 20> 기본형 변환 세부 기준	49
<표 21>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 연구 내용 및 방법	50
<표 22> 개념어 선정 기준	51
<표 2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성의 내용 및 방법	53
<표 24> 설문 대상자의 학력 분포	61
<표 25> 설문 실시 절차	62
<표 26> 설문 대상자의 일반 정보	63
<표 27> 설문 문항의 개요	64
<표 28> 일상생활에서 어휘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	65
<표 29> 어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결과	66
<표 30> 한자 어휘 학습과 어휘 능력 신장 관련성에 대한 인식 결과	67
<표 31> 신문 기사 읽기 현황 결과	68
<표 32> 신문 기사 내용 이해도에 대한 반응 결과	69
<표 33> 세대별 신문 읽기 매체 선호도 결과	70
<표 34> 세대별 선호하는 신문 기사 영역 결과	72
<표 35> 세대별 선호하지 않는 신문 기사 영역 결과	73
<표 36> 어휘 난이도 및 신문 기사 영역 선호도 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	74

표 목차

<표 37> 신문 기사 영역 읽기 어려움의 이유 결과	75
<표 38> 신문 기사와 어휘 능력 관계에 대한 인식 결과	76
<표 39> 한자 병기(併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결과	77
<표 40>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인식 결과	78
<표 41> 전문어에 대한 인식 결과	79
<표 42>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인식 결과	80
<표 43>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인식 결과	81
<표 44> 세대별 이해 어휘 능력	82
<표 45> 영역별 이해 어휘 능력	83
<표 46> 세대별 어휘 표현 능력	85
<표 47> 영역별 어휘 표현 능력	86
<표 48> 세대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87
<표 49> 영역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88
<표 50> 표적집단면담의 시행 설계	90
<표 51> 학생 참여자 목록 및 정보	92
<표 52> 교사 참여자 목록 및 정보	92
<표 53> 표적집단면담 세부 진행 내용	93
<표 54> 표적집단면담 결과 산출물	93
<표 55> AoI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값	107
<표 56> 시선추적장치 실험용 어휘 선정의 원리	109
<표 57> 실험 문장	110
<표 58> 실제 화면의 예	112
<표 59> 실험 분석 대상 정보	114
<표 60> 한자 난도에 따른 눈동자 움직임	116
<표 61> 현장 교사 검토를 통하여 삭제 요청된 어휘	122
<표 62> 난이도 평정에 관련한 자문의원 검토 의견	122
<표 63> 전문가 자문의원 어휘 평정 사례 1	123
<표 64> 전문가 자문의원 어휘 평정 사례 2	124
<표 65> 전문가 자문의원 어휘 평정 사례 3	125
<표 66> 최종 삭제 어휘	128
<표 67> 하향 평정 예시	129
<표 68> 상향 평정 예시	131
<표 69> 균형 평정 예시	132
<표 70>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어휘의 구성	135
<표 71>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공통 필수 어휘	136
<표 72>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정치 영역 필수 어휘	137

표 목차

<표 7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사회 영역 필수 어휘	138
<표 74>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경제 영역 필수 어휘	140
<표 75>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국제 영역 필수 어휘	140
<표 76>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문화 영역 필수 어휘	140
<표 77>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스포츠·연예 영역 필수 어휘	145
<표 78>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과학·기술·건강 영역 필수 어휘	146
<표 79>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고빈도 필수 어휘	147
<표 80>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의 비교 결과	150
<표 81> 교과서 한자 목록과의 비교 결과	150

그림 목차



[그림 1] 세대별 문식성 현황 비교(OECD, 2013: 31)	19
[그림 2] 신문별 기사 건수	39
[그림 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확충 단계 통계	54
[그림 4] 설문조사의 개요	60
[그림 5]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61
[그림 6] 질문 내용 구성의 실제	91
[그림 7] 시선추적장치 실험 결과의 예	107
[그림 8]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정 절차	120
[그림 9]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의 절차	154

1. 연구 개관

가. 연구 문제 설정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및 문식성 향상이 중요하며 국어활동 전반에는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휘 사용 능력은 문식성의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사용 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05 국민언어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어휘 목록을 구축하고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세대 간 문식성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세대 간 문식성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OECD의 2013년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한국인의 문식 능력은 26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16~24세의 젊은 층은 국제 평균을 훨씬 웃도는 반면 55~65세의 노년층은 비교적 낮은 문식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식성 격차는 세대 간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적 지식이 보편화되고 매체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문식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문식성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어휘 교육에 주목하고자 한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담은 텍스트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텍스트를 수용·생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한 문식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면서 디지털 시대의 텍스트에 대한 문식 능력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화, 전문화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문식 능력을 어휘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 내용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식성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용 어휘 목록을 개발한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1면에 출현한 어휘를 추출하여 코퍼스를 구축한다. 코퍼스에서 빈도, 난이도, 주제 영역별 특수성을 기준으로 메타 계량하여 교육용 어휘 목록을 추출한다.

둘째, 개발한 교육용 어휘 목록을 기반으로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NIE)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 모형을 개발한다.

3)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규모를 고려하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문 텍스트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종합면에 해당하는 신문의 1면을 코퍼스 구축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의 특성 면에서 신문은 사회의 공론장 구실을 하는 특성을 가진 텍스트이다.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구성원이 신문 텍스트 안에서 사회생활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 신문은 우리 사회의 전세대가 만나는 사회 공론장으로서 세대 간 소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둘째,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에서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전달 기능이 큰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신문 텍스트는 정보 전달 기능만 가지는 텍스트는 아니나, 정보 전달이 주된 기능을 차지하는 텍스트이다. 신문에는 각종 개념어나 신어 등이 다양한 형태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등장하는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식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문 1면은 해당 일자의 주요 신문 기사를 선별하여 제시하는 종합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등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제 영역의 기사가 모두

등장한다는 점에서 교육용 개념어를 추출하기에 용이하다.¹⁾

셋째, 매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문 텍스트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신문 텍스트는 전통적인 종이신문 텍스트에서, 인터넷신문 텍스트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변화되면서, 단일 정보를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복합 매체적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대 간 문식 활동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교육용 어휘 목록(‘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추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²⁾.

나. 과제 추진 일정

1) 사업 추진 기간

- 2014년 4월 17일 ~ 2014년 11월 30일.

본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8개월 간 진행되었다. 착수 보고회 이후 연구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고, 연구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가 진행되었다. 특히 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어휘 목록을 구축한 후에 해당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 모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세대별 문식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시선추적장치 실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 교사들과 자문위원들을 통해 개별 어휘들에 대한 전문가평정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업 추진 상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단, 신문의 1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정치, 경제, 사회, 국제’의 공적 영역의 기사 출현 비율과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의 사적 영역의 기사 출현 비율 간의 균형성 문제가 대두된다. 1면에 등장할 만한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의 기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사 주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의 1면을 대상으로 추출한 말뭉치에서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할 때에 사적 영역의 기사에서 추출된 어휘에 가중치를 두어서 주제 영역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종이신문의 경우, 국내신문 구독률 1위~3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이들 언론사와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한겨레신문’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시민 기자의 참여가 두드러져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마이뉴스’를 선정하였다. 다른 인터넷신문에 비해서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가치를 추구하여, 전문 기자들의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체험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

2) 주요 일정

<표 1> 사업의 주요 일정

세부 사업 내용		추진 일정(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연구 계약 및 연구 착수(착수 보고회)									
1 단 계	▪ 선행 연구 및 기존 어휘 목록 검토								
2 단 계	▪ 신문 대상 어휘 교육 관련 연구 검토								
	▪ 메타 계량을 위한 기존 어휘 목록 검토								
	▪ 매체별 신문 중 선택 및 분석방법 확정								
	▪ 예비조사								
3 단 계	▪ 매체별·주제별·구조기능별 어휘 추출								
	▪ 설문조사 및 시선추적장치 실험 검증								
4 단 계	▪ 결과 종합 분석 및 통계 지표 제시								
	▪ 세대별 어휘 사용 양상 파악								
5 단 계	▪ 교육용 어휘 목록 ‘매체 교육 필수 어휘 [한자어] 3,500’ 마련								
	▪ NIE를 활용한 어휘 교육 모형 설계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종합 검토								
5 단 계	▪ 자기주도적 학습형의 어휘 교육 모형 및 교수·학습의 예시 구축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50부)								

3) 세부 추진 일정

<표 2>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

일시	내용	
2014. 4. 30	착수보고회	▪ 연구 문제의 초점화 및 연구 방향의 설계
2014. 5. 9	연구 진행 방향 결정 및 업무 분담	▪ 착수보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진행 방향과 일정 결정
2014. 5. 16	어휘 목록 구축의 방법 설계 및 실제	▪ 어휘 목록 추출을 위한 신문 텍스트 범주 선정
2014. 5. 23		▪ 신문 텍스트 분석의 틀 구축
		▪ 기존 어휘 목록 통합
2014. 6. 13		▪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기사 분석 방법 논의
		▪ 기초 어휘 제거 및 목록 확보 기준에 대 한 논의
2014. 7. 8		▪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기사 분석 방법 논의
	▪ 종이·인터넷신문 말뭉치 구축: 신문 기사 전사 파일 구축	
2014. 7. 16 ~2014. 7. 20		▪ 어휘별 분석 내용 및 범주 확정
2014. 7. 23	중간 간담회	▪ 개념어 추출을 위한 기초 작업 -어휘 추출의 기준 마련 -한자어 중심의 범주 설정
2014. 7. 27	신문 대상 어휘 목록 추출 작업	▪ 사전 영역의 어휘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
2014. 8. 5		▪ 한자어 중심의 개념어 추출
2014. 8. 19		
2014. 8. 25	어휘 교육 모형 개발	▪ 자기주도 학습형 어휘 목록 개발 초안
2014. 9. 3	교육용 어휘 목록 추출 작업	▪ 청소년 학습자 대상 모형 적용 수업 진행 계획 설정
		▪ 매체별·영역별·구조기능별 어휘 목록 검 토
	설문조사 설계	▪ 교육용 어휘 목록 추출을 위한 근거 기준 의 마련
2014. 9. 17	교육용 어휘 목록 추출 작업	▪ 설문지 검토 및 진행사항 확인
	시선추적장치 실험 설계	▪ IRB 절차 진행
2014. 9. 18	어휘 교육 내용 마련	▪ 어휘 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어휘 목록의 재구성
		▪ 시선추적장치 실험 설계 방향 검토
2014. 9. 18		▪ 현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개발 논의

2014. 9. 20	어휘 교육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교육 모형 제작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개념 학습을 위한 어휘 교육 모형 방향 설계
2014. 9. 24	시선추적장치 실험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선추적장치 실험 설계 :읽기 자료 구축을 위한 어휘 선정과 문장 구성 IRB 절차 진행
2014. 9. 26	시선추적장치 예비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4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 진행 시선추적장치 실험 설계 재조정
2014. 10. 1	중간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및 시선추적장치 예비 실험 결과 등의 중간 보고
2014. 10. 3 ~2014. 10. 13	교육용 어휘 목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음이의어 미작업 추가 정리
2014. 10. 8 ~2014. 10. 26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자 병기 재점검 설문 실시 결과 분석
2014. 10. 10	어휘 교육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자어의 어원과 다른 어휘와의 합성 능력 높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모형 개발
2014. 10. 15 ~ 2014. 10. 17	시선추적장치 실험 섭외 및 최종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청소년(10명), 청·장년(10명), 중·노년(10명)) 시선추적장치 실험 참가자 모집 및 섭외 실험용 문장 재구성
2014. 10. 22 ~2014. 10. 26	표적집단면담(FGI)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대상 서면 인터뷰 진행 학생들의 신문 읽기 실태 및 어휘 교육에 대한 학생 FGI 설계 학생들의 신문 읽기 실태 및 어휘 교육 모형 설계를 위한 교사 대상 FGI 설계
2014. 10. 27 ~2014. 11. 1	시선추적장치 본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선추적장치 실험 직전 인구학적 정보 및 신문 읽기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시선추적장치 실험 진행
2014. 10. 31 ~2014. 11. 12	표적집단면담(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FGI 실시 교사 FGI 실시
2014. 11. 17	전문가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에 대한 전문가 검토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
2014. 11. 18 ~2014. 11. 21	교육용 어휘 목록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자문위원회의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최종 점검

다. 과제 추진 경과

1) 어휘 선정 과제 추진 경과

<표 3> 어휘 선정 과제 추진 경과

[1단계]: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연구 방법론 확정

- 세대별, 세대 간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함.
- 신문을 대상으로 한 어휘 목록 추출 방법, 메타 계량을 위한 선행 어휘 목록 등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함.
- 주 구성 표집 방식으로 2013년 한 해 동안의 신문 1면의 기사를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 기존 어휘 목록과의 교차분석과 전문가 판정을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추출하기로 결정함.

[2단계]: 2013년 신문 1면 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코퍼스를 구축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수와 종류를 결정함.
- 각 신문의 주제 영역별 명칭과 특성을 분석하여 신문 기사를 공적 영역(정치, 사회, 경제, 국제)과 사적 영역(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으로 나눔.
- 주 구성 표집 방식으로 2013년 1년 동안의 종이신문의 1면 기사와 인터넷신문의 1면 기사를 한글 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함.
- 한글 파일 형태로 구축 시, 해당 기사의 매체별(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주제별(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구조기능별(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편집자의 말) 정보를 함께 분류함.

[3단계]: 어휘 계량 작업을 통한 한자 개념어 코퍼스 구축

- 어절을 분리하여 계량한 후 조사, 대명사, 수사, 선어말어미 등을 삭제하여 기본형으로 변환함.
- 고유명사, 고유어, 외래어를 삭제하여 한자어를 선별함.
-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함.
-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선정하고, 김광해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함.

[4단계] :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추출

- 빈도를 기준으로 5회 이상 등장한 개념어를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으로 선정함.
- 사적 영역의 어휘와 공적 영역의 어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적 영역의 어휘에 빈도 ‘1~4’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추가하여 가중치를 부여함.

[5단계] :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에 대한 전문가 검토

- 박갑수(전 서울대 교수), 구본관(서울대 교수), 임지룡(경북대 교수), 김혜숙(동국대 교수), 정혜승(경인교대 교수), 김혜정(경북대 교수)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위원회를 통하여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의 선정 기준과 개별 어휘들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요청함.
- 온라인상 서면 검토와 오프라인 상 자문을 병행함.
- 현장 교사들에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의 적절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함.

[6단계] :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확정

- 교육용 목록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교육용 어휘 목록의 적절성을 최종 점검함.
- 교육용 어휘 목록을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이라고 명명하고, 확정함.

2) NIE 활용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 과제 추진 경과

<표 4>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 과제 추진 경과

[1단계] 교육용 필수 개념어 목록을 기반으로 한 어휘 교육 모형 방향의 설계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어휘 교육 모형 방향을 설계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NIE 실천 교사, 어휘 교육 전문가, 문식성 교육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어휘 목록을 점검하고 어휘 학습의 단계를 구성함.
- 국민 문식성 신장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국어문화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세대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어휘 교육 실행 방안을 논의함.
- 교육용 필수 개념어 목록을 기반으로 한자 개념어 학습에 적용 가능한 대표 어휘를 선정함.

[2단계] NIE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

- 1단계에서 선정한 어휘를 활용하여 어휘 교육 자료 시간을 개발함.
- 국민 문식성 신장이라는 목표 하에 전세대에 적용 가능한 어휘 학습의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함.

[3단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어휘 교육 모형 검토 및 확정

- 전문가 협의회(NIE 실천 교사, 어휘 교육 전문가, 문식성 교육 전문가)를 통하여 어휘 교육 모형을 검토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어휘 모형 개발의 원리에 대하여 공유함.
- 학습 단계의 위계 재설정 및 학습 대상에 따른 난이도를 조절함.
- 어휘 교육 자료의 실제성과 적절성을 검토함.(신문 어휘를 바탕으로 한 어휘 교육 모형이라는 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된 실제 신문 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수·학습 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점검함.

2. 선행 연구 검토

가. 문식성에 관한 선행 연구

1) 문식성을 보는 관점

문식성은 관점에 따라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문식성’,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와 수준을 갖춘 문식성’, ‘한 인간의 생애별·세대별로 요구되는 핵심 문식성’으로 나누어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식성이 읽고 쓰는 기능적인 능력을 넘어서, 문식성이 요구되고, 구성되는 사회·역사 공동체와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문식성

문식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박인중(2009)에서는 초기의 문식성 교육은 문맹자 수를 줄이는 데 주력하면서 기초적인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는데, 사회경제적 활동의 기초 능력으로서 문식성을 강조하였다가 최근에는 국가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기초능력으로서 문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조미경(2012)에서는 유네스코 성인 문해 교육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면서 초기에는 세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개인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습권으로 바뀌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새로운 문식성을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와 수준을 갖춘 문식성

문식성은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OECD(2013)에서는 성인 기능(Adult Skill)의 하나로 문식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때 문식성은 단어를 해독하는 것으로부터 문장을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복잡한 텍스트를 평가하는 기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김창원 외(2008)에서는 ‘국민의 기초 문해’를 현대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최소한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Merrill & West(2009)에서는 문해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기능 문해적인 의미, 비판 문해적인 의미, 학습자의 자기 확장과 관련된 의미는 모두 중층적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식성은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이해·비판하는 종합적인 능력임을 알 수 있다.

다) 한 인간의 생애별·세대별로 요구되는 핵심 문식성

문식성은 문식성을 실행하는 주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정옥분(2009)에서는 세대별 언어발달 및 사용 어휘 특성을 유아기(문법의 발달), 아동기(의사소통기술의 발달), 청년기(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 성인기(직업에 대한 관심,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 여가 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로 나누어서 각 생애별로 요구되는 문식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또한 이현희 외(2013)에서는 텍스트와 읽기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20대와 50대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문식성과 어휘 능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식성은 문식성을 실행하는 주체와의 관련 속에서 의미화 될 수 있다.

2) 문식성 교육에 대한 요구

문식성 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게 개인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문식성 교육의 실태 및 요구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간의 소통권을 확보’하는 것과, ‘개인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읽고 쓰는 능력을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보는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김병욱(2010)에서는 1946년 창립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인류의 비문해 퇴치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문해능력 내지는 문해 교육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인권’으로 이해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읽고 쓰는 능력은 한 개인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임을 알 수 있다. Kutner 외(2007)은 문식성과 공식 교육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공동체에서 어떻게 문서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OECD(2013)에서는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의 문식성 및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은 노동 시장에서의 참여 가능성, 그리고 높은 임금과 매우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이 가정, 직장,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사회·경제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문식성 교육의 실태 및 요구는 ‘지속적인 문식성 교육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사회의 실현’과 ‘디지털 문식성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평생교육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문식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것이다. 변종임·이경아(2006)에서는 문해 교육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 계층에게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박영목(2003)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문식성과 이에 따라 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여기에서 평생교육으로서 문식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소통 방식으로서 문식성을 학습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문식성 교육은 디지털 문식성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요청된다. 문식성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이희수 외(2000)에서는 정보 문해 교육을 제2의 성인 문해 교육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여기에서 정보 문해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칭하고 있다.

다) 국가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문식성 교육의 실태 및 요구는 ‘세대 간, 계층 간 격차 해소를 통한 원활한 소통 및 국민 대통합’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문식성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국가적 요구가 있다. 양명희 외(2004)에서는 국민의 언어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 ‘언어 행동’ 부분에서 ‘말하기 속도’, ‘유행어’, ‘비속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정도나 빈도가 높아졌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이 세대 간 문식성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식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요구가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에서는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국민 전반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능력이 개인적 차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허준(2008)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문해 학습자와 새로운 문해 학습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자가 학교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 학습자였다면 후자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이주여성,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던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들이 해당한다. 문식성 교육이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들과 기존의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구성원이지만 문식성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까지 소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3) 문식성의 종류

문식성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로 설명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 문식성, 가족 문식성, 정보 문식성, 금융 문식성, 직업 문식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 문식성은 Purves 외(1994)에 따르면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문화적 유산(cultural heritage)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한다.

가족 문식성은 이상돈 외(2013)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가족 중심 교육이 필요한 능력으로서, 가족 독서교육, 가족 소통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보 문식성은 이희수 외(2000)에 따르면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 성원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서 정보의 검색 및 평가, 활용,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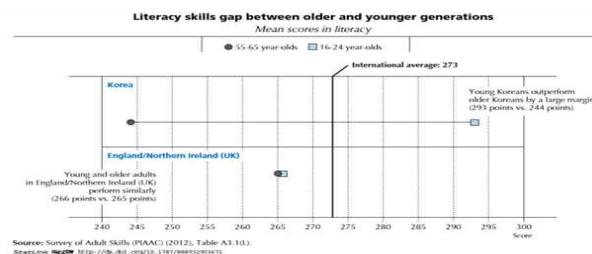
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금융 문식성은 김은정 외(2010)에 따르면 금융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금융 이해력 교육, 개인재무관리교육, 투자교육, 신용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직업 문식성은 노명완·이형래(2005)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말한다.

4) 세대별 문식성 실태

세대별 문식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에서 2013년에 실시한 국제 성인 역량조사(PIAAC)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성인들의 문식성,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이 능력들을 다양한 사회 환경 및 직업생활에서의 핵심적인 정보처리 역량으로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과정, 사회생활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OECD(2013) 성인역량조사의 문식성 평가를 통해서 16~65세를 대상으로 성인문식역량의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언어능력 평균은 273점으로 OECD 평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6~24세로 한정하면 한국의 문식성 수준은 상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OECD보고서에서는 16~2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젊은 세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별 문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55~65세의 노년층은 매우 낮은 문식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면 세대 간 문식성 격차가 낮은 영국에 비해서 한국은 세대 간 문식성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성인기 이후 문식성 역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림 1] 세대별 문식성 현황 비교(OECD, 2013: 31)

나. 신문 어휘 분석과 관련한 선행 연구

1) 신문 기사 표집 방법의 종류와 내용

신문 기사 표집 방법에는 크게 일(日)연속표집(consecutive day sampling), 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 일(日)표집(day sampling), 주(週)구성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이 있다.

일(日)연속표집(consecutive day sampling)은 가장 간단한 표집 방법으로, 7일 치의 연속된 일자의 신문 전체를 표집하는 것인데 각 주(週)별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무작위표집(simple random sampling)은 분석 대상의 총 신문 기사에서 표집 기사 내용을 임의 표본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사 내용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법이다. 토요일, 일요일의 신문이 표본에 다량 포함될 경우, 내용에 대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日)표집(day sampling)은 분석 대상의 총 신문 기사에서 특정한 날짜 1일의 기사 내용을 표집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다.

표집대상이 되는 신문 기사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신문 기사 수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표집방법인 주(週)구성표집을 기사 추출 방법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는 내용분석의 대표적인 표본추출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서로 다른 주의 요일로 한 주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신문 기사의 1년 치 내용 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요일을 제외한 12일(구축된 2주일)의 신문을 수집하여 표집을 실시하는 것이다. 요일별 편차가 심한 신문의 편집 특성을 고려할 때, 요일별 편향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특정 사건의 발생에 따른 역사적 편향성도 최소화할 수 있어 표본을 대표성 있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empel(1952)의 연구에 의하면 한 신문에 1년 동안 게재된 단일 주제에 대한 기사내용을 분석할 경우, 그 표본의 크기를 각각 6일, 12일, 18일, 24일, 48일 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1년 분 모두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12일 분 이상의 표본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차배근, 1997: 402에서 재인용).

<표 5> 주구성표집 방법에 따른 신문 기사 분석 대상 날짜 예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8일	1월 23일	2월 7일	2월 22일	3월 9일	3월 24일
4월 2일	4월 17일	5월 2일	5월 17일	6월 1일	6월 16일

각 달의 표본을 선정하는 데는 대체로 클락(Jeff Clark)의 회전식 표집 방법을 사용한다. 회전식 표집 방법은 첫 번째 사례는 제1주 월요일, 두 번째 사례는 제2주 화요일, 세 번째 사례는 제3주 수요일의 순서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각 달마다 하루씩 1월 첫째 주 월요일, 2월 둘째 주 화요일, 3월 셋째 주 수요일 등의 순으로 표집하는 것이다.

2) 분석 대상과 측정 항목 관련

신문 1면은 크게 머리기사(top story)와 준(準)머리기사로 구성된다. 머리기사는 일반적으로 신문 지면의 왼쪽 상단에 가장 크게 게재되는 기사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큰 제목의 기사가 신문 지면의 가운데 실리기도 한다. 따라서 신문 1면의 머리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머리기사는 해당 지면이 그 신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1면에 보도되는 기사 중 머리기사는 결국 독자들에게 각 신문의 의제를 전달하는 것으로, 1면 기사의 선택은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1면 머리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별은 신문기사의 단(段) 편집에 따라 판별될 수 있다. 단 편집에 따른 1면 머리기사 판별은 이건호 외(2007) 제 13원칙을 정리해 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한국 신문은 대체적으로 가로로 7개의 단(칼럼)으로 나누는데, 한겨레신문은 6단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문기사 1면에서 어떠한 대상을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선 연구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2020 미디어위원회 실행위원회(2006)’에서는 주제, 토대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독창성, 제목의 직접 인용구 사용 여부, 제목의 직접 인용구가 기사 본문에 표현된 양태, 본문의 직접인용구 수, 본문에서 주어(화자)가 실명 개인인 직접 인용구 수, 주관적 술어의 수와 양태, 취재원, 실명 개인 취재원 수, 익명 개인 취재원 수, 단체 취재원 수, 불특정 다수 취재원 수, 간접 취재원 수, 총 취재원 수, 투명 취재원 수, 익명 취재원 수, 일반인 취재원 수, 남자 및 여자 취재원 수, 관점이 제시된 양태, 이해 당사자의 수, 보도 지수, 기사 구조, 기사 길이 등을 측정 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건호 외(2007)에서는 신문 1면 기사의 수, 1면 기사의 제목 크기, 제목의 인용구 사용 및 불일치 정도, 기사 보조 정보 활용도, 취재 기사의 수, 취재 영역, 토대 정보의 신뢰성, 정보의 독창성, 기사의 형태와 구조, 취재원의 수와 투명성, 복합 관점의 기사 등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1면의 기사를 머리기사(Top Story)와 전체 기사로 구분하고, 1차적으로 1면 머리 기사를 분석하고(96개.

8개 신문 12일 치), 1면 머리 기사를 포함한 전체 기사(419개)도 분석하고 있다.

홍은희(2012)에서는 문화 기사 분석을 ① 게재면, ② 기사위치, ③ 기사 작성자 (해당 기사를 쓴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분류), ④ 소재, ⑤ 보도시점으로 분류한 유목 각각에 대해 하부 유목을 설정하고 있다.

신문 1면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6> 기사 분석 대상 날짜 예

구분	세부 분석 유목
게재면	① 1면 ② 종합면 ③사회면 ④ 지방면 ⑤ 국제면 ⑥ 인물·독자면 ⑦ 경제면 ⑧문화·연예면 ⑨ 특집기획면 ⑩ 오피니언면 ⑪ 생활면 ⑫ 스포츠면
기사위치	① 톱기사 ② 사이드 기사 ③ 세 번째 기사 ④ 4번째 이하 기사 ⑤ 단신 등
기사 작성자	① 기자: 기자가 작성한 것 ② 기고: 독자나 전문가 등 편집국 밖의 외부인이 보내온 기사 ③ 통신: 통신 등 뉴스서비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
소재	① 전문성 ② 개인성 - 연거나 작품 등 콘텐츠와 직결된 내용인지, 봉사활동이나 스캔들 같은 콘텐츠 이외의 내용을 다룬 것인지에 따라 나눔.
보도시점	① 사전(예고) ② 동시 ③ 사후 등 - 뉴스의 라이프사이클(Mike Ward, 2002; 이용준 역, 2003)을 적용하여 게재된 사안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분류.

3) 신문 기사 주제별 분류 관련

고영철(2010)은 기사의 주제는 분석 대상 신문에서 수집한 신문 1면 기사를 하루치씩 무작위로 뽑아 예비조사를 한 뒤, 송용희(2004), 박재영·이완수(2007) 등에서 사용했던 신문 주제 분석 유목과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기사의 핵심 주제는 제목과 전문을 중심으로 무엇에 관한 보도인지를 분석하였다. 기사의 핵심 주제를 22가지로 세분화한 후 관련 주제끼리 통합하여 8가지 대주제로 유형화하였다.

<표 7> 기사의 분석 유목 및 내용(고영철, 2010)

구분	분석유목 및 내용
기사의 주제	① 중앙정치/정부 ② 지방행정/법률 ③ 지방정치 ④ 북한 소식 ⑤ 국제/해외 ⑥ 금융/유통/전기·수도 ⑦ 1차 산업 ⑧ 관광/레저산업 ⑨ 건설/부

(소분류)	동산 ⑩ 교육 ⑪ 과학/기술 ⑫ 건강/복지/의료 ⑬ 환경/공해 ⑭ 인물/미담 ⑮ 인사/동정 ⑯ 생활상식/정보 ⑰ 사건/사고 ⑱ 비리/법정 ⑲ 스포츠 ⑳ 문화/예술 ㉑ 종교 ㉒ 기타
기사의 주제 (대분류)	① 정치/행정 ② 경제/산업 ③ 교육/과학 ④ 사회일반 ⑤ 사건사고/범죄 ⑥ 문화/예술 ⑦ 스포츠 ⑧ 국제/해외
취재원의 유형 (소분류)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국회 및 정당 ④ 지방의회/의원 ⑤ 법원/검찰 ⑥ 경찰/해양 경찰 ⑦ 교육기관 ⑧ 금융업계 ⑨ 건설업계 ⑩ 유통업계 ⑪ 관광업계 ⑫ 교통업계 ⑬ 병원 등 의료기관 ⑭ 농수축산업계 ⑮ 경제인단체 ⑯ 각종 노동단체 ⑰ 시민사회단체 ⑱ 문화예술단체 ⑲ 전문가 ⑳ 일반시민/지역주민 ㉑ 기자/자료 ㉒ 기타
취재원의 유형 (대분류)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정치가 ④ 기업 ⑤ 전문가 ⑥ 시민사회단체 ⑦ 일반시민 ⑧ 기자/자료/기타 ⑨ 종교
실명 취재원	①실명 개인 취재원(성과 이름이 정확히 명기된 취재원), ②간접 취재원(보도자료, 성명서, 법정 판결문 등), ③ 단체 취재원(청와대, 건설교통부, 경찰, 제주도, 교육청 등 행정관청이나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또한 이준우(1987)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문화기사를 문학, 출판, 학술, 사상, 종교, 문화재, 민속,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미술, 사진·컷, 만화, 과학, 건강, 의학, 교육, 규범, 생활상식, 취미, 문화행사, 문화일반, 방송예고, 기타 등 26개 분야로 세분화함을 밝히고 있다.

장낙인(1987)은 동아일보 등 6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문화 예술기사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학술, 전통문화, 대중문화, 문화일반, 문화행사 등 9개로 구분하고 있다. 박선영(1998)은 문화면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학술, 종교기사 등을 제외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사진, 건축, 영화, 대중출판, 문화재, 서예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와 TV·연예 면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방송·연예·광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를 문화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 어휘 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

1) 어휘력 및 어휘 능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

어휘 능력은 문식성 및 국어능력의 토대이며, 어휘 교육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학술적으로, 공식적으로 합

의된 바는 없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 연구물을 통해 최근의 연구가 어휘 능력의 개념을 어휘력(lexical knowledge)에서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광해(1993)는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고 양적 능력은 어휘소의 양으로 질적 능력은 어휘소의 의미와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영숙(1997)은 앞선 김광해(1993)의 논의에서 나아가 어휘력을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구분하고, 어휘력을 “어휘에 대한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김창원(2012)은 어휘 능력을 지식-기능-태도의 축과 사고-소통-문화의 축을 교차하며 규정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전은주(2012) 역시 어휘 교육이란 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지식, 기능, 태도 등에 대한 학습이라고 정의하였다. Bachman(1990)은 어휘 능력을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일, 현상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명명하거나 명명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신명선, 2004b에서 재인용) 정의하였다. 신명선(2004b)는 어휘 능력을 ‘어휘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어휘 능력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나 일, 현상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명명하거나 명명화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어휘 능력의 개념은 개개의 단어를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에서 단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맥락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세대별 문식성의 수준을 분류하여 제시한 OECD의 ‘2013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6개 등급과 국립국어원의 ‘2008년 국민 기초 문해력 조사’에서 제시한 5개 등급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양식(mode)과 장(field)을 고려하여 다양한 텍스트 양식과 형태 안에서의 어휘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를 신명선(2004b)과 같은 연구들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지시 능력-추론 능력, 상징 능력-지시 능력 등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창원(2012)은 어휘 능력을 어휘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로 구분되는 한 축과 사고, 소통, 문화로 구성되는 축이 교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Bachman(1990)은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운동기술로 세분화하였다. Marconi(1997)은 어휘 능력을 크게 지시 능력과 추론 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신명선(2004b)은 어휘 능력을 상징 능력과 지시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제시한 어휘 능력은 Bachman(1990) 및 Marconi(1997)에서 제시된 어휘 능력 모형을 종합하고 이에서 어휘 능력 요소

를 추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는 기존의 기능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어휘력 구성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그러한 기존 요소뿐만 아니라 어휘의 사용과 사고 등에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어휘 교육의 목표 및 방향

어휘 교육의 목표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단순히 어휘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능력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명선(2004b)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 설정 방향과 관련하여 ‘지식’보다는 ‘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국어사용능력 신장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어 문화 능력 함양’, ‘언어 의식의 고양’, ‘국어적 사고력 신장’ 등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강보선(2013)에서는 교육과정의 어휘 교육 목표 차원에서 어휘의 ‘이해’만이 아니라 ‘표현’도 동일하게 강조되어 왔음에 주목하였다. 어휘력 평가 개선을 위해서 표현 중심의 평가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며 표현 어휘 신장의 비중은 학년의 증가에 따라 커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정우(2011)에서는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어휘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김정우(2011)에 따르면 문학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결국 ‘민족어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어휘들의 체계를 갖추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차경미(2013)는 감정 어휘에 대한 이해는 문학 작품 이해의 주요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지룡(2010)은 목표를 좀 더 넓혀 “삶을 위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어휘 교육에서 언어생활에서 빈도수가 높고 분포가 넓으며, 이차어휘의 근간으로서 기초어휘를 형성하는 범주를 중심으로 어휘의 양적, 질적 확장을 꾀하는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4)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 교육의 내용은 크게 기초 어휘 지식 교육, 기초 어휘 기능 교육, 기초 어휘 태도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초 어휘 지식 교육에서는 대표적으로 김광해(1993)의 연구와 이영숙(1996, 1997)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김광해(1993)에서는 어휘 교육의 목표를 어휘력의 신장이라고 보았다.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어휘에 대한 이해와 이해한 어휘를 구사하는 일에 대한 사용자의 능력으로 어휘 교육의 내용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이영숙(1996, 1997)에서도 어휘력을 양적 어휘력과 질적 어휘력으로 나누고, 질적 어휘력에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뿐 아니라 언어 외적 지식을 포함하였다.

둘째, 기초 어휘 기능 교육에서는 대표적으로 이기연(2006), 김정우(2011), 민병곤(2012)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이기연(2006)은 어휘 능력을 이해와 표현 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김정우(2011)는 ‘자신의 새로운 인식을 담아내기 위한 단어들 간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언어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세계(텍스트)를 만들어 보는 능력’을 문학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병곤(2012)은 자신의 어휘 사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행위를 강조하였다. 이는 미시적으로는 상황 맥락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거시적으로는 제도화 또는 관습화된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의례적으로 사용해야 할 어휘가 있다는 것과 개별 어휘의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 어휘 태도 교육에 대해서는 김은성(1999), 신명선(2004a)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은성(1999)은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은 국어과 중에서도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다. 신명선(2004a)은 ‘정의적 영역’으로 ‘민감성과 탐구심’을 설정하였다. 이는 사전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어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문맥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민감성을 기르고, 어휘를 섬세하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것을 말한다.

5) 어휘 교육의 실제

어휘 교육의 실제는 크게 교재 및 자료, 교수·학습 모형,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어휘 교육의 교재 및 자료는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 문식성 교육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실행하는 ‘CALPRO(California Adult Literacy Professional Development Project)’³⁾에서는 교수자들에게 교수방법과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실물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제공하였다. Bromley(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단어의 정의, 사용된 문장, 그림, 실제 사물을 통해 어휘 학습 자료를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을 사용하여 다음 절의 단어를 찾아보게 하는 데 유용한 ‘Word tree’ 등을 제시하였다. 전점이(2007)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상황 맥락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말맛’ 나는 ‘정서적 어휘’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때 정서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강현화 외(2009)에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어휘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 10가지 개발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한 워크북 단원 구성은 ‘인지 단계’, ‘확인 및 강화 단계’, ‘사용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둘째, 어휘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으로는 탐구학습과 워크숍 등이 있다. 김광해(1995)에서는 ‘탐구 중심 어휘 수업’을 학습자가 어휘를 관찰함으로써 규칙을 찾아내고 원리를 탐구하도록 돕는 수업이라고 보았다. 탐구 중심 어휘 수업의 단계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진술’, ‘결론의 적용 및 일반화’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모형은 어휘 교육에 적용하여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2003)에서는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어휘의 개념을 심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의미망 만들기 활동을 통한 어휘 지도 모형을 구안하였다. 정소민(2009)에서는 도식 조직자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도식조직자의 유형으로는 텍스트 중심적인 도식조직자(수형도, 벤다이어그램, 의미지도, 마인드맵 등)와 사고 중심적인 도식조직자(브레인스토밍 등)가 있다. 강현화 외(2012)에서는 한국어 어휘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의 어휘 지도를 위한 모형을 방사형, 나무 그림형, 차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하였다. 김지영(2013)에서는 어휘 교육 워크숍의 활용 원리로 1) 지식·기능·태도 요소의 균형성 고려, 2)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의 통합성 고려, 3) 학습자 간 상호 작용성 고려를 제시하였다.

셋째, 어휘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해외와 국내 사례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McShane(2005)은 성인 문식성을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한 입문서로, 읽기

3) <http://www.calpro-online.org/newTeachers/newTeachers.asp>

지도 방법에 대한 중요한 개념 및 요소들에 대한 배경지식과 직접 교수방법, 간접 교수방법 등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향근(2010)에서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법을 통해 질적 어휘력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가 텍스트와 관련된 그림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텍스트의 의미와 관계된 어휘에 대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Practitioner Toolkit: Working With Adult English Language Learners』는 ‘The National Center for Family Literacy(NCFL)’와 ‘The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CAL)’에서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공유와 정보 격차 활동이 요구되는 과업, 빙고 등의 게임,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와 과업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상호적 상황 안에서 새로운 어휘를 사용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 자기주도적 학습 및 신문 활용 교육(NIE)에 대한 연구

1)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해서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룬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민수(2004)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 의지적 사고력의 신장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김도남(2003)에서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 활동의 주도성 확보 및 학습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재 차원에서 유영희(2004)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쉽터’ 부분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경화(2005)에서는 독서교육의 도구적인 성격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학습독서 전략을 체계화하고 있다.

교수·학습 차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과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다. 한학범(2009)에서는 주제중심학습이 학업성취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천경록(2003)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검토하여 독서 지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어휘 학습과 관계하여 성용근(2005)에서는 자기주도적 어휘학습장 작성 과제를 수행평가로 실시하여 어휘력 향상의 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김효진 외(2004)에서는 탐구 학습과 협동 학습을 혼합한 모형을 통해 국어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윤상일(2008)에서는 통합논술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적 교수·학습 모형을, 임천택 외(2013)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적용된 토의, 토론 프로그램과 수업 저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반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연구를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김영경 외(2011)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인학습자들의 자기주도 계속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학습 지속 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영선 외(2012)에서는 초기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정희 외(2007)에서는 성인학습자 149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접근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특정한 성인 교육과 관련하여 배을규 외(2006)에서는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학습이 시작되는 주체적인 맥락과 실천 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김한별(2006)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역학관계와 맥락들에 대한 이해 과정을 곧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신문 활용 교육(NIE) 관련 선행 연구

국어교육 내에서 NIE의 위상 및 활용 검토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 이은희(2003)에서는 대중 매체 교육 틀 안에서의 신문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원진숙(2008)에서는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의 읽기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NIE 방법, SSR 활동, 독서와 토론이 연계된 쓰기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성일 외(2009)에서는 정신지체 학생들에게 생활중심 NI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정신지체 학생의 수용어휘력 및 표현어휘력이 향상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NIE를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과 관련시킨 연구가 있다. 성태모(2003)에서는 개별학습, 협동학습, 토의학습 형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신장을 위한 NIE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구정화(2012)에서는 NIE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고 있다. 김경은(2012)에서는 수도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신문 읽기 경험과 가정에서의 NIE 경험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NIE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실태를 다루고 있는 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 김동일 외(2013)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NIE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NI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지원에 미흡함을 밝힘으로써 활용도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설규주 외(2011)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NIE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이 기존의 교과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 NIE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형태를 취했으며, NIE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휘 목록 구축 절차와 방법

가. 어휘 목록 구축 원시 자료 확정

1) 매체별 신문 중 선택 및 주제별 영역 구분

가) 매체별 신문 중 선택

어휘 목록 구축을 위한 원시 자료를 확정함에 있어 종이신문(4종)과 인터넷신문(1종)을 선택하였다. 신문은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사회의 공론장이라는 점, 여러 분야의 정보와 다양한 어휘 현상들을 보여준다는 점, 복합적인 전달 양식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종이와 인터넷이라는 각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신문기사들을 연구의 자료로 삼음으로써 해당 자료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휘와 그것의 활용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신문은 종이신문 4종과 인터넷신문 1종이다. 종이신문의 경우에는 국내 신문 구독률⁴⁾의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주요 언론사와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디지털 매체(인터넷)를 통해 제공되는 일간지의 경우에는 독자의 방문수와 기사에 대한 클릭수를 통하여 그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 코리아 클릭⁶⁾의 조사 결과, 인터넷 뉴스 매체 가운데 ‘뉴데일리’와 ‘오마이뉴스’가 각각 1, 2위를 다투는 매체로 밝혀지고 있다. 둘 가운데 인터넷 매체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기자의 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201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신문사별 구독률에서는 조선일보(6.6%), 중앙일보(4.4%), 동아일보(3.7%)가 차례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5,082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컴퓨터를 통하여 2014년 9월 10일에서 9월 26일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5) 양명희 외(2005)에서 진행된 『국어사용환경조사』에서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어휘 사용 실태와 문자사용 실태의 측면에서 다른 신문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6) 닐슨컴퍼니의 계열사로 국내 미디어 영향력 통계 분석 전문 기관이다.

나) 신문 텍스트의 주제별 영역 구분

신문에 나타난 어휘들의 실제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어휘가 출현한 매체와 신문 중, 지면의 정보 등을 함께 수집하였다. 특히 각각의 어휘가 어떠한 지면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신문의 지면 양상(주제 영역)을 살펴보고, 신문 어휘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따르고 있는 신문의 주제별 영역 구분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주제별 영역 구분의 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신문 5종의 지면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신문 지면의 구분

신문 종류		지면의 구분(주제 영역)								
종이 신문	조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오피니언	국제	문화		
	중앙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라이프 과학
	동아	정치	경제	사회		오피니언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의학 과학
	한겨레	정치	경제	사회		오피니언	국제	문화	스포츠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 국제	사는 이야기 ⁷⁾	스포츠 연예	

실제 신문의 지면 양상과 관련 선행 연구들이 따르고 있는 신문의 주제 영역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7개의 주제 영역을 설정하였다. 7개의 주제 영역은 상위의 단계에서 ‘공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묶이게 된다. ‘공적 영역’에 속하는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면의 기사이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기사는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면의 기사이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매체, 신문 5종에 출현하는 기사들을 각각 공적 영역(정치, 경제, 사회, 국제)과 사적 영역(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의 7개의 세부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어휘의 출현 양상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7) 오마이뉴스는 ‘우리가 사는 이야기’라는 구분 안에 ‘문화’, ‘여행’, ‘책동네’, ‘영화’ 메뉴가 있음.

<표 9> 주제 영역 구분

공적(公的) 영역				사적(私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종이신문 · 인터넷신문						

2) 신문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표본 확보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13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발행된 종이신문 4종(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과 인터넷신문 1종(오마이뉴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위하여 주(週)구성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26일 치의 신문 1면에 나타난 기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수집하였다.

각 신문의 1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면에 나타나는 기사들이 해당 시기에 대한 높은 시의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신문의 1면 기사에 나타난 어휘들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문식성 신장과 함께 국민 간 소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표 10> 신문 기사 수집의 절차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신문 4종(조선·중앙·동아일보, 한겨레) 26일 치 신문 1면(총 104면) • 인터넷신문 1종(오마이뉴스) 26일 치 신문 1면(오전 9시 기사를 기준으로 선별)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신문 기사 405건(26일×4종=104면 / 405건) • 인터넷신문 기사 156건(26일×1종=26면 / 156건) • 주(週)구성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 회전식 표집방식을 통한 선별 • 각 신문의 1면에 나타난 머리기사 및 비(非)머리기사⁸⁾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신문 4종을 각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PDF)을 확보하여 조사 • 인터넷신문 1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보하여 조사



분석 대상 일자: 2013. 1. 1. ~ 12. 31. 주(週)구성표집에 의해 총 26일을 선정.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7일	1월 22일	2월 6일	2월 21일	3월 8일	3월 23일
4월 1일	4월 16일	5월 1일	5월 16일	5월 31일	6월 15일
6월 24일	7월 9일	7월 24일	8월 8일	8월 23일	9월 7일
9월 16일	10월 1일	10월 16일	10월 31일	11월 15일	11월 30일
12월 9일	12월 24일				

8) 광고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원자료 확보의 방법

(1) 종이신문

종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1면의 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신문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일자의 종이신문 PDF 파일을 수집하였다. 4종의 신문 1면(총 104면)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총 405건의 기사를 수집할 수 있었다.

각 기사에 대한 13개의 세부 정보를 기준값으로 설정하고 수집한 후, 기사의 원문을 한글 파일로 전사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밑자료가 될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생성하였다. 13개의 기준값은 각 기사에 대한 세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문 종(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일자(주(週)구성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26일)’, ‘주제 영역별 구분(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머리기사 여부’, ‘그림 및 사진 포함 여부’, ‘정보그래픽 포함 여부’, ‘구조 기능별 요소(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의 포함 여부’, ‘사진기사 해당 여부’이다.

각 기사에 대한 13개의 코딩값을 포함하여 신문 원자료를 한글 파일로 전사함으로써 어휘 추출을 위한 종이신문 1면의 기사 405건의 미가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2)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오마이뉴스) 1면의 원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일자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통해 기사 총 156건을 추출하였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시간대 별로 기사들이 변경되고 수정된다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일자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1면 기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나타난 기사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일자의 첫 화면에 나타난 기사들이 종이신문의 1면(종합면)과 같은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원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의 과정에서 ‘연재형 칼럼’이나 ‘에세이’, ‘비전문기자의 기사’ 등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신문 기사들과 동일한 층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각 기사에 대한 미가공 데이터 생성과정은 종이신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인터넷신문 기사의 구조상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편집자의 말’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설명을 덧붙이는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인터넷신문이 갖는 특성이라고 여기고 기준값에 포함시켰다.

인터넷신문 1면에 나타난 156건의 기사들에 대한 세부 정보의 기준값은 ‘신문 중(오마이뉴스)’, ‘일자(주(週)구성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26일)’, ‘주제 영역별(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구분’, ‘머리기사 여부’, ‘그림 및 사진 포함 여부’, ‘정보그래픽 포함 여부’, ‘구조 기능별 요소(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편집자의 말)의 포함 여부’, ‘사진기사 해당 여부’이다.

<표 11> 1면 기사 분류를 위한 정보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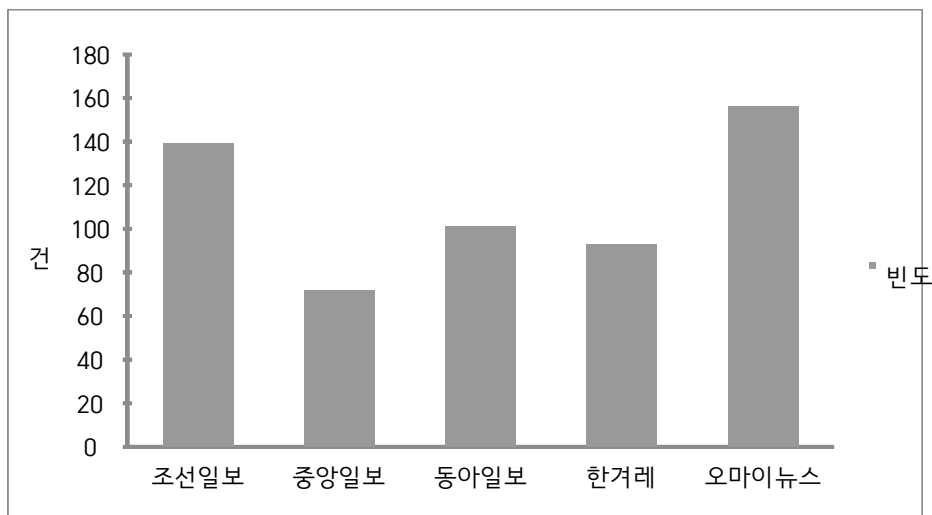
1	신문	조선(C), 중앙(J), 동아(D), 한겨레(H), 오마이뉴스(O)	
2	일자	1월 7일_① 1월 22일_② 2월 6일_③ 2월 21일_④ 3월 8일_⑤ 3월 23일_⑥ 4월 1일_⑦ 4월 16일_⑧ 5월 1일_⑨ 5월 16일_⑩ 5월 31일_⑪ 6월 15일_⑫ 6월 24일_⑬ 7월 9일_⑭ 7월 24일_⑮ 8월 8일_⑯ 8월 23일_⑰ 9월 7일_⑱ 9월 16일_⑲ 10월 1일_⑳ 10월 16일_㉑ 10월 31일_㉒ 11월 15일_㉓ 11월 30일_㉔ 12월 9일_㉕ 12월 24일_㉖	
3	주제 영역	공적 영역	정치_①, 사회_②, 경제_③, 국제_④
		사적 영역	문화_⑤, 스포츠·연예_⑥, 과학·기술·건강_⑦
4	머리기사 여부	머리기사 / 비(非)머리기사	
5	그림 및 사진 포함 여부	포함_① / 불포함_②	
6	정보그래픽 포함 여부	포함_① / 불포함_②	
7	표제	포함_① / 불포함_②	
8	부제	포함_① / 불포함_②	
9	전문	포함_① / 불포함_②	
10	본문	포함_① / 불포함_②	
11	해설	포함_① / 불포함_②	
12	편집자의 말	포함_① / 불포함_②	
13	사진 기사 여부	해당_① / 미해당_②	

다)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1면 기사 통계 조사 결과

앞서 기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1면에 나타난 기사 총 561건을 수집하였다. 각각의 기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13개의 코딩값을 비롯하여 한글 파일로 전사한 기사 원문의 미가공 데이터를 SPSS 20.0(ver.)을 통하여 빈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별도의 도해 조직자로 표현하였다.

<표 12>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 1면의 기사 건수

구분	빈도(건)		비율(%)	
조선일보	139	405	24.777	72.193
중앙일보	72		12.834	
동아일보	101		18.004	
한겨레	93		16.578	
오마이뉴스	156	156	27.807	27.807
전체	561	561	100	100



[그림 2] 신문별 기사 건수

신문별 기사 건수의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139건, 중앙일보가 72건, 동아일보가 101건, 한겨레신문 93건, 오마이뉴스 156건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기준으로는 종이신문의 1면에 평균 101.25건의 기사가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1면에는 156건의 기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조선일보의 1면 기사수보다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종이신문이 가진 지면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주(週)구성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26일의 일자별 기사 건수는 종이신문의 경우는 평균 3.89건,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평균 6건으로 나타난다.

<표 13> 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일자별 기사 건수

구분	종이신문(4종)		인터넷신문(1종)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1월 7일	17	4.2	6	3.8
1월 22일	19	4.7	6	3.8
2월 6일	18	4.4	5	3.2
2월 21일	16	4.0	6	3.8
3월 8일	15	3.7	7	4.5
3월 23일	13	3.2	7	4.5
4월 1일	16	4.0	5	3.2
4월 16일	17	4.2	7	4.5
5월 1일	18	4.4	6	3.8
5월 16일	17	4.2	7	3.2
5월 31일	15	3.7	6	3.8
6월 15일	12	3.0	7	4.5
6월 24일	17	4.2	5	3.2
7월 9일	13	3.2	6	3.8
7월 24일	16	4.0	6	3.8
8월 8일	15	3.7	6	3.8
8월 23일	17	4.2	6	3.8
9월 7일	15	3.7	6	3.8
9월 16일	16	4.0	6	3.8
10월 1일	16	4.0	5	3.2
10월 16일	16	4.0	5	3.2
10월 31일	12	3.0	6	3.8
11월 15일	15	3.7	7	4.5
11월 30일	14	3.5	6	3.8
12월 9일	16	4.0	5	3.2
12월 24일	14	3.5	6	3.8
전체	405	100	156	100.0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주제 영역별 기사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두 공적 영역에 속하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의 기사 건수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와 ‘사회’ 영역의 기사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상이 각 신문의 1면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의 1면은 ‘종합면’의 성격을 띤 면으로써 해당 시기에 가장 시의성이 높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사고 등이 다루어지는 면이다. 해당 면의 머리기사를 통하여 독자들의 눈길을 끌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기사를 다룸으로써 해당 신문사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대부분 정치 영역의 기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사고 등을 담고 있는 사회 영역의 기사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표 14> 종이신문의 주제 영역별 기사 건수

구분	빈도(건)	비율(%)	
정치	148	36.4	94.9
사회	121	30.0	
경제	60	14.9	
국제	55	13.6	
문화	7	1.7	5.1
스포츠·연예	9	2.2	
과학·기술·건강	5	1.2	
전체	405	100	100

<표 15> 인터넷신문의 주제 영역별 기사 건수

구분	빈도(건)	비율(%)	
정치	51	32.69	84.62
사회	62	39.74	
경제	13	8.33	
국제	6	3.85	
문화	18	11.54	15.38
스포츠·연예	4	2.56	
과학·기술·건강	2	1.28	
전체	156	100	100

나. 어휘 목록 구축 방안 확정

1) 어휘 목록 구축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신문에 출현하는 한자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목록을 구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어휘 교육 모형의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념어’란 다양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진 어휘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념어 군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휘 유형인 한자어를 대상 어휘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실제 신문에 등장하는 한자 어휘에 주목하여 한자어의 다양한 생산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매체적 특수성과 한자 어휘라는 어휘 유형적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는 어휘 목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실제 신문에 출현하는 어휘에 주목하여 실제 신문에 출현하는 양상을 군집으로 제시해 주는 것은 한자어의 다양한 생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어휘 목록의 추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실제 신문의 지면에 나타난 다양한 어휘 생산에 중심이 되는 개념어를 목록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휘 목록의 경제성, 교육의 효율성 등에 있어 유의미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어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띄어쓰기를 생략하거나 ‘준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다양한 합성어와 파생어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에 나타난 문식 단위⁹⁾를 그대로 인정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준말이나 합성어 또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실제 어휘 목록에서는 등재어와 미등재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어휘 목록은 생산성이 높은 한자 개념어 목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구를 초점화하기 위해서 작업 절차에서 먼저 원자료의 어휘를 어절 단위로 추출하고, 본 연구의 개념어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수사, 고유명사, 고유어, 외래어, 외국어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자어 개념어 말뭉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9) 본 연구에서는 신문에 나타난 띄어쓰기 단위를 ‘문식 단위’로 상정하였다.

<표 16>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축 절차

1 단 계	■ 신문 1면 전사 및 계량(66,19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절 단위 - 신문 매체(종이신문, 인터넷신문)에 따른 빈도 분류 - 주제 영역(정치, 사회, 경제, 국제,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문화)에 따른 빈도 분류 - 신문 구조기능(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편집자의 말)에 따른 분류
2 단 계	■ 한자어 선별(30,82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수사, 관형사, 고유명사 삭제 - 기본형 변경(조사, 전어말어미 삭제, 보조용언 유지) - 한자어 선별(고유어, 외래어, 외국어 삭제)
3 단 계	■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개념어 6,201개/개념어 출현 어휘 26,80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선정 - 김광해 국어교육용 어휘 목록(2003)을 참고하여 등급 부여(상: 5-7등급, 중: 3-4등급, 하: 1-2등급¹⁰⁾)
4 단 계	■ 빈도와 영역을 고려한 어휘 목록 조정(개념어 3,458개/개념어 출현 어휘 9,85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3,458개)’ 마련 - 신문의 각 영역에 출현하는 어휘를 고르게 포함시키고자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문화’ 영역의 어휘 추가(빈도 5이상 개념어에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문화’ 영역의 빈도 1~4 개념어를 포함함)

1단계는 주(週)구성표집 방법으로 선정한 2013년 1년 치 신문 기사를 매체별, 주제별, 구조기능별로 전사하였다. 매체별로는 종이신문, 인터넷신문으로 구분하였고, 주제별로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으로 구분하였고, 마지막으로 구조기능별로는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편집자의 말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신문 기사를 전사할 경우, 그 신문 기사의 ‘매체’와 ‘주제 영역’을 표시하고,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 ‘편집자의 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이러한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어절 계량을 수행한 결과 하나의 어절, 어휘에 매체별, 주제 영역별, 구조 기능별 정보가 모두 저장되도록 어절 분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교육용 어휘 목록의 모든 개념어들에 대한 출현 매체·출현 주제 영역 및 어떠한 구조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2단계에서는 분리된 어절을 대상으로 한자어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분리된 어절을 기본형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어절 단

10) 2003년도에 발간된 김광해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은 1-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추가 변경되어 1-7 등급으로 확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날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김광해 등급(1-7등급)을 기준으로 메타 계량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수사, 관형사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부사,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한자어가 남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시장(市場)에서’의 경우 ‘-에서’의 조사를 삭제하고, ‘시장(市場)’만 남기는 것이다. 또한 선어말어미를 삭제하고 보조용언은 유지하여 기본형을 설정하였다. ‘통화(通話)했다’의 경우, ‘-았/었’의 선어말 어미를 삭제하고, ‘통화(通話)’만 남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유명사, 고유어와 외래어, 외국어를 삭제하여서 한자어만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념어를 선정하고 등급을 부여하였다. 한자어의 기본형을 그대로 어휘 목록으로 삼지 않고 ‘개념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어휘 목록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어를 1단계를 통해서 추출된 한자어 기본형에서 추출한 첫 어근을 칭한다.¹¹⁾ 이렇게 개념어를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신문에 등장하는 어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신문은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띄어쓰기를 엄격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다면 어절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절을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문어의 경우 어휘들 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합성어와 파생어의 사용 양상이 두드러진다. 신조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진공의 어휘가 아니라, 실제 신문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문의 띄어쓰기 단위를 반영한 개념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시장경제’, ‘시장경기’와 같은 기본형이 추출된다. 그런데 기본형이 그대로 어휘 목록에 포함되면 어휘의 양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신문 매체의 특성도 반영하면서, 어휘 목록의 경제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 ‘개념어’라는 어휘 계량 단위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이라는 개념어 안에 실제 어휘 출현 양상에 해당하는 기본형인 ‘시장경제’, ‘시장경기’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으로 삼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신문 1면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아는 것보다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양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 어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어 개념어를 선정하여, 어휘 목록을 삼고, 신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휘 출현 양상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때 ‘시장경제’와 ‘시장경기’ 등을

11)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념어에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 등 다양한 어종이 포함되며, 추상적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실질 형태소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념어’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어휘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진 어휘를 지칭한다. ‘시장(市場)’은 ‘시장경제’, ‘시장경기’, ‘시장규제’ 등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市場)’을 개념어로 선정하여, 어휘 목록의 경제성과 매체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고자 한다.

별도로 하나하나 가르치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확장되어 가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위해서 개념어가 설정되게 되었다.

김광해 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계량된 한자어 개념어 목록에 등급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부여하였다. ‘상’은 김광해 어휘 목록의 5~7등급에 해당하며, ‘중’은 김광해 어휘 목록의 3~4등급에 해당하며, ‘하’는 김광해 어휘 목록의 1~2등급에 해당한다.

4단계에서는 빈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자어 개념어 목록을 추출하였다. 빈도 5이상의 개념어를 ‘고빈도’로 규정하고, 고빈도 개념어 2,693개의 목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신문의 1면 기사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주제의 어휘들이 소략하게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방지하고 신문의 각 영역에 출현하는 어휘를 균형 있게 포함시키고자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의 사적 영역 어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빈도 1~4의 개념어 765개도 고빈도 어휘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결과,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3,458개가 마련되었다.

2) 어휘 목록 구축 방법

어휘 목록 구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1~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다. 이는 크게 다시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념어 선별 단계와 교육용 어휘 활용 단계이다. 전자가 어절을 분리하고, 기본형을 변환하고 한자어를 선별한 후에 개념어를 선정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단계라면, 후자는 교육용 필수 개념어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도와 난도를 중심으로 목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아래 <표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장(市場)’, ‘주식(柱式)’, ‘시장(市長)’의 주요 개념어를 추출한 것을 교육용 어휘 목록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주요 개념어로 구성된 어휘 목록은 개념어가 출현하는 양상을 포괄할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市場)’이라는 개념어 안에, ‘시장’, ‘시장경제’, ‘시장조사’ 등의 기본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용 목록에는 ‘시장(市場)’이라는 어휘만 포함되겠지만, 교육의 장면에서는 실제 출현하는 다양한 어휘 양상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신문 어휘의 특수성과 문식성과의 관계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17>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축 과정 순서도

개념어 선별 단계					교육용 어휘 활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절 계량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	매체 교육용 필수 어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총 66,199 어절	기본형 변환	한자어 선별	개념어 선정 등급 부여	빈도·난도 중심의 개념어 목록 마련		
	• 작업 기준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수사, 선어말어미 삭제 -보조용언 유지	• 작업 기준 -고유명사, 고유어, 외래어, 외국어 삭제	• 작업 기준 -각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선정 -김광해 어휘 목록(2003)을 기준으로 등급 부여	• 작업 기준 -빈도 5이상의 개념어 선정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문화 영역의 빈도 1~4에 해당하는 개념어 추가 ¹²⁾		
	↓					
	• 삭제된 어절수: 35,373 • 선별된 한자어: 30,826		• 한자어: 30,826 • 개념어: 6,201	• 개념어: 3,458 • 개념어 출현 어휘: 9,858 ¹³⁾		
원문	기본형	(미)등재어	한자어	개념어	주요 개념어	개념어 출현 어휘 양상
시장에서	시장	시장	시장	시장(市場)	시장(市場)	시장
시장경제는	시장경제	시장경제	시장경제	시장(市場)경제		시장경제
시장조사에서	시장조사	시장조사	시장조사	시장(市場)조사		시장조사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시장	주식(株式)시장	주식(株式)	주식시장
주식소유 현황을	주식소유 현황	주식소유 현황	주식소유 현황	주식(株式)소유 현황		주식소유 현황
박시장께서	시장	시장	시장	시장(市長)	시장(市長)	시장
마켓을	마켓	마켓	-	-		

12) 각 영역별 어휘의 비율 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추가함.

13) 어휘 작업 3단계를 통하여 6,201개의 개념어가 선정되었다. 4단계에서는 6,201개의 개념어에 대하여 빈도·난도를 기준으로 3,458개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을 추출해 내었다. 해당하는 3,458개의 개념어들이 실제 신문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조어되어 나타나는 어휘의 개수가 9,858개이며 이것을 ‘개념어 출현 어휘’라 명명하였다.

가) 어절 계량

<표 18> 어절 계량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뭉치 분석 작업을 위한 원자료 가공 어휘별 분석 내용 및 범주 확정 <table border="1" data-bbox="248 591 766 1108"> <tr> <td>매체별</td><td>ㄱ. 종이신문 ㄴ. 인터넷신문</td></tr> <tr> <td>텍스트 주제별</td><td>ㄱ. 정치 ㄴ. 사회 ㄷ. 경제 ㄹ. 국제 ㅁ. 문화 ㅂ. 스포츠·연예 ㅅ. 과학·기술·건강</td></tr> <tr> <td>텍스트 구조기능별</td><td>ㄱ. 표제 ㄴ. 부제 ㄷ. 전문 ㄹ. 본문 ㅁ. 해설 ㅂ. 편집자의 말</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 말뭉치 처리를 위한 어절 단위 목록 확보 	매체별	ㄱ. 종이신문 ㄴ. 인터넷신문	텍스트 주제별	ㄱ. 정치 ㄴ. 사회 ㄷ. 경제 ㄹ. 국제 ㅁ. 문화 ㅂ. 스포츠·연예 ㅅ. 과학·기술·건강	텍스트 구조기능별	ㄱ. 표제 ㄴ. 부제 ㄷ. 전문 ㄹ. 본문 ㅁ. 해설 ㅂ. 편집자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한 신문 1면을 본래 기사와 동일한 표기 형태로 전사하되, 한 기사 내에서 동일한 단어에 대한 띄어쓰기는 통일되도록 조정함.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Syn KDP) 작업을 위한 매체별·주제 영역별·구조기능별 한글 파일 형성 말뭉치 작업을 위한 파일 변환(2b파일)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Syn KDP)를 활용하여 어절 빈도 결과 확보 엑셀을 활용하여 매체별·주제별·구조기능별 어절 빈도 통합.
매체별	ㄱ. 종이신문 ㄴ. 인터넷신문						
텍스트 주제별	ㄱ. 정치 ㄴ. 사회 ㄷ. 경제 ㄹ. 국제 ㅁ. 문화 ㅂ. 스포츠·연예 ㅅ. 과학·기술·건강						
텍스트 구조기능별	ㄱ. 표제 ㄴ. 부제 ㄷ. 전문 ㄹ. 본문 ㅁ. 해설 ㅂ. 편집자의 말						

어절 계량은 기본형을 변환하고 한자어를 선별하기 이전에 신문 1면의 원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Syn KDP)를 활용하여 어절 분리 및 어절 빈도 결과값을 확보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신문 1면의 기사를 수집하여 본래의 기사와 동일한 표기 형태로 전사하되 한 기사 내에서 동일한 단어에 대한 띄어쓰기는 통일하도록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사 내에서 ‘시장 경제’(본문), ‘시장경제’(전문·본문)처럼 서로 띄어쓰기가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처리 기준을 따랐다. 첫째, 더 많이 나타난 띄어쓰기 양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한 기사 내에서 ‘시장 경제’로 띄어 쓴 경우가 2번이고, ‘시장경제’로 띄어 쓴 경우가 1번이라면 ‘시장 경제’로 한 기사 내의 ‘시장+경제’ 어휘를 모두 수정한다. 둘째, 띄어쓰기의 서로 다른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경우, ‘본문’에 나타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전문에서 ‘시장경제’가 1번 나타나고, 본문에서 ‘시장 경제’가 1번 나타났을 경우, 본문을 기준으로 ‘시장 경제’로 한 기사 내의 ‘시장+경제’ 어휘의 띄어쓰기를 모두 수정하였다. 이는 전문이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경

제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다.

다음으로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Syn KDP) 작업을 하기 전에 매체별, 주제별, 구조기능별 한글 파일을 형성하였다. 이는 최종적인 어휘 목록에 등장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어가 진공의 어휘가 아니라 신문에서부터 추출한 어휘임을 부각시키고 매체의 특성을 살려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개념어의 매체와 주제 영역, 구조기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 <인터넷-정치-표제>, <종이-문화-본문>과 같이 개별적으로 한글 파일을 형성하여 작업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말뭉치 작업을 위해서 이들 한글파일을 확장자 ‘2b’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이 파일을 통합형 한글자료 처리기로 어절을 분리하고 빈도 결과값을 확보하였다.

나)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

<표 19>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절 단위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계량 기본 단위인 어근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시 말뭉치를 가공하는 단계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어휘를 추출하고 총 2단계에 걸쳐 분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기본형으로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삭제 대명사, 관형사, 의존명사, 수사, 선어말 어미 삭제 용언의 경우 기본형으로 수정.(단, 보조 용언은 삭제하지 않음.) 위의 항목으로 처리가 어려운 어절은 별도로 표시함. 모든 어휘의 의미를 신문의 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고 기본형을 확정해 줌. 2단계: 한자어 선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명사, 고유어, 외래어, 외국어 삭제하여 한자어(한자어 체언, 한자어 어근을 지닌 용언)만을 남김.

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 단계는 1단계에서 확보한 어절 단위의 원시 말뭉치를 본 연구의 계량 기본 단위인 어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단계이다. 총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기본형으로 변경, 한자어 선별이 각각 단계에 해당한다.

첫째, 기본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조사와 어미가 결합된 어절 상태의 어휘 자료에서 조사와 대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수사, 선어말 어미 등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낙하산이’와 같은 어절에서는 조사 ‘-이’를 삭제하여 ‘낙하산’으로 바꾸었다. 또한 ‘나타났는데’의 경우 ‘나타나다’와 같이 기본형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문맥을 확인하지 않아서 즉, 조사인지 어미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삭제 및 기본형으로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표시를 진행하였다. 자세한 처리의 기준의 예는 아래와 같다.

<표 20> 기본형 변환 세부 기준

<div> <div><대원칙></div> <div> <div>■ 어절 상태의 어휘 자료에서 조사, 대명사, 의존명사, 관형사, 수사를 삭제하고, 용언은 기본형으로 변환한다.</div> </div> </div>			
	경우	처리	예시
1	원문의 어절에서 숫자, 대명사, 고유명사가 섞인 경우	숫자, 대명사, 고유명사를 뺀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음.	■6.25전쟁(원문)→전쟁(기본형)
2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형	선어말어미는 삭제하고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통일함.	■추진하겠다/추진하겠다고/추진하겠다는/추진하겠지만(원문)→추진하다(기본형)
3	보조용언을 띄어쓰기 하지 않아 한 어절의 원문으로 나타난 경우	보조용언을 유지한 상태로 기본형을 설정함.	■타진해보았다(원문)→타진해보다(기본형)
4	접사의 경우	어근에 붙은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음.	■최강의(원문)→최강(기본형) 노골적으로(원문)→노골적
5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합성명사의 경우	신문의 문식 단위를 인정하여 붙여 쓴 형태를 기본형으로 삼음.	■회계자료를(원문)→회계자료(기본형) ■현직기자들이(원문)→현직기자들(기본형)
6	명백한 띄어쓰기 오류의 경우	어절을 분리하여 하나의 원문에 대한 서로 다른 기본형을 설정함.	■상금500만원과→상금(기본형)/5000만원(기본형)

어절 상태에서 기본형으로 어휘를 계량하는 과정에서 기본형으로 바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해당 음절이 조사인지, 어미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절 ‘강도’의 경우 ‘강(江)’과 조사 ‘-도’가 결합한 경우인지, ‘강도(強盜)’인지 어절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나선’의 경우도 용언 ‘나서다’의 활용형인지, ‘나선형’의 ‘나선’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에 비해서 어절 ‘눈

의됐지만’의 경우는 ‘논의되었다’의 활용형임을 문맥 확인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논의됐지만’에서 ‘논의되었다’로 바꾸는 과정은 위의 기본형 변경 기준을 바로 적용하면 되지만, ‘강도’를 기본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실제 사용된 문맥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형으로 만드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동음이의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변경된 어휘 역시 문맥 확인이 필요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형의 어휘의 원문을 확인하여 어깨번호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모든 어절의 기본형을 확정하고 동음이의어 구분을 진행하였다.

둘째, 고유명사, 고유어, 외래어, 외국어를 삭제하여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휘 목록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한자어로 구성된 체언과 한자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는 기본형만을 남길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차기정부’, ‘출범하다’ 등의 한자어 기본형만 어휘 목록에 남게 되었다. 또한 이 단계를 통하여 동일한 ‘시장’을 개념어로 삼고 있는 ‘시장경제’, ‘시장조사’ 등 다양한 한자어가 어휘 목록에 병렬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

<표 21>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어로 된 기본형에서 개념어를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함. ■ 한자어의 첫 어근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함. ■ 선정된 개념어에 상, 중, 하의 등급을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개념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어 첫 어근을 개념어로 삼음. 예) 초등학교, 초등학생=>초등 • 접사는 어근에 결합한 형태를 개념어로 선정함. 예) 최측근: 최-(접사)+측근=>최측근 • 준말의 경우 준말 전체를 개념어로 삼음. 예) 재보선=>재보선 ■ 2단계 한자 병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한자어 개념어에 한자를 병기함. ■ 3단계 어휘별 등급(난이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2003)을 참고하여, 5~7등급은 ‘상’으로, ‘3~4등급’은 ‘중’으로, 1~2등급은 ‘하’로 선정하였음.

개념어 선정 및 등급 부여의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한자어 어근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으로부터 개념어를 추출하는 단계이다. 개념어 추출의 대원칙은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형 ‘시장경제’처럼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고 있을 경우에, 첫 어근인 ‘시장’을 개념어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접사의 경우 단독으로 개념어가 될 수는 없으며, 접두사의 경우에는 접두사와 첫 어근을 결합한 형태로 개념어를 구성하고, 첫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첫 어근만을 개념어로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측근(最側近)’, ‘최전방(最前方)’의 경우에 ‘최(最)’는 접두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합하는 어근과 함께 개념어를 구성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러나 ‘예견하다’의 기본형에서 ‘예견’의 어근과 결합하여 용언으로 파생시키는 접미사 ‘-하다02’의 경우는 삭제하고, ‘예견(豫見)’만 개념어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준말의 경우에는 준말 전체를 개념어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재보선’은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준말이지만, 신문 1면의 기사에서 ‘재보선’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준말을 그대로 어휘 목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념어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개념어 선정의 기준과 예는 아래와 같다.

<표 22> 개념어 선정 기준

<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삼는다. 접사는 단독으로 개념어가 될 수 없으며, 접두사+어근 형태를 개념어로 삼는다. 어근+접미사 형태는 제외한다. 준말의 경우 준말 전체를 개념어로 삼는다. 				
	경우	처리		예시
1	한자어와 고유어가 섞인 경우	제외	체언일 경우 개념어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골학교(원문) → 개념어 삭제
		포함	용언에 ‘-하다’, ‘-되다’, ‘-시키다’, ‘-롭다’, ‘-해지다’, ‘-스럽다’ 등이 등장할 경우 명사 어근은 개념어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언하다(기본형) → ‘조언’(개념어) 조울되다(기본형) → ‘조울’(개념어)
2	한자어와 외래어 섞인 경우	제외	개념어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피크제(기본형) → 개념어 삭제
3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가 섞인 경우	제외	기본적으로는 개념어에서 접미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적’의 경우 ‘적극’과 ‘적극적’ 모두 등재되어

				있기에 한자어 첫 어근을 기본형으로 삼는다는 기본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을 개념어로 설정함.
		포함	예외적으로 접미사를 포함할 수 있음.	■‘대대적(大大的)’의 경우는 ‘대대’만 추출하여 개념어로 삼을 경우, 본래 ‘대대적’이 갖는 의미와는 달라지기 때문에 ‘대대적(大大的)’으로 개념어를 설정함.
4	고사성어/관용구가 사용된 경우	포함	고사성어/관용구 자체를 개념어로 삼음	■ 동고동락하다(기본형) → 동고동락(同苦同樂)
5	기관명이나 직위명이 사용된 경우	포함	보통명사로 처리하여 첫 어근을 추출함	■ 국가정보원(기본형) →국가(개념어)
			기관명이 준말일 경우 준말 자체를 개념어로 설정	■ 국정원(기본형) →국정원(개념어)
6	인명, 국가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사용된 경우	제외	개념어에서 제외	■‘한국’, ‘미국’, ‘광주’ 등은 개념어에서 제외
7	숫자, 대명사, 고유명사 섞인 경우	포함	숫자, 대명사, 고유명사를 제외한 것을 개념어로 포함	■ 6.25전쟁(원문)→전쟁(개념어)

2단계는 추출된 개념어에 한자를 병기해 주는 과정이다. 한자를 병기해 줌으로써 어깨번호 대신 동음이의어를 구분하고, 한자가 병기된 어휘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한자어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함께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자어를 병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기본형 변환 및 한자어 선별>1단계>5단계’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하여 동음이의어를 구분하여 주었던 어깨번호 대신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다. 단, 한자를 병기할 때 동음이의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깨번호를 한자와 함께 병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인사(人事)’가 있다. ‘인사02’와 ‘인사03’은 모두 ‘人事’라는 한자를 사용하지만, 서로 의미는 다르다. 이 경우 ‘인사02(人事)’, ‘인사03(人事)’의 방법으로 처리

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개념어 목록을 대상으로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상, 중, 하 3등급의 등급을 부여하였다. 5~7등급은 ‘상’으로, ‘3~4등급’은 ‘중’으로, 1~2등급은 ‘하’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최종 확정될 교육용 어휘 목록의 세부 기준은 전문가 판단을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다.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이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이 되었고, 당대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재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휘의 난도 역시 다르게 판정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영상(動映像)’은 김광해 어휘 등급에는 ‘7’등급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되었기 때문에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 빈도와 영역을 고려한 어휘 목록 조정

<표 2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구성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교육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기 이전에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개념어 전체 목록(6,201) 가운데서 빈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3,500개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을 확보하는 과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빈도 5이상의 어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영역별로(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어휘 분포 양상을 구조화함. • 주제 영역별로 빈도 5이상의 개념어를 선정함. ■ 2단계: 가중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빈도 1~4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추가함.¹⁴⁾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개념어로부터 어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크게 양적 계량과 질적 계량이 있다. 우선 전자의 방법으로 ‘빈도 5’ 이상의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교육용 어휘 목록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 사회, 경제, 국제의 공적 분야의 주제 영역에 비해,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의 사적 분야의 주제 영역의 어휘 수가 적다.

14) 각 영역별 어휘의 비율 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추가함.

주제 영역 간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의 어휘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에서 빈도 1~4까지의 어휘를 앞서 산출한 빈도 5 이상의 어휘 목록과 합하였다. 이 목록을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으로 삼았다.

[전체 개념어 목록]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계 (중복 삭제)
개수(개)	3,573	4,021	2,047	1,614	1,689	398	454	6,201
비율(%)	57.6	64.8	33.0	26.0	27.2	6.4	7.3	100.0



고빈도 개념어: 총 빈도 5 이상 개념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계 (중복 삭제)
개수(개)	2,270	2,337	1,518	1,220	1,076	289	332	2,693
비율(%)	84.3	86.8	56.4	45.3	40.0	10.7	12.3	100.0



추가 목록: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의 빈도 1~4 개념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계 (중복 삭제)
개수(개)	131	205	46	43	578	97	113	765
비율(%)	17.1	26.8	6.0	5.6	75.6	12.7	14.8	100.0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계 (중복 삭제)
개수(개)	2,401	2,542	1,564	1,263	1,654	386	445	3,458
비율(%)	69.4	73.5	45.2	36.5	47.8	11.2	12.9	100.0

[그림 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 확충 단계 통계

위와 같은 양적 계량을 통해서만 어휘 자료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어휘 목록이 현재의 학습자에게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질적 계량이 필요하다.

다. 질적 계량은 어휘 목록 개발을 위한 다층적인 조사 분석(4장) 이후에 종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상술하였다. 전문가 검토를 기초로 하는 교육용 어휘 목록의 질적 계량 기준, 양적 계량과 질적 계량을 통합하여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확정하고 그 특성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4. 어휘 목록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가. 설문조사

1)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적합한 어휘 능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휘 목록 및 어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세대별 문식력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는 본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방향 및 구체적인 목록 및 모형 개발의 시사점을 얻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실증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어휘 목록 및 어휘 모형 개발을 위해 본 조사가 정량적(quantitative) 결과라면 이후 실시할 표적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은 정성적(qualitative) 조사 방법으로 이 연구를 통해 다층적으로 해석한 국민의 문식성 현황의 결과는 실효성 높은 연구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첫째, 세대별 어휘 학습 및 신문 읽기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신문 기사 읽기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어휘 및 읽기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둘째,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자어, 전문어 및 영역별 어휘, 외래어 및 외국어,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질문을 각기 시행하여 각 어휘 유형별에 따른 세대별 어휘 능력 인식이 어떠한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어휘 능력을 이해 능력 및 표현 능력으로 나누어 목표 어휘를 포함한 한두 문장을 제시하여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이해 어휘 및 표현 어휘 능력 간의 차이, 영역별 어휘 능력 간의 차이 등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2) 조사 설계 및 진행

본 조사는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10대), 청·장년(20대, 30대, 40대), 중·노년(50대, 60대, 70대)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각 세대 50명(전체 150명)을 표본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문조사 대상자

의 분포 및 설문조사 개요는 같다.

조사대상	청 소년(50)	대도시(26)	9학년(13) 12학년(13)
		중소도시(12)	9학년(6) 12학년(6)
		읍·면(12)	9학년(6) 12학년(6)
	청·장년(50)	대도시(26)	20대(9) 30대(9) 40대(8)
		중소도시(12)	20대(4) 30대(4) 40대(4)
		읍·면(12)	20대(4) 30대(4) 40대(4)
	중·노년(50)	대도시(26)	50대(9) 60대(9) 70대 이상(8)
		중소도시(12)	50대(4) 60대(4) 70대 이상(4)
		읍·면(12)	50대(4) 60대(4) 70대 이상(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표본추출방법	▪ 확보된 리스트를 통한 조사		

[그림 4]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지역 변인, 소득 변인, 학력 변인을 최대한 분배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 변인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을 나누어 과반수를 수도권으로 나머지 중소도시 및 읍·면을 각기 고르게 분배하였다. 또한 소득 및 학력 변인을 고려하여 최대한 세대별 균등하게 배경 변인이 고루 반영되도록 설문을 실시¹⁵⁾하였다.

조사 방법은 미리 구조화된 설문지를 들고 조사자가 본 설문조사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수거하는 면대면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한 150부의 설문조사지 전수(全數)가 수거되어, 확보된 설문지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15)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학력 변인이 최대한 고르게 분배되도록 고려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의 학력 변인 분포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체 150명(100%) 가운데 ‘무학’이 1명(0.7%), ‘초등학교 졸업’이 28명(18.7%), ‘중학교 졸업’이 31명(20.7%), ‘고등학교 졸업’이 36명(24.0%), ‘대학교 졸업’이 33명(22.0%), ‘대학원 졸업’이 20명(13.3%), ‘기타’가 1명(0.7)이었다.

3) 설문 내용 구성의 실제

설문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Part I. 설문 대상자의 일반 정보



- Part II. 어휘 학습 및 신문 읽기의 실태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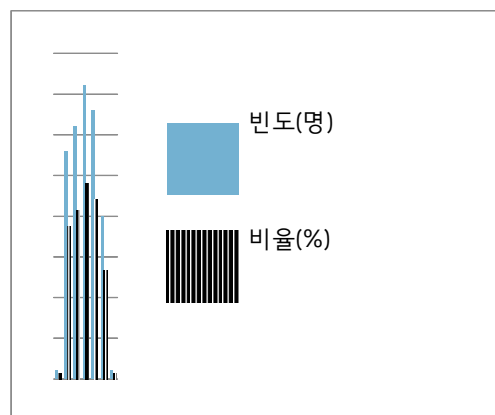
- 어휘력 및 어휘 학습의 실태
- 신문 읽기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신문 기사 영역에 따른 선호도 실태
-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



- Part III·IV 어휘 능력: 이해 및 표현 어휘 능력 측정

- 신문 매체별·주제 영역별 어휘에 대한 세대별 어휘량 측정

[그림 5]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가) 설문조사 작업 수행의 절차

본 설문조사 작업은 크게 ‘설문지 구안 → 설문 진행 → 결과 분석’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진행에 앞서 별도의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해당 심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위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법정대리인용 동의서¹⁶⁾ 및 연구 대상자 본인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보된 150부의 설문 결과지는 모두 엑셀에 원시 자료로 처리하였으며, Part III, IV에 해당하는 응답은 정답 유무를 채점하여 그 결과를 주제 영역별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20.0(ver.)을 활용하여 실시¹⁷⁾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실시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5> 설문 실시 절차

설문조사 절차	기간	세부 내용
설문지 초안 작성	8. 19. (화)	초안 작성 및 연구진 검토
설문지 검토	8. 20. (수) ~ 8. 29. (금)	수정사항 반영하여 재검토
설문지 확정	9. 3. (수) ~ 9. 5. (금)	설문지 확정 및 IRB 심사 신청
설문 대기	9. 10. (수) ~ 9. 26. (금)	설문지 및 동의서 배부 후 대기 IRB 조건부 승인(9월 23일)
설문 실시	10. 8. (수) ~ 10. 22. (수)	IRB 승인(10월 7일) 설문 실시
설문지 수거 및 코딩	10. 23. (금) ~ 10. 24. (일)	설문지 수거 및 코딩
설문 결과 분석	10. 25. (토) ~ 10. 26. (일)	설문 결과 분석

나) 설문 대상자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 표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및 거주 지역, 최종 학

16) 법정대리인용 동의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7) 통계 처리 결과는 모두 해당 영역의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백분율로 처리된 모든 값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백분율 합계의 $\pm 0.1\%$ 의 오차는 허용하여 임의로 처리하지 않았다.

력 및 가계 소득 등을 최대한 고루 분포하게 설문 배부 시 고려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표본은 아래 결과와 같다.

<표 26> 설문 대상자의 일반 정보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88	58.7
	남자	62	41.3
연령	10대	50	33.3
	20대	17	11.3
	30대	17	11.3
	40대	16	10.7
	50대	17	11.3
	60대	17	11.3
	70대	16	10.7
거주 지역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79	52.7
	중소도시	35	23.3
	읍·면	36	24.0
직업	사무직	19	12.7
	영업직	4	2.7
	전문직	14	9.3
	생산직	5	3.3
	자영업	3	2.0
	공무원	5	3.3
	주부	15	10.0
	학생	60	40.0
	무직	12	8.0
	기타	13	8.7
최종학력	무학	1	0.7
	초등학교 졸업	28	18.7
	중학교 졸업	31	20.7
	고등학교 졸업	36	24.0
	대학교 졸업	33	22.0
	대학원 졸업	20	13.3
	기타	1	0.7
가계 소득 수준 (월 소득 기준)	50만원 미만	5	3.3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0	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	2.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7	84.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	0.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	2.7
	500만원 이상	10	6.7
전체		150명	100%

4) 조사 결과

설문 실시 결과 드러난 결과를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휘력 및 어휘학습, 신문 읽기 실태 및 태도를 통해 세대별 문식 환경 및 이에 대한 세대별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았다. 신문 기사 영역에 따른 선호도 및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을 통해 세대별 선호 텍스트 영역과 어휘 유형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미 어휘 작업을 통해 선별된 어휘 목록을 통해 세대별 텍스트 영역별 어휘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의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설문 문항의 개요

순번	문항 범주	문항 내용
①	어휘력 및 어휘 학습	① 일상생활에서 어휘 선택의 어려움
		② 어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③ 한자 어휘 학습과 어휘 능력 신장
②	신문 읽기 실태 및 태도	① 신문 기사 읽기 현황
		② 신문 기사 내용 이해도
		③ 신문 기사 읽기 특징
③	신문 기사 영역에 따른 선호도 및 이유	① 가장 많이 읽는 신문 기사 영역
		② 가장 읽기 어려운 기사 영역
		③ 어휘의 뜻을 몰라 어려운 신문 기사 영역
		④ 해당 신문 기사 영역이 읽기 어려운 이유
		⑤ 신문 기사와 어휘 능력 관계에 대한 인식
		⑥ 한자 병기(併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④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	①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인식
		② 전문어에 대한 인식
		③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인식
		④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인식
⑤	어휘 능력 ¹⁸⁾ (이해·표현)	① 세대별·영역별 어휘 이해 능력
		② 세대별·영역별 어휘 표현 능력
		③ 세대별·영역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18) 이해 어휘 및 표현 어휘의 측정에 대한 구안은 신명선(2004)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의 설계 구조를 활용하였다. 이해 어휘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단어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표현 어휘는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이해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문맥 속 단어 이해의 정확성은 어휘의 표현 능력을 담보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해 어휘의 경우, 해당 목표 어휘를 아는지 여부를 스스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예’, ‘아니요’로 체크하게 하였고, 표현 어휘의 경우, 무작위로 어휘를 적절 혹은 부적절하게 문장 안에 삽입하여 어휘 사용의 오류를 평가의 방식을 사용하여 점검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 어휘력 및 어휘 학습

(1) 일상생활에서 어휘 선택의 어려움

<표 28> 일상생활에서 어휘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13	26.0
	조금 그렇다	10	20.0
	보통이다	17	34.0
	조금 아니다	8	16.0
	아니다	2	4.0
전체		50	100.0
청·장년	그렇다	12	24.0
	조금 그렇다	6	12.0
	보통이다	19	38.0
	조금 아니다	12	24.0
	아니다	1	2.0
전체		50	100.0
중·노년	그렇다	16	32.0
	조금 그렇다	7	14.0
	보통이다	9	18.0
	조금 아니다	14	28.0
	아니다	4	8.0
전체		50	100.0

‘나는 평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에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중·노년과 청소년이 23명(46%)으로 같았고, 청·장년이 18명(36%)으로 나타났다. ‘아니다’ 혹은 ‘조금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중·노년 18명(36%), 청·장년 13명(26%), 청소년 10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어휘선택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노년 역시 청소년 못지않게 어휘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노년이 청소년에 비해 어휘력이 낮다기보다는 어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가장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는 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어휘선택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어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표 29> 어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4	28.6
	조금 그렇다	4	28.6
	보통이다	2	14.3
	조금 아니다	2	14.3
	아니다	2	14.3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9	30.0
	조금 그렇다	8	26.7
	보통이다	2	6.7
	조금 아니다	8	26.7
	아니다	3	10.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10	31.3
	조금 그렇다	7	21.9
	보통이다	2	6.3
	조금 아니다	5	15.6
	아니다	8	25.0
전체		32	100.0

‘신문 기사를 읽다가 정확한 뜻을 모르는 어휘를 접했을 때, 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다.’에 대한 설문 결과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청·장년 17명(56.7%), 중·노년 17명(53.2%), 청소년 8명(57.2%) 순으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중·노년 13명(40.6%), 청·장년 11명(36.7%), 청소년 4명(28.6%) 순으로 나타났다.

어휘의 뜻을 찾아보는 습관은 청소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어휘 민감도’가 다른 세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청소년은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 모르는 대로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고 적절한 어휘로 바꾸어 쓰려는 예민함이 다른 세대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휘를 다양하게 쓰려는 욕구가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사이버 언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에서는 문법적으로 타당한 표현보다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쓰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정성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한자 어휘 학습과 어휘 능력 신장

<표 30> 한자 어휘 학습과 어휘 능력 신장 관련성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9	64.3
	조금 그렇다	3	21.4
	보통이다	0	0
	조금 아니다	1	7.1
	아니다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18	60.0
	조금 그렇다	7	23.3
	보통이다	5	16.7
	조금 아니다	0	0
	아니다	0	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24	75.0
	조금 그렇다	5	15.6
	보통이다	3	9.4
	조금 아니다	0	0
	아니다	0	0
전체		32	100.0

‘한자(어)를 학습하는 것이 어휘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는 응답은 중·노년 29명(90.6%)으로 가장 높고, 청·장년 25명(83.3%)이었으며, 청소년 12명(85.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로 답변한 청·장년과 중·노년의 경우는 0명이었으나 청소년에서는 2명(14.2%)이 나타났다.

한자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중·노년은 한자어가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영어 세대라고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도 그러한 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자어가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청소년이 동의한다고 하는 말이 곧바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과 동일시되는지는 추후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한자어 학습을 통해 어휘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의 언어나 교과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한자어는 우리말의 일부라기보다는 영어나 중국어처럼 또 다른 외국어 알파벳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신문 읽기 실태 및 태도

(1) 신문 기사 읽기 현황

<표 31> 신문 기사 읽기 현황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예	14	28.0
	아니요	36	72.0
전체		50	100.0
청·장년	예	30	60.0
	아니요	20	40.0
전체		50	100.0
중·노년	예	32	64.0
	아니요	18	36.0
전체		50	100.0

‘평소 신문을 읽으십니까?’에 ‘예’라고 답변한 사람은 중·노년 32명(64.0%), 청·장년 30명(60.0%), 청소년 14명(28.0%) 순으로 나타났고, ‘아니요’라고 답변한 사람은 청소년 36명(72.0%), 청·장년 20명(40.0%), 중·노년 18명(36.0%)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에 비해 청소년의 신문 읽기 현황이 압도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이신문만을 신문으로 여기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신문 기사를 ‘읽는 기사’로 여기지 않고 ‘보는 정보’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연구적 가설을 세웠다. 청소년들이 ‘신문 읽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취하는지 추후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신문 기사 내용 이해도

<표 32> 신문 기사 내용 이해도에 대한 반응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4	28.6
	조금 그렇다	2	14.3
	보통이다	8	57.1
	조금 아니다	0	0.0
	아니다	0	0.0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7	23.3
	조금 그렇다	10	33.3
	보통이다	12	20.0
	조금 아니다	1	3.3
	아니다	0	0.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17	53.1
	조금 그렇다	7	21.9
	보통이다	6	18.8
	조금 아니다	2	6.3
	아니다	0	0.0
전체		32	100.0

‘나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세대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은 ‘그렇다’가 4명(28.6%), ‘조금 그렇다’가 2명(14.3%), ‘보통이다’가 8명(57.1%), ‘조금 아니다’가 0명, ‘아니다’가 0명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청·장년은 ‘그렇다’가 7명(23.3%), ‘조금 그렇다’가 10명(33.3%), ‘보통이다’가 12명(20.0%), ‘조금 아니다’가 1명(3.3%)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중·노년은 ‘그렇다’가 17명(53.1%), ‘조금 그렇다’가 7명(21.9%), ‘보통이다’가 6명(18.8%), ‘조금 아니다’가 2명(6.3%)을 차지하고 있다.

신문 기사 내용의 이해도 측면에서 볼 때 중·노년층이 가장 높았고, 청소년층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른 매체보다 신문매체에 한자어나 전문어가 많고 신문매체에 비해 낱설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 세대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신문 기사 읽기 특징

<표 33> 세대별 신문 읽기 매체 선호도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종이신문	5	35.7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2	14.3
	컴퓨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조선일보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0	0.0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5	35.7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나 신문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읽는다.	0	0.0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비슷한 비율로 읽는다.	2	14.3
	기타	0	0.0
전체		14	100.0
청·장년	종이신문	3	10.3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11	37.9
	컴퓨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조선일보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2	6.9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10	34.5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나 신문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읽는다.	0	0.0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비슷한 비율로 읽는다.	2	6.9
	기타	1	3.4
전체		29*	100.0
중·노년	종이신문	21	65.6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3	9.4
	컴퓨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조선일보 홈페이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3	9.4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읽는다. (예: 네이버, 다음 등)	2	6.3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통해 신문사 홈페이지나 신문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읽는다.	0	0.0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비슷한 비율로 읽는다.	3	9.4
	기타	0	0.0
전체		32	100.0

*결측값 1 제외

‘신문 기사는 주로 무엇을 통해 읽으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 세대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우선 ‘종이신문’의 항목에서 중·노년은 21명(65.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이 5명(35.7%)이었으며, 청·장년은 3명(10.3%)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과 청·장년은 중·노년 세대보다 디지털 미디어, 즉 컴퓨터나 휴대전화(스마트폰)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문 기사를 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빈도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두 세대 모두 ‘신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보다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기에 게시된 기사를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 7명, 50.0%/청·장년 21명, 72.4%).

중·노년은 종이신문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종이신문이라는 매체가 확실히 중·노년 세대의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청소년과 청·장년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신문사의 홈페이지나 신문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를 접하기보다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동일 사건에 대한 신문사별 보도의 특징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특정 신문을 접하기보다는, 유명 포털이 선택한 기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년의 신문 기사 읽기의 매체 관련 특징은 추후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신문 기사 영역에 따른 선호도 및 이유

(1) 가장 많이 읽는 신문 기사 영역

<표 34> 세대별 선호하는 신문 기사 영역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정치	2	14.3
	사회	4	28.6
	경제	0	0.0
	국제	2	14.3
	문화	0	0.0
	스포츠·연예	5	35.7
	과학·기술·건강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정치	6	20.7
	사회	9	31.0
	경제	0	0.0
	국제	1	3.4
	문화	5	17.2
	스포츠·연예	8	27.6
	과학·기술·건강	0	0.0
전체		29*	100.0
중·노년	정치	11	34.3
	사회	9	28.1
	경제	5	15.6
	국제	0	0.0
	문화	4	12.5
	스포츠·연예	1	3.1
	과학·기술·건강	2	6.3
전체		32	100.0

*결측값 1 제외

‘가장 많이 읽는 신문 기사 영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 청소년은 ‘스포츠·연예’(5명, 35.7%), 청·장년은 ‘사회’(9명, 31.0%), 중·노년은 ‘정치’(11명, 34.3%)를 가장 높게 답변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적 영역의 신문 기사에, 반대로 청·장년 및 중·노년의 경우는 공적 영역의 기사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결과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대별 신문 기사 영역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은 선호 관심사 및 체감 어휘 난이도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사적 영역에 두드러진 선호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대한 원인은 추후 표적집단면담 및 시선추적장치 실험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2) 가장 읽기 어려운 기사 영역

<표 35> 세대별 선호하지 않는 신문 기사 영역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정치	5	35.7
	사회	0	0.0
	경제	8	57.1
	국제	0	0.0
	문화	0	0.0
	스포츠·연예	0	0.0
	과학·기술·건강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정치	8	28.6
	사회	0	0.0
	경제	12	42.9
	국제	2	7.1
	문화	1	3.6
	스포츠·연예	2	7.1
	과학·기술·건강	3	10.7
전체		28*	100.0
중·노년	정치	3	9.4
	사회	0	0.0
	경제	11	34.4
	국제	8	25.0
	문화	0	0.0
	스포츠·연예	4	12.5
	과학·기술·건강	6	18.8
전체		32	100.0

*결측값 2 제외

‘가장 읽기 어려운 신문 기사 영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 모든 세대에서 ‘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8명’(57.1%), 청·장년은 ‘12명’(42.9%), 중·노년은 ‘11명’(34.4%)이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세대가 ‘경제’에 대해 동일하게 어려움을 표하는 이유는 ‘경제’ 관련 기사를 읽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많이 요구되며, ‘경제’ 기사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모든 세대에 걸쳐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을 읽기 어려운 기사로 공통적으로 선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추후 어휘 모형 및 어휘 목록을 개발할 때, 이 영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어휘 능력 향상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어휘의 뜻을 몰라 어려운 신문 기사 영역

<표 36> 어휘 난이도 및 신문 기사 영역 선호도 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정치	1	8.3
	사회	1	8.3
	경제	7	58.3
	국제	1	8.3
	문화	0	0.0
	스포츠·연예	0	0.0
	과학·기술·건강	2	16.7
전체		12*	100.0
청·장년	정치	5	18.5
	사회	0	0.0
	경제	15	55.6
	국제	3	11.1
	문화	1	3.7
	스포츠·연예	0	0.0
	과학·기술·건강	3	11.1
전체		27*	100.0
중·노년	정치	0	0.0
	사회	0	0.0
	경제	12	44.4
	국제	7	25.9
	문화	0	0.0
	스포츠·연예	3	11.1
	과학·기술·건강	5	18.5
전체		27*	100.0

*결측값 청소년 2, 청·장년 3, 중·노년 5 제외

‘다음 중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휘의 뜻을 몰라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주제 영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 ‘경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7명’(58.3%), 청·장년은 ‘15명’(55.6%), 중·노년은 ‘12명’(44.4%)이 답변했다.

앞선 설문 결과에서 ‘경제’가 가장 읽기 어려운 영역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역시 ‘어휘’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어휘가 경제에 대한 전문어, 외래어 등의 특수어인지, 그 영역에 주로 쓰이는 한자어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는 추후 표적집단면담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4) 해당 신문 기사 영역이 읽기 어려운 이유

<표 37> 신문 기사 영역 읽기 어려움의 이유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해당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	7	50.0
	기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기 때문	3	21.4
	기사에 사용된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4	28.6
	기타	0	0.0
전체		14	100
청·장년	해당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	10	34.5
	기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기 때문	14	48.3
	기사에 사용된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5	17.2
	기타	0	0.0
전체		29*	100
중·노년	해당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	9	28.1
	기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기 때문	12	37.5
	기사에 사용된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11	34.4
	기타	0	0.0
전체		32	100

*결측값 1 제외

‘위의 영역이 읽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 청소년은 ‘해당 영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7명, 50.0%), 청·장년은 ‘기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기 때문’(14명, 48.3%), 중·노년은 ‘기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적기 때문’(12명, 37.5%)에 가장 높게 답변하고 있다. 다른 세대는 기사에 대한 선호도의 문제인데 비해서, 청소년은 ‘정보’의 결핍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아무래도 청소년은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영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사에 사용된 어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답변한 경우는 청소년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노년이 11명(34.4%)으로 가장 높게 답변하였으며 청소년은 4명(28.6%), 청·장년 5명(17.2%)으로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가 중·노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어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어휘 민감도’의 측면에서 중·노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민감해서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어휘력이 높을수록 이를 더 정확히 쓰거나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로 인해 어휘력이 높은 중·노년이 어휘의 이해나 표현의 측면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추측되었다.

(5) 신문 기사와 어휘 능력 관계에 대한 인식

<표 38> 신문 기사와 어휘 능력 관계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6	42.9
	조금 그렇다	3	21.4
	보통이다	4	28.6
	조금 아니다	1	7.1
	아니다	0	0.0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11	36.7
	조금 그렇다	12	40.0
	보통이다	6	20.0
	조금 아니다	1	3.3
	아니다	0	0.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22	68.8
	조금 그렇다	7	21.9
	보통이다	2	6.3
	조금 아니다	1	3.1
	아니다	0	0.0
전체		32	100.0

‘평소 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 어휘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설문 결과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중·노년 29명(90.7%), 청·장년 23명(76.7%), 청소년 9명(64.3%) 순으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청소년 1명(7.1%), 청·장년 1명(3.3%), 중·노년 1명(3.1%)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가 신문 기사 읽기와 어휘 능력 신장이 비례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신문 읽기의 빈도수가 낮았던 청소년도 신문 읽기와 어휘력 증진의 관련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왜 실제로는 신문 기사를 잘 읽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은 추후 표적집단 면담을 통해 정성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6) 한자 병기(併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표 39> 한자 병기(併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1	7.1
	조금 그렇다	2	14.3
	보통이다	5	35.7
	조금 아니다	5	35.7
	아니다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9	30.0
	조금 그렇다	10	33.3
	보통이다	6	20.0
	조금 아니다	2	6.7
	아니다	3	10.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11	34.4
	조금 그렇다	13	40.6
	보통이다	3	9.4
	조금 아니다	0	0.0
	아니다	5	15.6
전체		32	100.0

‘뜻을 잘 모르는 한자어의 경우, 괄호 안에 제시된 한자의 도움을 받아 이해한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청소년에서 3명(21.4%)로, 청·장년 19명(63.3%), 중·노년 24명(75.0%)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자 병기(併記)의 문제는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한자를 익히는 것이 국어의 어휘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말로 굳어진 경우, 굳이 한자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설문 결과 역시 한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중·노년층은 대부분(75.0%)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자 세대가 아닌, 소위 영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은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21.4%)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아마도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한자를 병기한다고 했을 경우 그 한자를 결국 읽어내지 못해서 병기를 하나마나한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 분석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라)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

(1)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인식

<표 40>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1	7.1
	조금 그렇다	4	28.6
	보통이다	4	28.6
	조금 아니다	4	28.6
	아니다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2	6.7
	조금 그렇다	10	33.3
	보통이다	8	26.7
	조금 아니다	6	20.0
	아니다	4	13.3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2	6.3
	조금 그렇다	9	28.1
	보통이다	3	9.4
	조금 아니다	5	15.6
	아니다	13	40.6
전체		32	100.0

‘한자어나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조금 그렇다’라는 답변은 청·장년 12명(40.0%), 청소년 5명(35.7%), 중·노년이 11명(34.4%) 순으로 나타났다. ‘아니다’ 혹은 ‘조금 아니다’는 답변은 중·노년 18명(56.2%), 청·장년 10명(33.3%), 청소년 5명(35.7%) 순으로 나타났다.

중·노년층의 한자어나 한자의 의미 이해도가 높고, 청소년이 이해도가 낮은 것은 예상하던 바이나, 청·장년 역시 한자어의 의미를 알지 못해 기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중·노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는 아마도 1968년대 ‘한글 전용 정책’이 실시되면서 40대인 장년부터 10대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전 세대에 비해 한자교육을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1972년에 다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가 부활하고 한문 교과가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한문 교육이 아예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한문 교과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이 되기도 하고, 한자보다는 영어에 대한 교육이 점점 중시되면서 청·장년 및 청소년 세대에게 한자는 중·노년이 느끼는 한자와는 다른 비밀 상적인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전문어에 대한 인식

<표 41> 전문어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4	28.6
	조금 그렇다	3	21.4
	보통이다	3	21.4
	조금 아니다	3	21.4
	아니다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5	16.7
	조금 그렇다	14	46.7
	보통이다	8	26.7
	조금 아니다	2	6.7
	아니다	1	3.3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7	21.9
	조금 그렇다	10	31.3
	보통이다	7	21.9
	조금 아니다	6	18.8
	아니다	1	3.1
전체		31*	100.0

*결측값 1 제외

‘전문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는 답변은 청·장년 19명(63.4%), 중·노년 17명(53.2%), 청소년 7명(50.0%)이었다. ‘아니다’ 혹은 ‘조금 아니다’는 답변은 중·노년 7명(21.9%), 청소년 4명(28.5%), 청·장년 3명(10%)으로 나타났다.

전문어로 인한 어휘 이해의 정도는 세대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세대가 어려워한 ‘경제’ 영역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영역과 관련된 전문어의 난도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3)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인식

<표 42>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0	0
	조금 그렇다	4	28.6
	보통이다	3	21.4
	조금 아니다	4	28.6
	아니다	3	21.4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5	16.7
	조금 그렇다	5	16.7
	보통이다	7	23.2
	조금 아니다	6	20.0
	아니다	7	23.3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6	18.8
	조금 그렇다	15	46.9
	보통이다	3	9.4
	조금 아니다	4	12.5
	아니다	4	12.5
전체		32	100.0

‘유행어나 신조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중·노년에서 21명(65.7%)으로, 청·장년 10명(33.4%), 청소년 4명(28.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 결과 중·노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중·노년이 새로운 어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언어규칙, 즉 문법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중·노년 세대가 가장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의 비율은 이 부분에서 청·장년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습득 및 인식이 각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청소년이 스스로 유행어 및 신조에 대한 습득 및 능력이 다른 세대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세대가 유행어 및 신조어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위의 결과와 같은지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인식

<표 43> 외래어 및 외국어에 대한 인식 결과

※ '신문을 읽는다'에 응답한 빈도수를 대상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그렇다	1	7.1
	조금 그렇다	2	14.3
	보통이다	5	35.7
	조금 아니다	5	35.7
	아니다	1	7.1
전체		14	100.0
청·장년	그렇다	1	3.3
	조금 그렇다	6	20.0
	보통이다	10	33.3
	조금 아니다	7	23.3
	아니다	6	20.0
전체		30	100.0
중·노년	그렇다	4	12.5
	조금 그렇다	14	43.8
	보통이다	2	6.3
	조금 아니다	5	15.6
	아니다	7	21.9
전체		32	100.0

‘외래어나 외국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 기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조금 그렇다’라는 답변은 중·노년 18명(56.3%)으로, 청·장년 7명(23.3%), 청소년 3명(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유행어나 신조어’와 마찬가지로 중·노년에게 ‘외래어나 외국어’는 낯선 언어로 느껴지고 있다. 청소년과 청·장년은 ‘한자어’를 제외한 유행어, 신조어, 외래어, 외국어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자어보다 훨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고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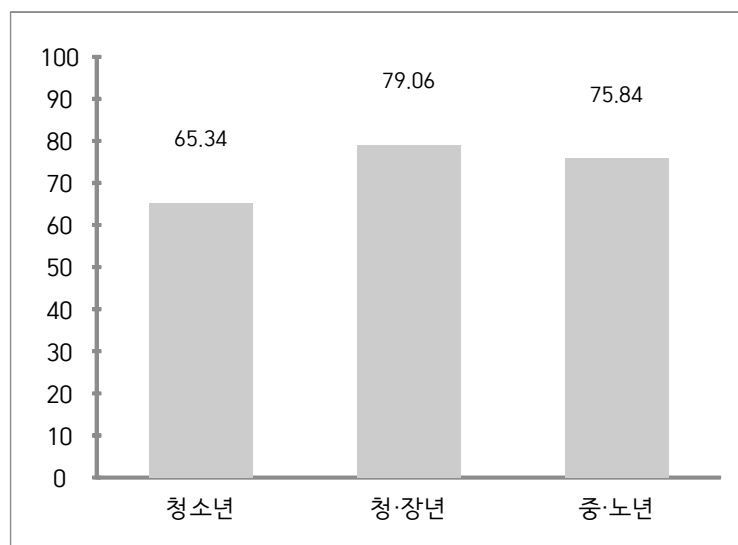
이 결과는 한자 병기에 대한 선호도 결과가 도출되었던 문항의 결과와도 관련되어 해석할 수 있다. 중·노년층은 거의 대부분(70.5%)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자 세대가 아닌, 소위 영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은 한자 병기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21.4%)는 설문 결과와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 어휘 능력 진단: 어휘 이해 능력

(1) 세대별 어휘 이해 능력

<표 44> 세대별 이해 어휘 능력

	총점 평균
청소년	65.34
청·장년	79.06
중·노년	75.84



이전까지의 설문 결과는 각 세대의 어휘이해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정도를 측정한 것이었으며, 지금부터의 설문 결과는 각 세대의 실제 어휘 능력을 측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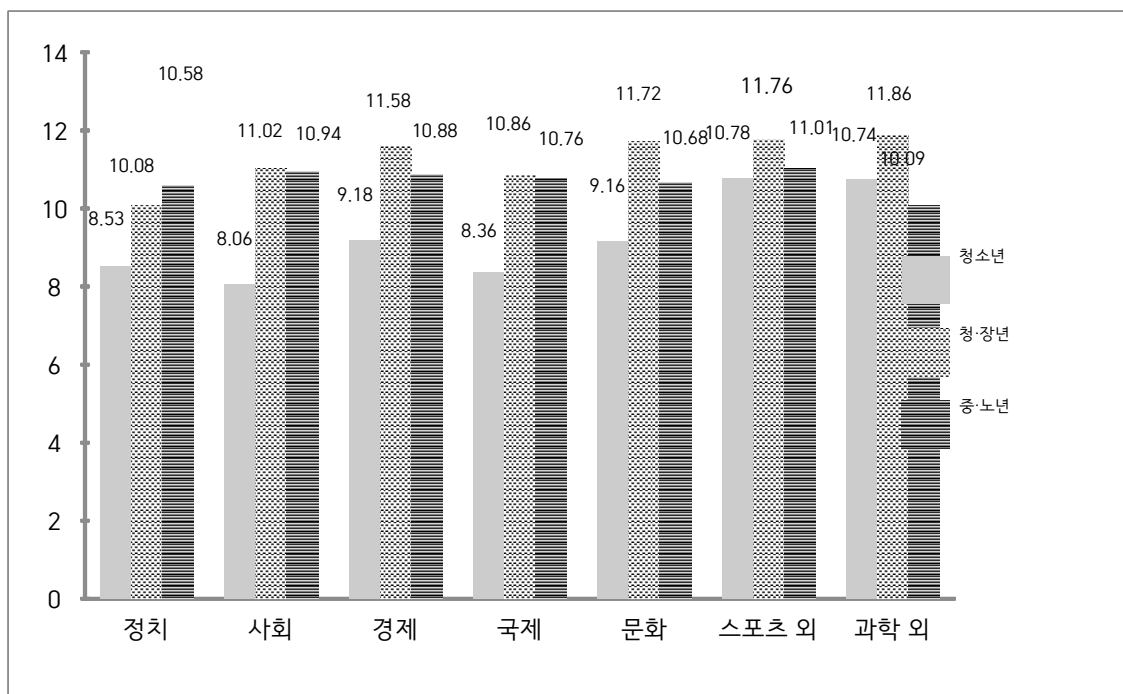
본 설문의 문항은 각 1점씩 총 84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만점은 84점이다. 신문의 한자어에 대한 세대별 어휘 이해 능력은 청·장년(79.6점), 중·노년(75.84점), 청소년(65.34점) 순으로 청소년의 어휘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예상대로 청소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인식도와 달리 청·장년의 한자 어휘 이해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학력이 균질하기 때문일 것이다. 중·노년은 학력의 격차가 크고, 그에 따라 실제적인 어휘 능력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다소 저조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2) 영역별 어휘 이해 능력

<표 45> 영역별 이해 어휘 능력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외	과학 외
청소년	8.52	8.06	9.18	8.36	9.16	10.78	10.74
청·장년	10.08	11.02	11.58	10.86	11.72	11.76	11.86
중·노년	10.58	10.94	10.88	10.76	10.68	11.01	10.09



본 설문문의 문항은 영역별로 12개의 문항씩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제는 1점으로 영역별 만점은 12점이다. 청소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10.78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사회(8.06점)이다. 청·장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과학·기술·건강 영역(11.86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정치(10.08점)이다. 중·노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11.01점)이고,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과학·기술·건강 영역(10.09점)이다.

청소년과 중·노년은 모두 스포츠·연예 영역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가장 높았고, 청·장년은 과학 영역에 대한 이해 능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공적 영역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영역에 비해 사적 영역인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영역에서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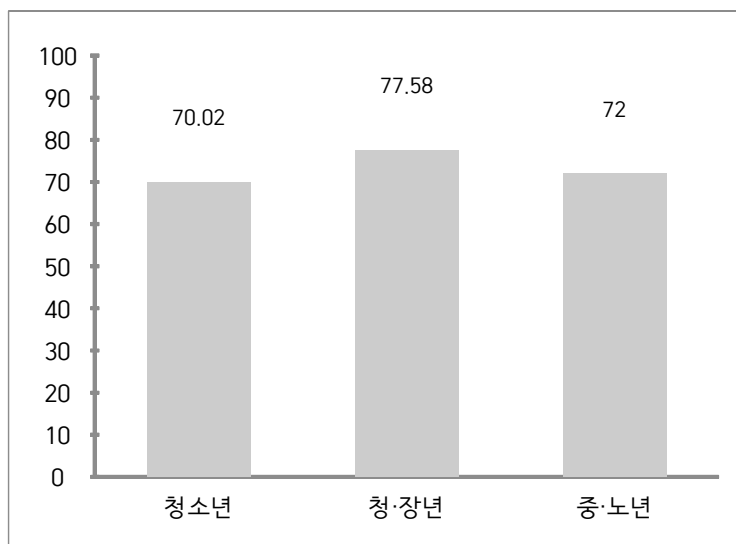
청소년은 사회에서, 청·장년은 정치에서 최하점을 얻었는데, 중·노년은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건강 영역에서 최하점을 기록하였다. 과학·기술·건강 영역에서는 한자어보다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많아 중·노년층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바) 어휘 능력 진단: 어휘 표현 능력

(1) 세대별 어휘 표현 능력

<표 46> 세대별 어휘 표현 능력

	총점 평균 점수
청소년	70.02
청·장년	77.58
중·노년	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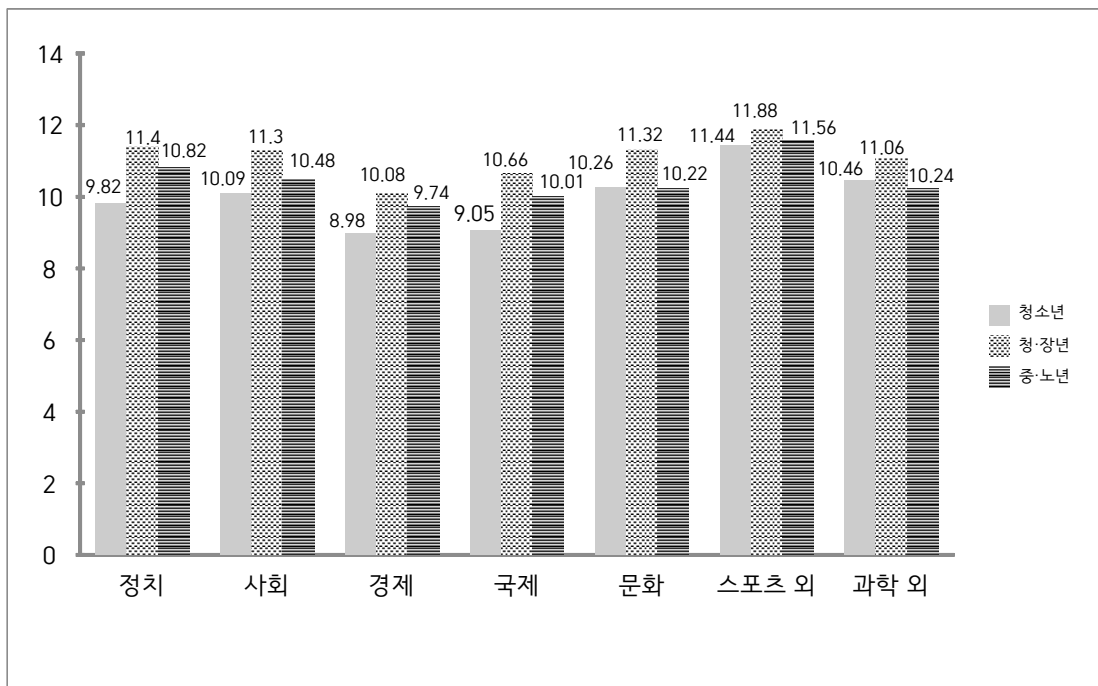
본 설문문의 문항은 각 1점씩 총 84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만점은 84점이다. 표현 어휘 능력은 청·장년의 평균 점수는 77.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7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청소년의 이해 능력은 65.34점이었는데 표현 능력은 70.02점으로 4.68점 상승한 반면, 청·장년의 이해 능력은 79.06점에서 표현 능력은 77.58점으로 1.48점 하락하였고, 중·노년의 이해 능력은 75.84점에서 표현 능력은 72점으로 3.84점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은 알고 있는 어휘의 뜻에 비해 의외로 정확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세대는 아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어휘사용능력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제대로 발휘시켜주기 위해 적절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영역별 어휘 표현 능력

<표 47> 영역별 어휘 표현 능력

	평균 점수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외	과학 외
청소년	9.82	10.09	8.98	9.05	10.26	11.44	10.46
청·장년	11.40	11.30	10.08	10.66	11.32	11.88	11.06
중·노년	10.82	10.48	9.74	10.01	10.22	11.56	10.24



본 설문문의 문항은 영역별로 12개의 문항씩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제는 1점으로 영역별 만점은 12점이다. 청소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11.44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경제(8.98점)이다. 청·장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11.88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경제(10.08점)이다. 중·노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11.56점)이고,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경제 영역(9.7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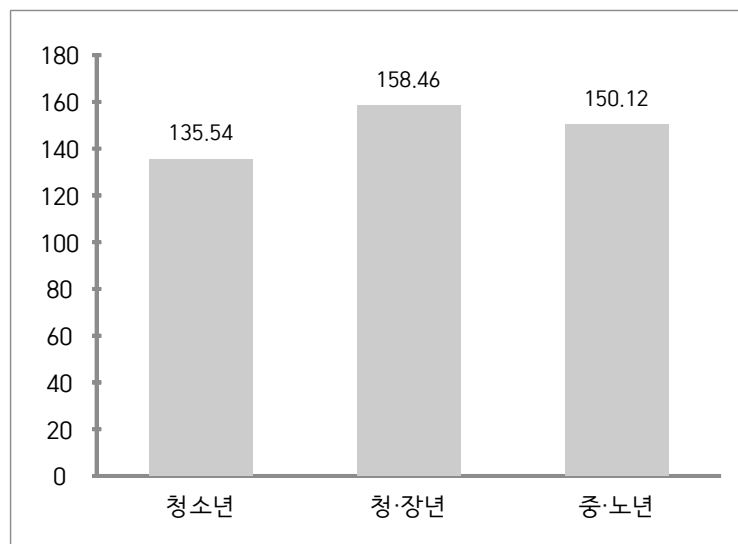
모든 세대에서 어휘 표현 능력이 가장 높은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경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스포츠·연예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어휘의 난도가 낮은 편이며, 경제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 어휘 이해·표현 능력

(1) 세대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표 48> 세대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총점 평균 점수
청소년	135.54
청·장년	158.46
중·노년	15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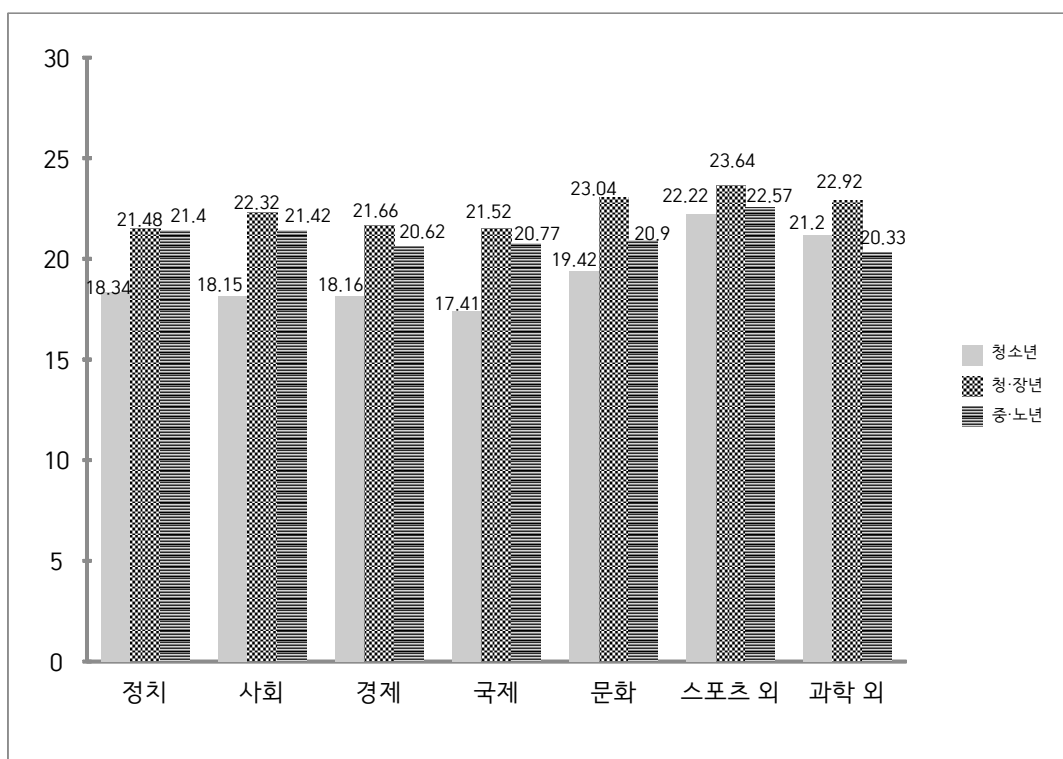
본 설문문의 문항은 각 1점씩 총 168개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만점은 168점이다. 어휘 이해·표현 능력에서 청·장년의 평균 점수는 158.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135.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모든 세대에 어휘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특히 청소년 세대에 대한 어휘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세대의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낮은 큰 이유 중 하나가 ‘한자어’라는 것이 앞선 설문 결과를 통해 나타났으므로, 다른 어휘보다는 한자 어휘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영역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표 49> 영역별 어휘 이해·표현 능력

	평균 점수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외	과학 외
청소년	18.34	18.15	18.16	17.41	19.42	22.22	21.20
청·장년	21.48	22.32	21.66	21.52	23.04	23.64	22.92
중·노년	21.40	21.42	20.62	20.77	20.90	22.57	20.33



본 설문문의 문항은 영역별로 24개의 문항씩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제는 1점으로 영역별 만점은 24점이다. 청소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22.22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국제(17.86점)이다. 청·장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23.64점)이며,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국제(21.52점)이다. 중·노년이 최고점을 획득한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22.66점)이고, 최하점을 획득한 영역은 경제 영역(20.06점)이다.

모든 세대에서 어휘 표현 능력이 가장 높은 영역은 스포츠·연예 영역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청소년과 청·장년은 국제 영역, 중·노년은 문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어휘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언어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어휘 능력의 신장이 단순히 언어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적 측면까지 성장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적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어휘 능력의 신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노년 세대에서 문화 영역에 대한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낮다는 것은 그 어휘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다른 세대에 비해 문화적인 혜택이 덜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나. 표적집단면담

1) 시행 목적

표적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은 어휘 교육 및 NIE 교육 현장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어휘 목록 추출 및 설문조사 등에 사용한 정량적(quantitative)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에 대한 이유를 정성적(qualitative)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담은 연구자와 대상자의 심층적 대화를 통해 주요 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타당한 질적 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며,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수량화가 어려운 가치·태도·인식 등을 심층적이며 집약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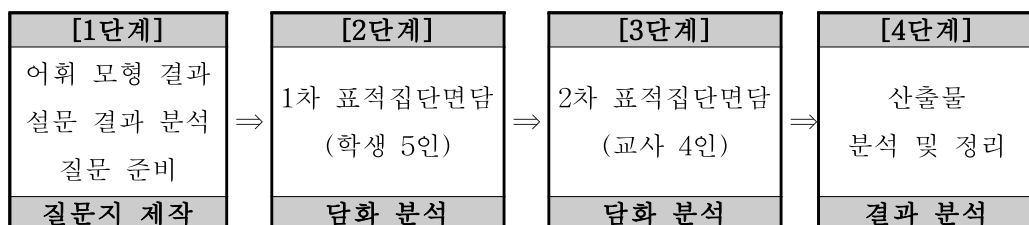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담의 주요 결과를 통해 이미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현상 분석을 실시하여 세대별 문식력 실태 및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상세화하고 면담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추출한 어휘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도출된 어휘 목록의 신뢰도 및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시행 설계 및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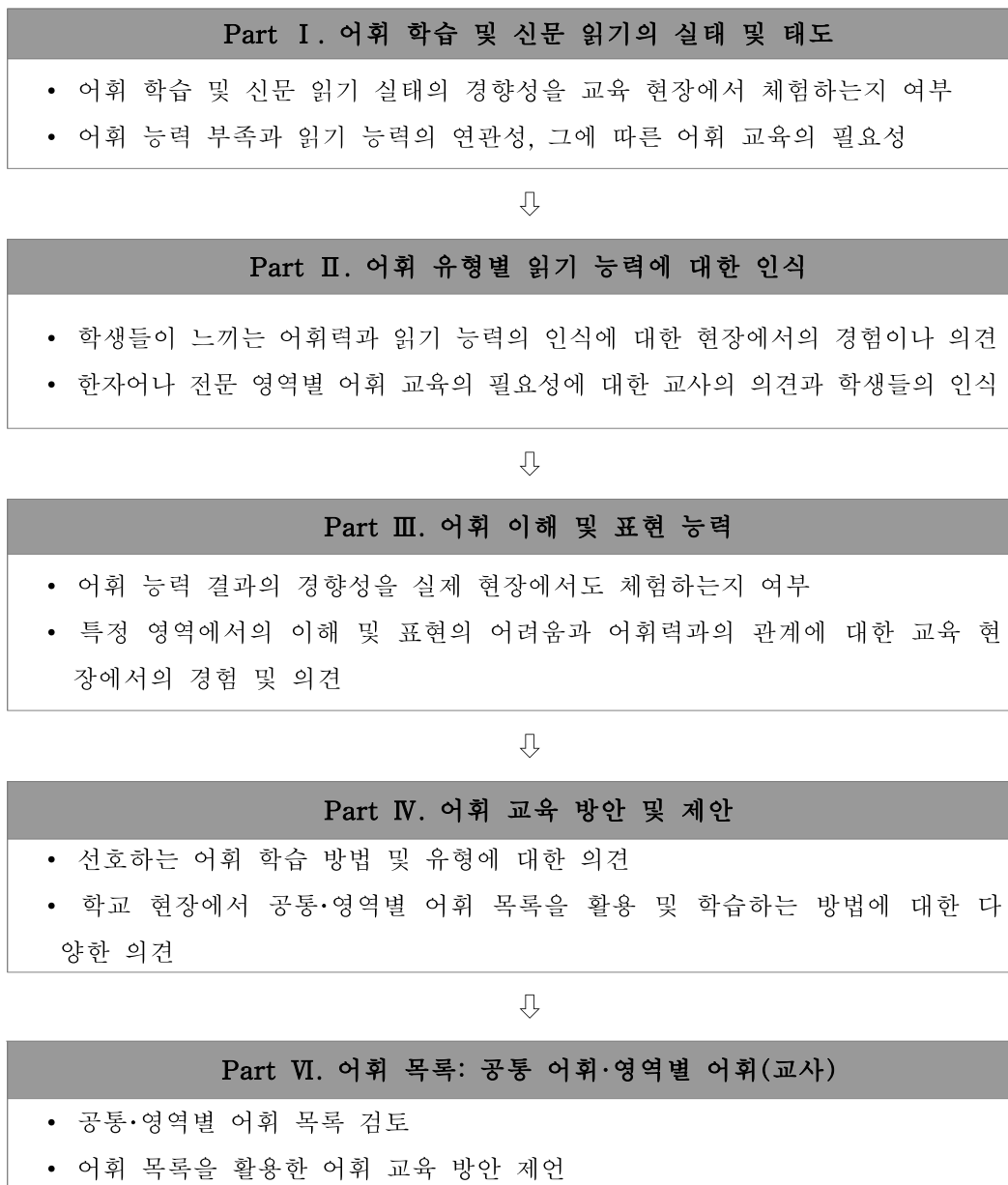
가) 시행 설계

조사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면담 전 어휘 모형 결과 및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화된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학습자인 학생과 교육 현장 교사인 교사를 섭외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담화 자료를 전사한 후, 구조적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화하였다.

<표 50> 표적집단면담의 시행 설계



표적집단면담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의 양적 경향성이 질적으로도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의 설문 구조의 틀에 따라 질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단,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 보기 힘들었던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구안 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추출한 어휘 목록에 대한 검토는 교사 집단에게 한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림 6] 질문 내용 구성의 실제

나) 참여자 선정

표적집단면담에 참여한 구성원은 총 9인으로, 서울 W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5인(남학생 2인, 여학생 3인)과 교사 4인이다. 교사 4인의 경우, 모두 국어과 담당 교사로서 NIE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집단별 참여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1> 학생 참여자 목록 및 정보

참여자	이름	성별	학년 반	국어과 선호도	전공 계열
학생-1	지○○	남	2학년 5반	상	문과
학생-2	류○○	남	2학년 5반	중	문과
학생-3	강 ○	여	2학년 7반	하	문과
학생-4	임○○	여	2학년 7반	중	문과
학생-5	서○○	여	2학년 7반	상	문과

<표 52> 교사 참여자 목록 및 정보

참여자	이름	성별	교수 과목	교수 경력
교사-1	강○○	남	국어	약 15년
교사-2	정○○	남	국어	약 15년
교사-3	신○○○	여	국어	약 5년
교사-4	한○○	여	국어	약 3년

다) 면담 진행 및 산출물

면담은 2014년 10월 31일 학생 면담과 2014년 11월 12일 교사 면담으로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두세 시간에 걸쳐 어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의 진행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은 미리 준비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별도의 의미 있는 어휘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방안,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이 답변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화도 심도 있게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 결과 산출물은 학생 및 교사의 면담 녹음 파일 및 요약 전사본, 상세 전사 자료 등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면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53> 표적집단면담 세부 진행 내용

구분		표적집단면담	
		학생	교사
①	실시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13:00-15:00	2014년 11월 12일(수) 17:00-20:00
②	실시 장소	서울W고등학교	서울 강북구 번동
③	실시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인 (남학생 2인, 여학생 3인)	교사 4인
④	실시 내용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표적집단면담	

<표 54> 표적집단면담 결과 산출물

산출물		내용
①	녹음 자료	교사 및 학습자 담화 녹음 파일 2건
②	전사본	면담 실시 중 요약 전사본 2부 녹음 자료 전사본 2부

3) 면담 결과의 분석 및 정리¹⁹⁾

가) 어휘 학습 및 신문 읽기의 실태 및 태도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에 답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신문을 읽지 않았으며, 신문 기사의 내용과 어휘 이해에 있어 청·장년이나 중·노년보다 청소년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 및 교사 집단의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면접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신문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있었으며 직접 종이신문을 찾아 읽는다거나 인터넷신문을 보기 위해 신문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페이스북(Facebook) 등의 에스엔에스(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큰 사건 중심의 기사만을 골라서 읽는다고 답하였다.

(학생-2)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신문을 즐겨보지 않는 편이고, 사건이 일어나면 몇몇 아이들이 읽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애들이 말해주면 거기에 대한 기사만 잠깐잠깐 읽고, 평소에 신문 접하게 되는 계기가 SNS의 링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링크로 많이 들어가서 많이 읽어요.

교사 집단 면접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문 기사를 읽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읽더라도 인터넷 뉴스 기사에 치중되어 있거나, 특정 교과목의 수업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기사를 접할 것이라 답하였다.

(교사-4)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읽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종이신문을 찬찬히 읽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사-2) 학생들은 신문을 거의 읽지를 않습니다. 특히 종이신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올라온 신문기사 또한 연예인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별로 읽지를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의 읽기 능력 및 어휘 수준은 좋지 못합니다.

(교사-1)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정 교과목에서 수업의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기적으로 아침 신문 읽기를 하거나, 도서관에 신문을 정기적으로

19) 교사 및 학생 발화를 인용한 부분에 표시한 밑줄은 연구자에 의한 것임.

비치하는 학교들은 많지 않습니다.

즉, 종이신문이든 인터넷신문이든 적극적으로 그 기사를 찾아 읽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교사 집단의 위의 (교사-4)의 답변처럼 연예, 스포츠 영역 등의 가벼운 기사를 주로 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4) 케이팝이나 아이돌 같은 게 십대에 인기가 가장 많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기사를 더 많이 찾아보는 거 같아요.

(교사-3) 그리고 딱히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으니까. 정치라든지 국제, 경제, 사회, 문화는 거기에 대한 한 분야에서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베이직으로 알아야 되는, 근데 그게 굳이 없더라도.. 애네 같은 거는 사실만을 보도하니까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고,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정치 분야)에 대한 용어라는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죠. 과학은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잖아요. 우주라든지..... 또 다른 지구가 발견됐다. 이런 것은 재미있는데 하고 보는데, 기술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필요해서 어려워요.

이와 같이 연예나 스포츠 같은 사적 영역의 기사들은 학생들의 관심도와 관련이 깊으며, 또 특별한 배경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정치나 국제 같은 관심과 흥미가 없고 배경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의 기사와 전문어가 많은 기술 관련 분야는 전문어, 즉 어휘의 부족으로 더 읽기 어렵다고 확인해주었다.

신문 기사 읽기에서의 이해의 어려움은 문식성 전반의 어려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어휘의 부족이 문식 능력 부족의 원인 중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 집단 면담에서는 비단 신문 읽기나 독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휘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으며, 수업 내용을 위한 ‘용어’ 자체에 이해가 어려워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언급되었으며, 수업 시간의 읽기 활동 도중 어휘의 의미에 관한 질문이 빈번하지만 사전이나 검색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어휘 부족을 더 심화시키고, 더 불어 읽기 능력, 독서에 대한 태도의 수준까지도 결정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어려운 어휘에 대한 적극적 학습의 태도의 부재는 학생 집단의 면담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에 동의하는 답변이 나왔으며 어휘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읽기 등의 어려움의 관련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특히 한자어의 경우 한문 시수 자체도 적으며, 적극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시험이나 입시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에 없음을 공감하고 있었다.

(교사-4) 무슨 개념 설명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그때 쓴 단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교사-3) 국어사전을 배치해 놓고 독서시간이나 그럴 때는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시키고 개별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모르는 단어를 질문할 때 이렇게 찾는 거야 하면서 알려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반응이 조금 있었어요.

(교사-1) 제가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어휘인데도 교과서에 나온 어휘는 이해하고, 신문이나 저널의 어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교과서는 문맥이 쉽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생활 속에 쓰이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어휘가 쓰이기 때문에 그게 그 뜻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속에서도 사전 찾기를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찾지 않잖아요. 사전을 찾아서 어깨번호를 본다가나 하지 않죠.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위키 백과나 백과사전도 거의 안 찾거든요.

(학생-1) 필요해서 찾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학생-5) 어휘는 아버지나 어머니께 물어보기도 하고, 사전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고,

(학생-2) 집에 부모님이 잘 안 계셔서 핸드폰 사전을...네이버나 다음.

그러나 실제의 어휘 학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어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집단 역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자어 어휘가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은 필요하나 한자어나 한자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어휘 능력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시험’ 혹은 ‘교과서 글 읽기’ 등을 실시할 때 많이 하게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생-2)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자 어휘가 나오면 별표 표시가 있고 뜻을 해석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신문은 그게 없으니까 읽다가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는 때려치워, 때려치워..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조사나 단어 몇 백 개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서 쓰는 단어 중에서 어려운 한자 어휘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시험이나 글을 읽을 때, 어려우니까 학습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학생-5)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알 수가 없다.. 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는 이게 마치 어른들만의 암호같이 느껴져요.

(학생-1) 학습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한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노력과 과정이 힘이 드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안하는 것 같다.

나) 어휘 유형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

어휘와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어휘의 유형별 읽기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한 바 있었다. 그 결과 청소년과 청·장년은 한자나 한자어, 중·노년의 경우 유행어나 신조어로 인해 신문 기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전세대가 한자어의 학습이 어휘 능력 신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의 답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자나 한자어, 전문어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크다고 했으며 반대로 신조어나 유행어, 외래어의 경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2) 기사를 읽으면서 신조어가 쓰이는 것은 이미 대중화가 돼서 쓰이는 거고, 신조어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어른들이 읽는 기사에 그런 용어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른들도,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어른들도 아는 건데, 청소년이 거기에 대해 민감한데, 모를 리가 없죠.

(학생-2) 관심 있는 분야의 경우는 기사를 많이 보니까 전문어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데, 자신이 모르는, 관심 없는 분야는 그런 분야의 전문어는 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교사들 역시 한자 능력이 어휘 능력을 좌우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현재 학생들의 유형별 어휘 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조어나 유행어에는 익숙하지만 전문어 등의 학술적인 어휘나 한자어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자어를 몰라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한자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특히 압축적인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 추상적인 의미의 한자어, 동음이의어 등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한자 어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세대 간 한자 어휘 지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실 수업에서 한자 사용에 있어 젊은 교사는 영어 병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 하

며 이러한 사례들이 어휘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교사-4) 신조어나 유행어는 빠르게 습득하고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학술적인 어휘나 한자어는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 순우리말인지에 대한 감이 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교양 있는 어휘에 노출되지 못하고, 신조어, 유행어, 게임 용어, TV-인터넷 매체 언어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1) 아이들이 인터넷을 하지, 책을 읽거나 신문 같은 건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말랑말랑한 신조어나 은어 비속어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시의성 있는 단어는 이해하지만 평소에 책이나 신문을 안보니까, 들은 바가 없으니 자기가 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교사-2) 특히 한자어나 동음이의어 경우 어휘력과 문맥 파악 능력이 떨어지면서 오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독의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의 의미가 문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의 정확한 뜻을 확인하려고 사전이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 실태

어휘 교육의 방안 및 활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휘와 관련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 각각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에게 어휘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학생 집단에는 앞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며, 세대에 따른 이해 및 표현 능력에서 중·노년과 청·장년 세대에 비해 청소년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신문 기사의 이해도와 관련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특히 한자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학생-5) 중노년은 한자에 강해요. 근데 우리는 한자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신문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한자를 거의 안하는 듯.

(학생-2) 신문 자체가 장년, 중노년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아는 어휘보다 그 기성세대의 어휘에 맞춰서 청소년에게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신문의 영역별 이해 어휘 능력에서는 국제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표현 어휘 중에서는 스포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결과에는 모두 매우 공감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역별로 어휘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교사들의 답변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서의 이해 및 표현의 어려움과 어휘력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의견 관련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특정 영역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한자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이해 능력에 비해 학생들의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지적하면서, 쓰기 활동 시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부러 한자어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4)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은 압축적인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철학 용어, 과학 수학에서의 용어, 추상적인 언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영어보다도 한자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사-3) 아이들 어휘 평가 결과에서 경제, 국제가 낮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는 약간 의외인데, 외교 관련 용어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 관련 용어는 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사는 놀랍도록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 관련 서적은 벌써부터 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경제 관련 용어는 많이 모를 것이라고 추측은 했어요.

교사들은 경제나 정치, 과학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 어휘뿐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단어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답변도 있었다. 학생들의 개념어 능력이 한자 어휘 교육 비중이 높았던 예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학교 급, 학교 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독서의 영향력과 어휘력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며, 신문 읽기도 어휘력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교사-1) **독서만은 아니고 신문 읽기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어떤 전문

적인 영역의 개념어들이 많고 특정한 의미를 담은 개념어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신문 읽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실제 경험을 한 게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이 신문반에 들어왔어요. 수업을 토요일마다 매주 하는데, 애가 만든 파일을 보니까 1년 후에 어휘력이 굉장

히 좋아졌어요. 신문의 영향력이 꽤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교사-3) 제가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어휘력이 좋다고 느꼈던 것이 성적이 좋다고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좋아요. 가끔 수행 평가 등에서 '애가 이런 단어를 알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휘력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도 독서를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수업시간에는 용감한 아이들이 어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독서를 할 때 그 질문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단어 뜻을 많이 물어봐요. 실제 수업시간에는 용감한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고 치면, 독서를 할 때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사전을 찾지 않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어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애들이 그런 걸 통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독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라) 어휘 교육 방안 및 제안

어휘 학습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학생들의 경우 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습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었으며,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휘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으로는 접근성 높은 매체의 활용과 부교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읽기 쉽고 접근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어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했다. 특징적으로, 어휘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부교재를 만들어 어휘 수업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교사-4) 접근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관심사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읽기 쉽고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만화책 같은 걸로 이용해서 캐릭터의 대사에서 애들이 모를 법한 단어를 섞어서 뜻을 책 밑에 쪽에 써 넣으면 애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교사-3) 사회과 부도처럼 부록같이 덧붙여서 부교재식으로 어휘 시간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떨지.

어휘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의견으로는 신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영역들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과 연관시켜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경제, 정치, 국제 등의 섹션 구분이 아닌 학교의 교과목 중심으로 어휘들의 영역을 재배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또한 영어 단어의 경우 상황별 예시, 파생어, 어원에 대한 설명 등이 자세히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어 어휘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은 평소 접하는 익숙한 교과 과목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흥미를 끄는 내용으로 어휘 학습 모형이 구성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휘 교육은 대부분 행사 차원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답변에 따르면 특정 어휘 교육 활동보다는 독서와 관련된 행사가 많았고, 비속어 등의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바른 말 사용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행사의 경우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어휘 교육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 자체가 매우 쉽지 않고 이를 위한 환경적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교사-3) 독서 관련된 행사는 굉장히 많고, 부서도 따로 있고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국어 어휘 자체만을 위한 행사는 없어요. 영어 단어 시험은 있거든요. 그런데 국어 어휘 자체만을 놓고 어떤 퀴즈를 내진 않아요. 언어 순화 운동 같은 경우도 어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사-1) 신문을 보면 새로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있죠. 행사만이 아니라 환경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달의 단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어휘를 노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어휘 교육에 대한 제언으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어휘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는 교육과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어휘 교육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이 실제 수업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평가에서 어휘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는 것 등이 직접적으로 어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어휘와 관련한 성취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도 평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대안을 확보한 이후 구체적인 어휘 교육의 모형을 만들어야

그것이 실효성을 지니며, 현장 적합성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3) 저는 평가할 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는 어휘관련 문제를 냈었거든요.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성취기준의 핵심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문제에 어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는 NIE 교육을 어휘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NIE 교육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생활에서의 어휘가 아닌 학습상황, 즉 토론이나 토의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학습 어휘 수준을 확인하여 보다 정밀하게 청소년의 어휘 능력을 진단하여 어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교사-1) 프랑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해요. 3월에 신청한 학교들이 다 하는데 90% 이상이 신청을 해요. 국립 미디어 센터라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신문과 연결하는 것, 단어게임, 카드까지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 정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루를 다 즐겁게 노는 거예요. UCC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신문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휘력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을 통해서 매체를 이해하고, 이런 어휘들이 저절로 녹아들어 가는 거죠. 프랑스 NIE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NIE를 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신문을 읽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어가 익혀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당연히 있어요. 한 시간씩. 정규 수업시간에.

(교사-4) 저는 꿈 신문 만들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아이들도 의외로 재미있어하고, 관심도 높고요. 선생님들도 의외로 관심 있어 하세요. 여건이 안돼서 못하셨을 뿐이지 다 관심은 있으세요.

이와 함께 교사의 어휘력과 한자어 능력도 어휘 교육에서 주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아이들이 한자어보다는 외래어에 더 익숙함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한자어 뜻을 몰라서 오히려 영어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교사-4) 한자 어휘가 우리나라 어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한자 능력이 어휘 능력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자어를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읽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쓰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조금 있죠.

(교사-1) 교사의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의 어휘 수준 자체가 저급하거나 한 정적이라면 아이들이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교사들의 한자어 실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사-4) 저는 수업하다보면 아이들이 한자어의 뜻을 몰라서 오히려 영어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편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가르친 '경이롭다'라는 단어를 모를 아이들에게 놀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surprise'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학생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미세한 뜻의 차이를 설명할 때에도 영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 어휘 목록 점검 및 평정

교사 표적집단면담에서는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어휘 목록을 점검받고 그것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어휘 목록에 대한 점검에서는 어휘 목록이 지닌 장점으로 장르와 난이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적 활용도가 매우 높고, 목록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또한 개발한 어휘 목록이 신문에서 추출된 시의성 높은 어휘라는 점에서 신선하며 학습 상황에서도 그 사실이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반면에 이러한 시의성을 지닌 목록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이와 함께 순우리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어휘까지 한자어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교육적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사-1) 먼저 장점은 그래도 시의성이 있거나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빈도를 차지하는 어휘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의 어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성인 어휘들을 다량 배치해서 애들이 이 어휘를 이해하면 신문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단점은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인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한문으로 쓴 말들이 있어요. 앞에 부정어를 붙여서 쓴 말들이 있고, 우리말로도 충분히 되는데 한자를

써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용어들이 좀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특정 영역의 용어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었다는 생각. 세 번째는 이게 청소년 대상의 필수 어휘인데, 맥주라든가 마약같은 용어들을 빼는 건 어떨까. 필수 어휘라면 긍정적이고 교육적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어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3) 이것이 신문에 나오는 어휘라는 것이 좋은 키포인트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신문 1면에 배치되어 있는 시의성이 높은 어휘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것 자체로 동기 부여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어휘들이 신문 1면에 등장했던 어휘들이야. 이럴 때 모르는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너희들이 신문 1면도 읽지 못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휘 목록에서 난이도의 조정이 필요한 어휘들과 필수 어휘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어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휘들에 있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정적인 어휘나 학습에 적절하지 못한 맥주나 마약과 같은 어휘들을 어휘 목록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들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다. 어휘 평정에 대한 논의 결과로는 4인의 교사 중 2인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적인 어휘들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그 검토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사-4) 특히 부정적 어휘 같은 경우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꾸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문도 다 부정적일 것 같아서.

(교사-3) 저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언어 마약, 술과 같은 단어는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이 듣는 어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마지막으로 어휘 목록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수준별, 장르별 개념어 사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자 어휘 카드를 개발하면 교육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문의 이미지를 활용한 어휘 교육, 게임의 요소를 접목한 한자 어휘 교육, 모바일, UCC 영상 제작 등 매체를 활용한 어휘 교육과 같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교사-1) 장르 같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사전처럼 만들어서, 상중하로 만들어서 이런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 리스트야. 해서 차라리 아까 분야별 있잖아요. 정치 리스트 경제 리스트 이렇게 그런 것

들을 해주고, 신문을 보기 위한 중요한 어휘 사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교사-4) 논술 수업할 때 기초가 너무 낮은 아이들은 어휘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떠올려서 했던 것은 초성 가지고 말 만들기 게임을 시켰는데, 너무 급조된 거지만 이런 어휘 목록이 있다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여기 있는 단어까지 문장을 만든다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시선추적장치 실험

1) 실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포함된 신문 읽기 양상을 파악하여,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휘 교육과 NIE 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어휘의 난도는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읽기의 쉽고 어려움을 측정하는 이독성 연구에 있어서 어휘의 난도는 늘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혀 왔다. 그 중 특히 한자어는 다양한 개념어로 활용되어 읽기에 다른 어휘 요인보다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심재홍(1991)에서는 텍스트의 읽기 어려움 정도인 이독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한자어의 비율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개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의 난도 판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서, 추후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목록’을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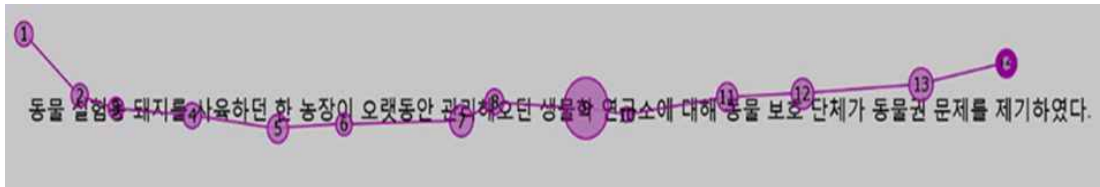
◆ 연구문제

: 한자어의 난도에 따라 문장 읽기에 대한 눈동자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가?

2) 선행 연구

한자어가 포함된 문장의 읽기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독자의 눈동자 움직임 측정하였다. 시선추적장치는 눈동자의 움직임 및 동공의 크기 등을 측정함으로써 읽기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보이는 눈동자 움직임은 그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많은 인지심리학자와 읽기교육 연구자들은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여 독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과정, 즉 읽기 과정의 특성을 밝히려고 노력해 왔다(Rayner, 1997). 글을 읽을 때 처음 어디를 보는지, 얼마나 자주 보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는지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눈동자 움직임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글을 읽을 때 눈동자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뿔뿔을 뛰어넘듯 단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Paulson & Freeman, 2003). 어떤 단어에 눈동자가 멈추어 있기도 하고 몇 단어 또는 몇 행을 건너뛰며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하며 이미 읽었던 단

어로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 글을 읽는 눈동자 움직임은 ‘도약(saccade)’과 ‘고정(fixation)’이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읽기 과정에서 시선이 한 지점에 머무는 것을 고정이라고 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 나타나는 시선의 움직임을 도약이라고 한다.



[그림 7] 시선추적장치 실험 결과의 예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석의 대상을 설정하고, 분석 대상에 시선이 위치하는지, 얼마나 자주 위치하는지 등을 살핍으로써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이때 연구자가 특별히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부분을 ‘관심영역’(AoI, Area of Interest)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은 어디를 쳐다보는가? 혹은 특정 부분에서 참여자들의 눈동자 움직임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관심영역(AoI)로 설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값은 다음과 같다.

<표 55> AoI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값

AoI 측정값 유형		측정 이유
도약 (saccade)	도약의 수 (number of saccades)	도약의 수가 많을수록 더욱 탐색적이다(Goldberg & Kotval, 1999).
고정 (fixation)	고정 횟수 (fixations per area of interest /fixation count)	특정 부분에 고정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주목도가 높거나 혹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Poole et al., 2004).
	고정 지속 (fixation duration)	고정 지속되는 시간이 길수록 정보를 인식하거나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Just & Carpenter, 1976).
주시 (dwell time)	주시 시간 (dwell time)	관심 영역(AOI) 내에 ‘고정-도약-고정’이 일어나는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총 주시 시간 (diversion duration)	관심 영역(AOI) 내에 ‘시선 진입-고정-도약-고정-시선 이탈’의 과정이 일어나는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재방문 (revisit)	재방문 횟수 (revisit count)	관심 영역(AOI)에서 시선이 이탈되었다가 다시 관심 영역에 시선이 진입한 횟수를 의미함. 반복해서 AOI에 주목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눈동자를 고정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고정 횟수도 줄어든다(McConkie et al, 1991). 학년이 높아질수록 읽기 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점 고정 시간과 고정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눈동자 움직임의 특징과 부합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난도가 올라갈수록, 고정 시간이 증가하고, 도약 길이는 감소하며, 회귀 횟수가 증가한다(Rayner, 1997).

3) 실험 설계 및 진행

가)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실험 도구 개발

한자어의 난도에 따라 문장 읽기에 대한 눈동자 움직임 차이를 확인함에 있어서 독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독자의 연령, 성별, 학력 등이 실제 읽기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실험은 소수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른 변인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정 연령의 실험 참가자만을 모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되어, 거시적으로 청소년 10명, 청장년 10명, 중노년 10명으로 총 10대~60대에 이르는 참가자 30명을 모집하였다.

눈동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기로는 SMI iView XTM RED5-500Hz를 사용하였다. 이 기기는 모니터 화면으로 제시되는 자극물을 바라볼 때의 눈동자 움직임을 측정하며, 50~500Hz까지 데이터를 분해하여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눈동자 움직임 자료는 BeGaze 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참여자에게 제시되는 한자어와 문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마련하였다. 신문 어휘를 계량하여 마련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에서 한자어의 빈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2음절 한자어를 선정한 다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험 문장을 제작하였다. 이때 한자어의 난도는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를 참고하되, 공동연구원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확정하였다. 각 난도별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되도록 신문에 출현 빈도가 높은 것 중에서 난도가 낮은 것을 선정하고, 신문에서 출현 빈도가 낮은 것 중에서 난도가 높은 것을 선정하였다.

<표 56> 시선추적장치 실험용 어휘 선정의 원리

어휘 선정 단계	내용
난도	난도 상
	난도 중
	난도 하
↓	
빈도	고빈도 - 난도 하
	중빈도 - 난도 중
	저빈도 - 난도 상
↓	
최종 어휘	고/중/저빈도 어휘 각 12개씩 총 36개 선정

다음으로 실험 문장은 한자어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리에 고르게 배치하고, 실험 문장이 실험 모니터에 한 줄로 제시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도록 전체 문장 길이를 일정하게 통일하였다. 난도 상, 중, 하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각각 12개씩 선정하였으며, 이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리에 네 개씩 배치하여 총 36개의 실험 문장을 제작하였다.

<표 57> 실험 문장

난도	위치	어휘	문장
상	주어	망자(亡者)	망자 는 아무 말이 없기에 사건 해결이 어려워졌다.
		총수(總帥)	모 기업의 총수 가 이번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다.
		실세(實勢)	북한의 실세 들이 관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사초(史草)	조선시대 사초 는 임금이 볼 수 없는 비밀 문서였다.
	목적어	승하(昇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임금의 승하 를 진심으로 슬퍼했다.
		족적(足跡)	그는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로 미술계에 큰 족적 을 남겼다.
		화두(話頭)	그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화두 를 던지곤 했다.
		소회(所懷)	이 자리는 그동안의 소회 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서술어	박탈(剝奪)	그는 금전적인 이유로 건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 당했다.
		육박(肉薄)	이 영화를 본 사람의 수가 무려 1000만에 육박 하고 있다.
		비호(庇護)	알 수 없는 세력이 이 사건의 용의자를 비호 하고 있다.
		호도(糊塗)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 하고 있다.
중	주어	법안(法案)	그 법안 은 오랜 시간의 논의를 거쳐 마침내 통과되었다.
		야권(野圈)	야권 은 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혁명(革命)	산업 혁명 이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요원(要員)	요원 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냈다.
	목적어	학벌(學閥)	모 회사에서 학벌 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의혹(疑惑)	모 후보자는 선거 기부금 출처에 대한 의혹 을 받고 있다.
		조치(措置)	정부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예방 조치 를 취했다.
		합의(合意)	학생 대표는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합의 를 이끌어 냈다.
	서술어	장려(獎勵)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금 모으기를 장려 하였다.
		선사(膳賜)	이번 가을 축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 하였다.
		전망(展望)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오를 것으로 전망 된다.
		점화(點火)	인천 아시안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점화 되었다.
하	주어	시민(市民)	많은 시민 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한강으로 모였다.
		회사(會社)	많은 회사 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화(映畵)	이 영화 는 엄마와 딸 사이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학생(學生)	학생 들이 넓은 운동장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목적어	의견(意見)	그는 우울증의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을 내놓았다.
		자료(資料)	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들을 모으고 있다.
		피해(被害)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농사에 큰 피해 를 입었다.
		역사(歷史)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동안의 역사 를 자세히 담고 있다.
	서술어	필요(必要)	그 일은 워낙 어렵고 까다로워서 일손이 많이 필요 하다.
		설명(說明)	그녀는 나에게 노래하는 즐거움에 대해 길게 설명 했다.
		발표(發表)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발표 했다.
		포기(拋棄)	그 친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 했다.

나) 실험 절차

실험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은 참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얻어서 이루어졌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가 읽기 과정의 특성을 살피는 연구임을 밝혔으나, 한자어에 주목한다는 것은 알리지 않았으며, 실험 문장에도 한자를 노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참여자가 한자어에 의식적으로 주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눈동자 움직임의 정확히 감지하기 위해 초점 맞추기(calibration)를 시행한다. 시선추적장치의 원리는 참여자의 동공에 적외선을 투사하고 그 반사된 빛을 감지하여 눈동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참여자마다 동공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도록 기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 자료가 제시되는 모니터 화면 상, 하, 좌, 우에 총 9개의 점을 제시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실험이 진행이 되면 화면 가운데에 1개의 실험 문장이 1줄로 제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을 읽는 동안에만 문장에 시선이 정확히 놓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는데 시선이 문장 위에 놓여 있다면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문장 읽기 실험에서는 문장을 읽기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 주의해야 한다. 가로쓰기를 하는 한국어 문장의 특성상 문장을 읽을 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좌에서 우로 움직인다. 이때 실험 문장을 연속하여 동일한 위치에 제시할 경우, 시선이 우측에 머문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첫 시선이 발생하는 위치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 문장과 실험 문장 사이에 검은 점만 찍힌 빈 화면을 삽입하였다. 실험 문장이 시작되는 지점보다 5cm 정도 위에 놓인 검은 점을 1초 이상 바라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바뀌어 문장이 제시되도록 하여서 시선이 문장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좌측 상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장을 다 읽었음에도 다음 문장이 제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여전히 시선이 문장 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 문장 우측 하단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화살표를 만들어서 문장을 다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문장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 문장은 총 36개가 제시되며, 18개의 실험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는 잠시 휴식을 갖고 다음 18개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실험 문장 각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고(높

을수록 문장이 어려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자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후 반응을 조사한 이유는 시선추적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눈동자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실제 독자의 정성적인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독자들이 느끼는 문장에 대한 난이도와 한자어 의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통해 눈동자 움직임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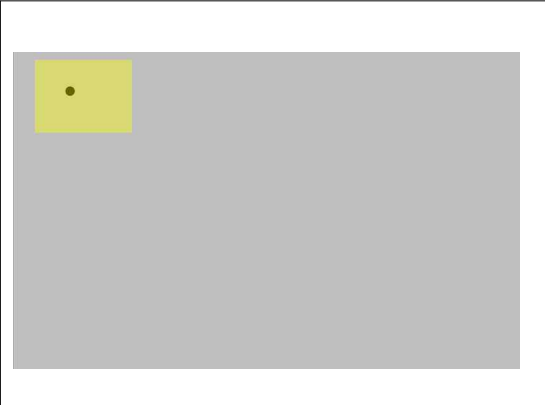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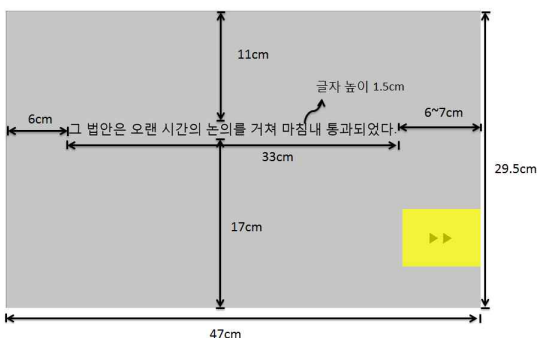
다음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안내문과 실험 문장 화면이다

<표 58> 실제 화면의 예

	<h3 style="text-align: center;">안내문</h3> <p>본 실험은 여러분의 문장 읽기 과정에서의 눈동자 움직임을 살펴보는 실험입니다.</p> <p>1. 조정 맞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조정을 잡기 위해 5개의 움직이는 점이 화면 위에 순차적으로 제시됩니다. 제시되는 점을 따라가며 응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정 맞추기는 조정이 잘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p>2. 본 실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 문장이 제시되기 전에 좌측 상단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검은 점을 응시하시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바뀌면서 문장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문장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 화면 우측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응시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총 36개의 문장에 대해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18개의 문장을 읽은 다음에는 10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시선추적장치 모습

실험 참여자 제시 안내문

	
---	--

4) 실험 결과의 분석 및 정리

가) 분석 데이터 개요

본 실험에 사용된 시선추적장치(SMI iView XTM RED5-500Hz)는 안구에 투사된 적외선을 감지하여 도약(saccade), 고정(fixation), 눈 깜빡임(blink)에 대한 정보를 처리한다. 이때 도약은 시선의 위치의 빠른 움직임을 의미하며, 고정은 도약과 도약의 경계가 되는 시선의 머무름을 의미한다. 눈 깜빡임은 시선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 일종의 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약, 고정, 눈 깜빡임 정보를 통한 분석은 정해진 척도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BeGaze 3.0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도약 값을 제1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과, 고정 값을 제1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 200Hz 이상일 때에 적합하고, 후자는 200Hz 미만일 때 좀 더 정확한 시선 추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본 실험은 500Hz로 진행되었으므로 도약 값을 제1기준으로 삼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실험 분석에 적용된 도약 감지 척도는 다음과 같다.

도약 감지 척도

- 최소 지속 시간: 22ms
- 최소 고정 지속 시간: 50ms

도약의 지속이 최소한 22ms 이상 되어야 도약으로 간주되며, 그 이하로 머무르는 동안은 도약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즉, 시선이 움직이는 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2ms씩은 머물러야 도약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눈동자가 한 지점에 오래 머무름을 의미하는 고정은 50ms 이상 시선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측정된다.

위와 같은 척도를 기준으로 시선의 도약과 고정이 제대로 감지되기 위해서는 눈동자 위치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 진행 전에 초점 맞추기(calibration)을 진행하였으나 30명의 시선 추적률과 초점의 편차를 살펴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0명의 실험 참가자 중 시선 추적률이 90% 이상인 데이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총 1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쓰인 17명 실험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59> 실험 분석 대상 정보

번호	성별	나이	직업	학력	편차 X [°]	편차 Y [°]	시선 추적률[%]
1	여	14	학생	중학생	0.4	0.3	93.6
2	여	14	학생	중학생	0.3	0.7	95
3	남	14	학생	중학생	0.2	0.4	93.6
4	여	17	학생	고등학생	0.4	0.9	98.2
5	남	17	학생	고등학생	0.5	0.3	93.5
6	남	25	학생	대학생	0.4	0.3	95.5
7	남	26	학생	대학생	0.2	0.3	94.4
8	여	31	학생	대졸	0.4	0.3	95.7
9	여	31	학생	대졸	0.4	0.2	95.5
10	여	34	학생	대졸	0.4	0.3	95.7
11	여	43	주부	대학원졸	0.3	0.4	94.1
12	여	54	주부	대졸	0.3	0.4	99.5
13	남	57	서비스	대졸	0.4	0.3	96
14	여	60	주부	초졸	0.3	0.5	98.6
15	남	65	사무직	대졸	0.8	0.4	96.5
16	여	65	주부	고졸	0.3	0.3	95.2
17	남	69	무직	대졸	0.3	0.7	96.2

나) 한자어 난도에 따른 읽기 양상

한자어 난도에 따른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아래와 같다. 먼저 총 주시 시간의 평균은 난도가 높은 한자어에서 768ms, 난도 중간인 한자어에서 681.6ms, 난도 낮은 한자어에서 613.3ms으로 나타났다. 즉, 한자어 난도가 높을수록 해당 한자어가 포함된 어절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선이 50ms 이상 지속되어 고정(fixation)이 생기는 경우를 살펴보면, 난도가 높은 한자어에 평균 2.8회, 난도가 중간인 한자어에 평균 2.4회, 난도가 낮은 한자어에 평균 2.1회 고정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고정이 지속되는 시간 역시 평균적으로 각각 564.8ms, 494.6ms, 438.1ms로 나타나 한자어의 난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고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참여자 중 해당 한자어에 시선 고정이 발생하는 참여자들의 비율은 한자 난도와는 상관없이 비슷하였는데, 이는 문장 읽기에서 한자어가 중요한 문장 성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난도와 상관없이 고정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한자어가 포함된 어절에 시선이 이동 후에 다시 들어가는 재방문(rivisit)의 횟수는 각각 0.8, 0.5, 0.4회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을 하는 독자들의 비율은 49.5%, 31.4%, 31.4%로 나타났다. 이는 난도가 높은 한자어일 경우에 참여자 중 절반의 사람들이 해당 단어를 재방문한다는 것이다. 특히 단어의 난도가

높을 때 재방문의 횟수가 많아지고,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난도가 높은 한자어에 눈동자가 머무는 총 주시 시간이 더 길었고, 고정(fixation)이 더 많이 생겼다. 이는 문장을 읽을 때 한자어의 난도가 높을 경우 그 한자어를 오래 살펴보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어를 반복해서 살펴보는 재방문(revisit) 횟수와 비율과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한자어의 난도가 높을 때 재방문 횟수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문장과 한자어에 대한 독자들의 사후 반응과도 일치하였다. 난도가 높은 한자어가 포함된 문장에 대해서 독자들이 느끼는 문장의 난이도는 평균 1.9점으로 중간 난도의 한자어 문장일 때(1.4점)나 난도가 낮은 한자어가 쓰인 문장을 읽을 때(1.1점)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한자어의 난도가 높은 경우에 독자가 느끼는 문장의 난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개별 한자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사후 질문을 하였을 때 난도가 높은 한자어를 이해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율은 74%로 중간 난이도의 한자어를 이해하는 사람의 비율(92%)이나 난이도가 낮은 한자어를 이해하는 사람의 비율(97%)보다도 크게 낮았다. 고난도 한자어에 대한 독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이나 눈동자의 반응이나 다른 한자어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0> 한자 난도에 따른 눈동자 움직임

난도	단어(AOI)	문장 난도 (5점)	한자어 이해도 (%)	총 주시 시간 [ms]		고정 횟수			고정 시간의 합 [ms]		고정 인원	
				평균	편차	합	평균	편차	합	평균	인원	비율
상	망자는	1.9	82	550.5	357.4	33	1.9	1.5	6560.9	385.9	14	82.4
	사초는	2.1	59	756.7	425.4	48	2.8	1.8	9832.6	578.4	17	100
	실세들이	1.7	82	821	320.1	53	3.1	1	9680.3	569.4	17	100
	총수가	1.8	76	615.9	561.9	38	2.2	1.7	7615.8	448	15	88.2
	소회를	2.6	53	1059.4	811	67	3.9	3.6	13112.9	771.3	17	100
	승하를	1.8	76	591.9	488.8	32	1.9	1.3	7596.3	446.8	15	88.2
	죽적을	1.7	88	697.2	419.8	40	2.4	1.5	9038.2	531.7	16	94.1
	화두를	1.8	65	617.8	399.6	39	2.3	1.3	7178.4	422.3	17	100
	박탈당했다.	1.5	88	1193	843.2	67	3.9	2.7	15768.4	927.6	17	100
	비호하고	2.4	65	814.2	304.4	52	3.1	1.6	10138.8	596.4	17	100
	육박하고	1.1	94	592.7	248.7	36	2.1	1	7301.9	429.5	16	94.1
	호도하고	2.3	53	905.4	501.6	62	3.6	2.4	11391.4	670.1	17	100
	평균	1.9	74	768.0	473.5	47.3	2.8	1.8	9601.3	564.8	16.3	95.6
중	법안은	1.5	94	754.8	405.4	45	2.6	1.5	9530.9	560.6	17	100
	야권은	1.8	76	577.5	414.5	34	2	1.3	7277.2	428.1	15	88.2
	요원들은	1.4	88	590.7	218.5	40	2.4	1	6412	377.2	17	100
	혁명이	1.3	94	788.9	498.5	58	3.4	1.9	9460.8	556.5	17	100
	의혹을	1.5	88	472.3	300.7	29	1.7	1.1	4940.2	290.6	16	94.1
	조치를	1.3	94	472.5	135.1	31	1.8	0.6	5542.2	326	17	100
	학벌을	1.1	94	488.7	447	28	1.6	1.6	6128.8	360.5	17	100
	합의를	1.4	100	433.2	255.4	27	1.6	1	5189.5	305.3	17	100
	선사하였다.	1.2	94	988.9	801.3	54	3.2	2.9	13081.7	769.5	17	100
	장려하였다.	1.6	82	919.5	469.7	55	3.2	2	11385.7	669.7	17	100
	전망된다.	1.2	100	877.9	609.3	49	2.9	1.5	11694.3	687.9	17	100
	접화되었다.	1.2	94	813.9	412.5	47	2.8	1.7	10259.4	603.5	17	100
	평균	1.4	92	681.6	414.0	41.4	2.4	1.5	8408.6	494.6	16.8	98.5
하	시민들이	1.1	100	633.8	190.6	45	2.6	0.9	7401.3	435.4	17	100
	영화는	1.2	94	591.6	487.3	30	1.8	0.9	7364.9	433.2	16	94.1
	학생들이	1.0	100	456.1	249.2	32	1.9	1	4930	290	16	94.1
	회사들이	1.1	100	1059	835.5	70	4.1	2.1	13702.4	806	17	100
	역사를	1.1	100	342.6	121.3	24	1.4	0.8	4065.2	239.1	16	94.1
	의견을	1.2	94	375.2	256.1	23	1.4	1	4631.5	272.4	16	94.1
	자료들을	1.3	88	662.7	329.5	39	2.3	1.2	8071.4	474.8	16	94.1
	피해를	1.1	94	412.7	246.6	26	1.5	0.8	4644.2	273.2	16	94.1
	발표했다.	1.1	100	745	574.9	36	2.1	1.3	8941.3	526	17	100
	설명했다.	1.1	94	718.8	478.8	39	2.3	1.4	9186.2	540.4	15	88.2
	포기했다.	1.2	94	683.8	660	32	1.9	1.7	8281.4	487.1	15	88.2
	필요하다.	1.1	100	678.3	476	40	2.4	1.6	8158.4	479.9	15	88.2
	평균	1.1	97	613.3	408.8	36.3	2.1	1.2	7448.2	438.1	16.0	94.1

5.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목록

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어휘 평정

1) 시행 목적

양적 계량을 통해 산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3장 참조)’은 실제 학습자들에게 교육하기에 난도와 가치면에서 부적절한 단어들 포함되어 있다. 이에 최종적으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한 전문가 평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양적 계량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 계량으로, 어휘 난도에 대한 수정과 교육적 가치에 대한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의 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어휘 목록이 소비되고 유통될 사회·문화적 맥락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각 어휘들이 신문 1면에 등장한 실제 빈도와 김광해 어휘 등급을 기준으로 구성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에는 ‘지금, 여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김광해 어휘 등급에서는 ‘동영상’이라는 어휘가 난도 ‘상’의 어휘로 분류되어 있으나 전자 매체가 상용화된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라는 점에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미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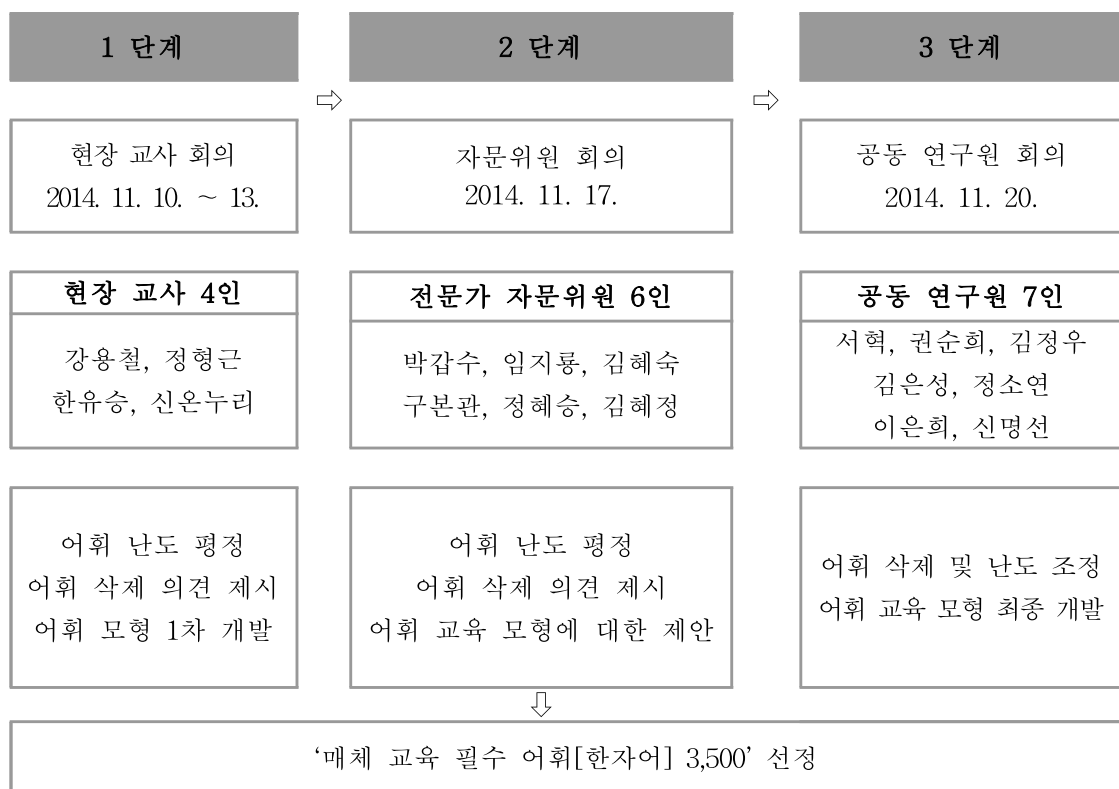
둘째, 해당 어휘 목록을 소비하고 유통시킬 어휘 교육의 주체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안되는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청·장년층과 중·노년층의 성인뿐만 아니라 10대의 청소년들 역시 교육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적 요구 및 당위성에 대한 검토과정이 요구된다. 신문 1면의 기사를 대상으로 추출한 전체 개념어 목록에는 ‘마약’, ‘맥주’, ‘살인’ 등의 부정적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교육의 국면에서 ‘마약’이나 ‘맥주’와 같은 어휘들이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요구되며, 이 과정을 통한 필수 어휘 목록에서의 삭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구성되는 어휘 목록이라는 점에서 교육 현장 교사들과 국어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질적인 평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각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본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과의 연계성을 잃지 않으면서 전문가 집단의 평정 결과를 종합, 분석, 추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을 위한 삭제 및 난이도 수정의 원리를 세울 필요가 있다.

위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최종 평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으로써 교육용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확정하였다.

2) 시행 절차 및 방법

한자 개념어 목록에 대한 전문가 어휘 평정은 현장 교사 4인과 국어교육 전문가 6인의 평정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부 연구진의 최종 평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최종 교육용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이 완성되었다.



[그림 8]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정 절차

교육용 어휘를 선별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원리는 아래와 같다.

가) 1단계

교육용 어휘를 선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어휘 교육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 목록이 국민 문식성 신장이라는 목표 아래 전세대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검토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보았다.

이에 현장 교사 4인에게 필수어휘로서의 적절성 판단을 의뢰하였다. 초·중·고의 청소년에게 가르치거나 직접 노출시키기에 부적절한 어휘의 경우,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통하여 삭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인 어휘는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맥주(麥酒)’나 ‘마약(麻藥)’ 등의 부정적인 어휘나, ‘도박(賭博)’, ‘살인(殺人)’과 같은 범죄 관련 어휘의 경우 교육용 필수 어휘에 포함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교육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 영역 전문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난이도와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삭제 요청된 어휘는 ‘만각류(蔓脚類)’가 있다.

셋째, 현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의 경우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미농지(美濃紙)’나 ‘소학교(小學校)’의 경우,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며, ‘안기부(安企部)’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명에 속하지만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시에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난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유로 필수 어휘 목록에서 삭제 요청되었다.

넷째, 정치영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안(公安)’이나 ‘노사정(勞使政)’과 같은 어휘들이 삭제 요청 되었고, 특히 ‘연준(聯準)’의 경

우는 정치 용어임과 동시에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되었다.

위의 원리에 따라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삭제 요청된 어휘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해당 어휘들은 현장 교사 4인 가운데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삭제 요청된 어휘이다.

<표 61> 현장 교사 검토를 통하여 삭제 요청된 어휘

어휘		삭제 이유
1	도박(賭博)	부정적 어휘
2	마약(麻藥)	부정적 어휘
3	맥주(麥酒)	부정적 어휘
4	살인(殺人)	부정적 어휘
5	자살(自殺)	부정적 어휘
6	만각류(蔓脚類)	특정 영역 전문어
7	미농지(美濃紙)	낮은 활용력(난이도)
8	소학교(小學校)	낮은 활용력(난이도)
9	안기부(安企部)	낮은 활용력(난이도)
10	공안(公安)	정치 용어
11	노사정(勞使政)	정치 용어
12	연준(聯準)	정치 용어(난이도)

나) 2단계

전문가 자문위원 6인은 어휘 난이도의 적절성 여부를 위주로 어휘 평정 작업을 시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의 어휘 평정과 관련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2> 난이도 평정에 관련한 자문위원 검토 의견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 11. 14. 금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갑수(서울대), 임지룡(경북대), 구본관(서울대), 김혜숙(동국대), 정혜승(경인교대), 김혜정(경북대)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가 가진 개념 자체의 어려움과 신문의 실제 출현 빈도수 가운데 어느 것을 주요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한 글자로 된 한자어의 난이도 선정 기준이 필요함. 해당 어휘 자체는 쉬울 수 있으나, 다른 어휘와 결합했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음. 준말에 대한 난이도 선정 기준이 필요함.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어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난이도 선정 기준이 필요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된 어휘 평정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어휘 사용 양상과 어휘 노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해당 어휘가 한자 자체의 특성 때문으로 ‘중’이나 ‘상’의 어휘로 상정되었으나, 해당 어휘를 실제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노출되는 정도가 빈번하다면 어휘의 난이도를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63> 전문가 자문위원 어휘 평정 사례 1

	어휘	평정 전	평정 후
1	다양(多樣)	상	중
2	단순(單純)	상	중
3	미안(未安)	상	하
4	실망(失望)	중	하
5	수능(修能)	상	하
6	여고(女高)	상	하
7	암(癌)	상	하
8	뇌(腦)	상	하
9	강(江)	상	하
10	문(門)	상	하

위의 표에 등장하는 10개의 어휘는 모두 국민의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했을 때 노출도가 높은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중/상’으로 난이도가 설정되어 있어서, 어휘 목록의 신뢰도 측면에서 난이도가 수정되어야 하는 예에 해당한다. 크게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2번(‘다양’, ‘단순’)은 한자를 표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한자가 고려되면서 난이도가 ‘상’으로 평가된 것들이다. 한자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를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의 난이도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국민이 해당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에서 ‘중’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4번(‘미안’, ‘실망’)은 한자도 어렵지 않고,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임에도 ‘상’의 난이도로 평정이 되어 있기에 ‘하’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이다. 5~6번(‘수능’, ‘여고’)은 모든 세대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향 평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7~8번(‘암’, ‘뇌’)는 한자 그 자체는 어렵지만, 한자로 직접 쓰고 읽을 줄 모르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상’에서 하향 평정한 경우이다. 9~10번(‘강’, ‘문’)의 경우는 한자도 쉽고, 한자어 자체도 쉬움에도 불구하고 ‘상’으

로 설정되어 있어서 수준에 적합한 난이도로 평정한 경우이다.

둘째, 어휘 목록 내부 기준 간의 균질성과 위계성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어휘 목록의 신뢰도에 관여하는 문제이다. ‘상’으로 평가된 어휘, ‘중’으로 평가된 어휘, ‘하’로 평가된 어휘 각각에 대한 평정 결과가 일관성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으로 평가된 특정 어휘가 ‘상’으로 평가된 다수의 어휘들과 비교했을 때, 쉬운 경우 하향 평정으로 난이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상’으로 평가되는 것이 부적합한 소수의 특정 어휘들로 인해서 적합하게 판정된 다수의 ‘상’ 등급의 어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평정이 요청되었다.

<표 64> 전문가 자문위원 어휘 평정 사례 2

	어휘	평정 전	평정 후
1	의료(醫療)	하	중
2	의사(醫師)	하	하
3	서적(書籍)	하	중
4	서점(書店)	중	하
5	위헌(違憲)	중	상
6	위축(萎縮)	상	상
7	점령(占領)	하	중
8	점수(點數)	중	중
9	파면(罷免)	중	상
10	퇴직(退職)	중	중

위의 표에 등장하는 10개의 어휘는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볼 때 난이도 간의 균질성과 위계성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지 않기에 난이도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크게 1~2번, 3~4번, 5~6번, 7~8번, 9~10번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2번(‘의료’와 ‘의사’)은 모두 동일하게 ‘하’로 평가되어 있으나 전문가 집단에 의하면 ‘의료’의 경우 ‘의사’를 포함하여, 의료 행위 전반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앎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사’와 동일한 난이도로 평가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를 상향 평정하는 것으로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3~4번(‘서적’과 ‘서점’)은 ‘서적’은 ‘하’로 ‘서점’은 ‘상’으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산출을 위한 기초 목록’에서는 평가되어 있었으나, 구어로 많이 사용되는 ‘서점’이 ‘중’으로 평가되고, 구어보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적’이 ‘하’로 평가되는 것은 등급의 위계성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질적

평정을 시행하였다. 5~6번(‘위헌’과 ‘위축’)은 ‘위축’에 비해서 ‘위헌’이 난도가 높은 어휘로 인식됨에도, 오히려 전자가 후자보다 난이도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상’ 등급의 정밀성을 높이고, ‘중’ 등급의 오류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7~8번(‘점령’과 ‘점수’)은 ‘점령’에 비해서 ‘점수’가 난도가 낮은 어휘로 인식됨에도, 오히려 전자보다 후자가 난이도가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중’ 등급의 정밀성을 높이고, ‘하’ 등급의 오류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9~10번(‘파면’과 ‘퇴직’)은 두 어휘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이 ‘파면’에 비해서 가치중립적인 어휘라면, ‘파면’은 파면의 주체와 대상, 경위 등에 대한 파악을 요청하는 가치지향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 난이도로 설정하는 것보다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경우이다. 이에 따라서 ‘파면’의 난이도를 상향 평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셋째,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어휘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다. 교육용 어휘 목록의 대상이 되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언어생활을 고려하여 김광해 교육용 어휘 등급이 설정되었던 때의 기준과는 다른 난도 기준이 적용되어 등급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어휘 자체의 한자를 고려하면 쉽거나 어려운 단어이지만, 해당 어휘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면서 이전과 달리 그 의미가 확대, 축소, 교체 등의 꺾은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어휘 난이도가 새롭게 평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65> 전문가 자문위원 어휘 평정 사례 3

	어휘	평정 전	평정 후
1	과정(課程)	상	중
2	동영상(動映像)	상	하

위의 표에 등장하는 2개의 어휘는 시대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난이도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번의 ‘과정(課程)’은 진행을 의미하는 ‘과정(過程)’과 동음이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에 교육하거나 학습하여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이란 ‘교육’ 분야의 전문어이기 때문에 ‘상’의 난이도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진학 인구가 늘어나고, ‘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공론장의 핵심 주제로 기능함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과정’ 등의 형태로 빈번히 사용되기 때문에 ‘상’의 난이도를 하향 평정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동영상(動映像)’의 경우는 과거에는 ‘컴퓨터’ 분야의 전문어으로써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기에 난도 ‘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 매체가 대중들에게 보급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전세대에서 쉽게,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다. 따라서 전문어로 기능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매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향 평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시행 결과

가) 어휘 삭제의 원리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재검토하여 최종 삭제 어휘 18개를 확정하였다. 어휘를 삭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은 교육적인 요구의 측면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휘 목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층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필수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에 실제로 출현한 어휘들을 밑자료로 하여 구축한 어휘 목록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어휘가 가진 대표성과 시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목록을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구축하는 데에 적용한 어휘 삭제의 원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어휘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범죄 등과 관련된 어휘의 경우는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맥주(麥酒)’나 ‘마약(麻藥)’ 등의 부정적인 어휘나, ‘도박(賭博)’, ‘살인(殺人)’과 같은 범죄 관련 어휘들이 삭제되었다. 해당 어휘들은 초·중·고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노출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필수 교육 어휘에 포함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최종 어휘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둘째, 종교와 관련된 어휘나 특정 영역 전문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난이도와 실제 생활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안거(冬安居)’, ‘불천위(不遷位)’, ‘목회(牧會)’, 만각류(蔓脚類)와 같은 어휘들이 삭제되었다. ‘동안거(冬安居)’의 경우, 불교에서 행하는 수양의 한 양상으로서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이고, 불천위(不遷位) 역시 ‘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로써 유교적 관습에 대한 것으로 오늘날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목회(牧會)’의 경우도 특정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닌 이상 접하기 어려운 어휘라는 점에서 필수 교육용 어휘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특정 영역 전문어로 판단한 경우는 ‘만각류(蔓脚類)’가 있다. 생물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역 전문어이며, 실제 생활에서 접하거나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수 교육용 어휘에서 삭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구축한 어휘 목록이 신문에 실제 출현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휘가 가진 ‘시의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현재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의 경우를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농지(美濃紙)’나 ‘소학교(小學校)’, ‘참봉(參奉)’ ‘참판(參判)’과 같은 어휘가 삭제되었다. 동일한 기준으로 삭제된 어휘에는 ‘안기부(安企部)’와 ‘중정(中情)’이 있다. ‘안기부(安企部)’와 ‘중정(中情, 중앙정보부)’의 경우는 국가 기관명으로,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정식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넷째,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에 포함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을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어휘는 ‘공안(公安)’과 ‘노사정(勞使政)’, ‘연준(聯準)’이다. 이 세 어휘는 특히 청소년층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위의 원리에 따라 교육용 어휘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어휘들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6> 최종 삭제 어휘

어휘		삭제 이유
1	도박(賭博)	부정적 어휘
2	마약(麻藥)	부정적 어휘
3	맥주(麥酒)	부정적 어휘
4	살인(殺人)	부정적 어휘
5	자살(自殺)	부정적 어휘
6	목회(牧會)	종교 관련
7	동안거(冬安居)	종교 관련
8	불천위(不遷位)	종교 관련
9	만각류(蔓脚類)	특정 영역 전문어
10	미농지(美濃紙)	낮은 활용력
11	소학교(小學校)	낮은 활용력
12	참봉(參奉)	낮은 활용력
13	참판(參判)	낮은 활용력
14	안기부(安企部)	낮은 활용력
15	중정(中情)	낮은 활용력
16	공안(公安)	정치 용어
17	노사정(勞使政)	정치 용어
18	연준(聯準)	정치 용어

나) 난이도 평정의 원리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분석, 선별하는 한편, 본 연구 전체의 목적과 방법을 고

려하여 ‘하향 평정’, ‘상향 평정’, ‘균형 평정’의 난이도 평정 원리를 설정하였다.

(1) 하향 평정

아래 표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 때 하향 평정으로 어휘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첫째,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일 경우 하향 평정을 시행한다. 한자 자체는 어렵지만 실제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의 ‘중/상’으로 설정된 난이도를 ‘하/중’으로 조정하였다. ‘주방(廚房)’, ‘주차(駐車)’, ‘탁자(桌子)’, ‘단순(單純)’, ‘상쾌(爽快)’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자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향 평정을 진행하였다. ‘외식(外食)’, ‘소중(所重)’, ‘평범(平凡)’, ‘공동(共同)’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67> 하향 평정 예시

하향 평정의 대상		예	평정 전	평정 후
1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외식(外食)	중	하
		주방(廚房)	중	하
		주차(駐車)	중	하
		탁자(桌子)	중	하
		단순(單純)	상	중
		소중(所重)	상	중
		상쾌(爽快)	상	중
		평범(平凡)	상	중
		공동(共同)	상	중
2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어휘	무제한(無制限)	상	중
		의대(醫大)	상	중
		대졸(大卒)	상	중
		비공개(非公開)	상	중
		예능(藝能)	중	하
		연휴(連休)	중	하
		청와대(靑瓦臺)	중	하
		동영상(動映像)	상	하
3	학교생활과 교과를 통해 학습되는 어휘	면담(面談)	상	중
		벌점(罰點)	상	중
		육상(陸上)	중	하
		학부모(學父母)	중	하
		독자(讀者)	상	중
		중(中)	상	하

둘째, 대중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어휘일 경우 하향 평정을 시행한다. 개념어 어휘 자체는 추상적이어서 난이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대중 매체를 통

해서 자주 접하는 경우 하향평정을 진행하였다. ‘무제한(無制限)’은 ‘무제한 LTE’라는 문구로 최근 각종 통신사 광고를 통해 자주 접하는 어휘에 해당하며, ‘예능(藝能)’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종류로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의대(醫大)’, ‘대졸(大卒)’, ‘비공개(非公開)’, ‘연휴(連休)’, ‘청와대(靑瓦臺)’는 해당 어휘와 관련된 사건이나 현안이 정기적으로 뉴스와 신문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자주 접하게 되는 어휘에 해당한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듯이, ‘동영상(動映像)’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향으로 평정하였다.

셋째, 학교생활과 교과를 통해 학습되는 어휘일 경우 하향 평정을 시행한다. ‘면담(面談)’, ‘벌점(罰點)’, ‘육상(陸上)’, ‘학부모(學父母)’의 어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지내는 학교생활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알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각 어휘도 원래 난이도가 상과 중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하로 하향 평정하였다. ‘독자(讀者)’, ‘중(中)’의 어휘는 학교 교과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하향 평정을 진행하였다.

(2) 상향 평정

아래 표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 때 상향 평정으로 어휘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첫째, 해당 개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어휘일 경우, 상향 평정한다. ‘발인(發靚)’, ‘부고(訃告)’, ‘서거(逝去)’, ‘향년(享年)’의 어휘는 우리 고유의 ‘죽음’에 관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해당한다. 이 개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 한자의 뜻을 합하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당 개념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어휘이다. 더 나아가 이들 개념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서 ‘죽음’을 대하는 문화적 태도나 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당(祠堂)’은 유교 사상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될 때 이해가 가능한 어휘이다. 만평(漫評)의 경우도 그것이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조정되었다. ‘우익(右翼)’은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된 어휘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단지 ‘오른쪽 날개’라는 지시적 의미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어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향 평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해당 어휘가 실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미묘한 어감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어휘일 경우 상향 평정한다. ‘참사(慘事)’, ‘참상(慘狀)’, ‘정황(情況)’, ‘지경(地境)’, ‘사태(事態)’의 경우 모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을 의미하지만,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어휘(참사, 참상)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한 과정(지경), 현재 상태(사태), 원인(정황)이 부각되는 경우에도 각각 개별의 어휘가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는 어감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요구된다. ‘파면(罷免)’, ‘혐오(嫌惡)’, ‘구실(口實)’ 역시 ‘퇴직’, ‘싫어하다’, ‘이유’ 등의 어휘와는 다른 어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개념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상향 평정한다. ‘위헌(違憲)’, ‘탄핵(彈劾)’, ‘발의(發議)’, ‘비준(批准)’, ‘자본(資本)’, ‘평론(評論)’, ‘비과세(非課稅)’, ‘의장(議長)’은 대중 매체에도 종종 등장하고, 일상적인 어휘로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그 해당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어휘의 난이도를 상향 평정할 필요가 있다.

<표 68> 상향 평정 예시

상향 평정의 대상		예	평정 전	평정 후
1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어휘	발인(發軔)	중	상
		부고(訃告)	중	상
		서거(逝去)	중	상
		향년(享年)	중	상
		사당(祠堂)	하	중
		우익(右翼)	중	상
		만평(漫評)	중	상
2	어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어휘	참사(慘事)	중	상
		참상(慘狀)	중	상
		정황(情況)	중	상
		지경(地境)	하	중
		사태(事態)	하	중
		파면(罷免)	중	상
		혐오(嫌惡)	중	상
3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어휘	구실(口實)	하	중
		위헌(違憲)	중	상
		탄핵(彈劾)	중	상
		발의(發議)	중	상
		비준(批准)	중	상
		자본(資本)	하	상
		평론(評論)	하	상
		비과세(非課稅)	중	상
		의장(議長)	하	중

(3) 균형 평정

아래 표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 때 균형 평정으로 어휘 난이도를 수정하였다. 균형 평정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이미 등급이 부여된 어휘들에 대해서 본 연구의 어휘 목록 자체 내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휘 목록 전체의 위계성과 균질성을 위해서 조정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메타 계량의 대상이 된 어휘 목록의 특성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재된 어휘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지 못한 어휘들에 대해서 본 연구의 어휘 목록 자체 내의 기준에 비추어 난이도를 부여해 주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김광해 어휘 등급으로 평정이 어려운 어휘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자체 평정을 진행한 경우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앞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 한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표 69> 균형 평정 예시

균형 평정의 대상		예	평정 전	평정 후
1	위계성, 균질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휘	의료(醫療)	하	중
		의사(醫師)	하	하
		서적(書籍)	하	중
		서점(書店)	중	하
		점령(占領)	하	중
		점수(點數)	중	중
2	표준국어대사전 미등재 어휘	여직원(女職員)	분석 불능	하
		재신임(再信任)	분석 불능	중
		초간단(超簡單)	분석 불능	중
		최측근(最側近)	분석 불능	중
		혼외(婚外)	분석 불능	중
		표심(票心)	분석 불능	중
		탈북(脫北)	분석 불능	중
		이하 생략(별첨 참조)		
3	김광해 어휘 등급으로 평정이 어려운 무등급 어휘	화(火)	무등급	하
		후(後)	무등급	하
		서구(西歐)	무등급	상
		연연(戀戀)	무등급	상
		이하 생략(별첨 참조)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 미등재된 어휘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평정을 진행하였다. ‘여직원(女職員)’, ‘재신임(再信任)’, ‘초간단(超簡單)’, ‘최측근(最側近)’의 어휘는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복합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미등재어로 처리된 어휘에 해당한다. 이 어휘들은 접두사의 의미와 어근의 의미 각각을 이해한다면

추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접두사와 어근의 난이도를 어휘 목록 전체의 ‘상’, ‘중’, ‘하’의 난이도에 비추어 판단하여 평정하였다. ‘혼외(婚外)’, ‘표심(票心)’, ‘탈북(脫北)’의 경우 단순한 추론으로는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균형 평정하였다.

또, 김광해 어휘 등급으로 평정이 어려운 무등급 어휘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평정을 진행하였다. ‘화(火)’, ‘후(後)’의 경우,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고 ‘하’의 난이도 기준에 부합함으로 ‘하’로 평정하였다. ‘서구(西歐)’, ‘연연(戀戀)’의 경우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어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어휘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상’으로 평가된 다른 어휘들과 비교하였을 때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상’으로 평정하였다.

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 목록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1면에 나타난 어휘를 추출하여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신문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시의성 높은 어휘들을 바탕으로 한 어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물론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필수 어휘 3,440개를 선정하였다. 이 어휘는 실제 신문에서 다양한 단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어근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어로 매체 교육 및 어휘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으로 선정된 어휘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3,440개 어휘 중에서 각 영역별 어휘는 정치 2,394개, 사회 2,534개, 경제 1,562개, 국제 1,263개, 문화 1,645개, 스포츠·연예 384개, 과학·기술·건강 442개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았을 때 정치 69.6%, 사회 73.7%, 경제 45.4%, 국제 36.7%, 문화 47.8%, 스포츠·연예 11.2%, 과학·기술·건강 12.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 어휘가 대체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어휘의 수 52개로 전체 목록 중 1.5%이다. 각 영역에만 나타나는 어휘의 수는 정치 90개, 사회 79개, 경제 22개, 국제 8개, 문화 313개, 스포츠·연예 51개, 과학·기술·건강 58개로 총 621개 어휘가 각 영역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어휘 목록 중 약 18%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82%의 어휘는 두 영역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 목록은 대체로 신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나타나는 어휘들의 비율이 높다.

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난도 상에 해당하는 어휘가 991개, 난도 중인 어휘가 1,622개, 난도 하인 어휘가 827개로 난도 중인 어휘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음절수 분포를 살펴보면 1음절어가 150개, 2음절어 3,139개, 3음절어 132개, 4음절어 19개로, 2음절어가 91.3%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는 어휘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 신문에서 출현하는 어휘에서는 더욱 다양한 음절 분포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음이의어 분포를 살펴보면, 한자어 음과 뜻이 하나로 대응되는 어휘가 3,202개, 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한자 두 개로 표기를 하는 어휘가 208개, 서로 다른 한자 세 개로 표기를 하는 어휘가 18개, 서로 다른 한자 네 개로 표기를 하는 어휘가 12개였다. 이 중에서도 인사(人事)는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 예를 포함’은 인사02와 ‘관리나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따위와 관계되는 행정적

인 일'을 나타내는 인사03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즉, 음과 한자 표기가 모두 같으나 뜻이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표 70>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어휘의 구성

영역별 어휘

영역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계
어휘 수(개)	2,394	2,534	1,562	1,263	1,645	384	442	3,440
비율(%)	69.6	73.7	45.4	36.7	47.8	11.2	12.8	100.0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어휘

어휘 수(개)	52
비율(%)	1.5

각 영역에만 나타나는 어휘

영역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연예	과학·기술·건강	계
어휘 수(개)	90	79	22	8	313	51	58	621
비율(%)	2.6	2.3	0.6	0.2	9.1	1.5	1.7	18.1

난도별 어휘 분포

난도	상	중	하	계
어휘 수(개)	991	1,622	827	3440
비율(%)	28.8	47.2	24.0	100.0

음절수 분포

음절수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계
어휘 수(개)	150	3,139	132	19	3440
비율(%)	4.4	91.3	3.8	0.6	100.0

동음이의어 분포

소리와 뜻 대응 양상	1:1 대응	1:2 대응	1:3 대응	1:4 대응	계
어휘 수(개)	3,202	208	18	12	3440
비율(%)	93.1	6.0	0.5	0.3	100.0

1) 공통 필수 어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중에서 신문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총 52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71>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공통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혜)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신문	인터넷 신문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외	과학 외
대(對)	등급 외	중	1	1498	750	748	846	404	113	68	56	8	3
위(爲)	등급 외	상	4	772	338	434	296	288	87	63	27	5	6
전(前)	1	하	6	749	314	435	297	351	25	32	28	3	13
중(中)	등급 외	하	10	517	290	227	203	185	51	35	32	5	6
통(通)	등급 외	중	11	432	211	221	208	137	41	25	10	7	4
대표(代表)	2	하	16	350	167	183	258	61	19	5	5	1	1
사건(事件)	1	하	17	334	145	189	199	103	9	4	10	8	1
상황(狀況)	1	하	19	311	123	188	152	102	24	16	14	1	2
주장(主張)	3	중	20	306	122	184	161	87	11	23	18	4	2
이후(以後)	1	하	23	292	165	127	139	79	39	14	14	5	2
시작(始作)	1	하	25	281	77	204	82	100	30	18	42	2	7
당시(當時)	1	하	26	275	79	196	119	110	16	10	17	1	2
현재(現在)	1	하	35	232	110	122	97	78	31	15	6	2	3
후(後)	등급 외	하	43	211	93	118	91	62	24	13	6	3	12
사용(使用)	1	하	45	209	88	121	71	69	56	3	8	1	1
시간(時間)	1	하	48	203	71	132	78	70	14	15	15	5	6
점(點)	3	하	54	193	61	132	84	72	11	10	12	3	1
오후(午後)	1	하	57	190	74	116	86	74	11	10	4	3	2
보도(報道)	2	하	60	186	91	95	77	84	6	15	1	2	1
이상(以上)	1	하	60	186	105	81	77	47	39	11	6	2	4
자신(自身)	1	하	62	185	63	122	74	61	20	15	12	2	1
중요(重要)	3	하	65	182	73	109	84	55	20	10	11	1	1
전(傳)	등급 외	상	67	181	124	57	98	41	12	18	6	5	1
지적(指摘)	4	중	70	178	81	97	77	68	24	3	3	2	1
활동(活動)	1	하	73	169	70	99	64	59	14	10	19	2	1
이유(理由)	1	하	78	162	38	124	53	67	8	10	21	1	2
세계(世界)	1	하	80	160	94	66	25	35	32	40	11	13	4
오전(午前)	1	하	83	158	103	55	88	42	6	12	2	6	2
참석(參席)	4	중	99	142	95	47	85	35	7	12	1	1	1
전문(專門)	2	중	101	141	73	68	56	37	25	3	13	6	1
예정(豫定)	2	하	103	139	83	56	66	48	16	4	2	2	1
일부(一部)	2	하	105	138	66	72	52	63	14	4	3	1	1
준비(準備)	1	하	122	125	65	60	69	33	2	6	13	1	1
부분(部分)	1	하	127	119	46	73	44	61	6	3	2	1	2
사진(寫眞)	1	하	184	95	64	31	33	26	4	12	5	1	14
상태(狀態)	1	하	197	88	52	36	36	29	13	5	2	1	2
세상(世上)	1	하	224	81	18	63	7	33	8	2	19	5	7
사전(事前)	5	상	239	77	42	35	48	22	1	2	1	1	2
대부분(大部分)	2	하	283	68	22	46	15	28	12	2	8	1	2
반응(反應)	2	하	298	66	27	37	27	15	6	1	6	0	1
부족(不足)	2	하	298	66	24	42	30	14	12	3	4	1	2
편(便)	등급 외	상	358	58	8	50	11	21	4	2	15	1	4
여전(如前)	5	상	367	57	19	38	20	14	8	7	4	1	3
철저(徹底)	4	중	387	55	27	28	35	13	2	1	2	1	1
통화(通話)	2	하	442	48	24	24	22	18	1	2	1	2	2
표현(表現)	1	하	451	47	16	31	15	18	2	2	7	1	2
원(願)	등급 외	상	463	46	18	28	14	17	6	2	5	1	1
자본(資本)	2	상	518	41	25	16	11	16	7	4	1	1	1
시점(時點)	4	중	539	39	19	20	16	10	5	4	2	1	1
인간(人間)	1	하	555	38	7	31	4	11	2	2	16	1	2
정신(精神)	1	하	782	26	8	18	5	8	1	2	7	1	2
허락(許諾)	2	하	1288	14	4	10	2	3	1	2	2	1	3

2) 영역별 필수 어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중에서 신문의 한 영역에만 나타나고 다른 영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영역별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정치(90개)

<표 72>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정치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정치
사초(史草)	6	상	877	23	14	9	23
재보선(再補選)	등급 외	상	909	22	13	9	22
북송(北送)	4	중	947	21	21		21
의제(議題)	3	중	947	21	18	3	21
출장(出張)	2	하	1018	19	4	15	19
표결(表決)	5	상	1018	19	10	9	19
득표(得票)	4	중	1108	17	16	1	17
창당(創黨)	5	상	1108	17	8	9	17
소령(少領)	4	중	1214	15	2	13	15
위헌(違憲)	4	상	1214	15	11	4	15
신당(新黨)	3	중	1288	14	2	12	14
이관(移管)	5	상	1288	14	6	8	14
보선(補選)	5	상	1366	13	12	1	13
수첩(手帖)	2	하	1366	13	7	6	13
입국(入國)	2	하	1366	13	13		13
재(再)	등급 외	상	1366	13	12	1	13
화교(華僑)	3	중	1443	12	12		12
방호(防護)	5	상	1525	11	6	5	11
불통(不通)	4	중	1525	11	8	3	11
선서(宣誓)	3	중	1525	11		11	11
정쟁(政爭)	5	상	1525	11	6	5	11
대독(代讀)	6	상	1635	10	4	6	10
만찬(晩餐)	4	중	1635	10	9	1	10
소모(消耗)	4	중	1635	10	9	1	10
정파(政派)	5	상	1635	10	2	8	10
독자(獨自)	5	상	1746	9	6	3	9
불출석(不出席)	6	중	1746	9	2	7	9
이산(離散)	4	중	1746	9	9		9
일탈(逸脫)	5	상	1746	9	1	8	9
전관(前官)	6	상	1746	9	9		9
표심(票心)	등급 외	중	1746	9	6	3	9
한자(漢字)	1	하	1746	9	9		9
현판(懸板)	3	중	1746	9	8	1	9
당론(黨論)	5	상	1876	8		8	8
두둔(斗頓)	4	상	1876	8	2	6	8
민심(民心)	4	중	1876	8	6	2	8
숙군(肅軍)	6	상	1876	8		8	8
전대(前代)	4	중	1876	8		8	8
최전방(最前方)	5	상	1876	8	8		8
반목(反目)	5	상	2037	7	7		7
송환(送還)	4	중	2037	7	7		7
작심(作心)	5	상	2037	7	7		7
장병(將兵)	3	중	2037	7	7		7
제명(除名)	5	상	2037	7	7		7
제청(提請)	5	상	2037	7	4	3	7
주(駐)	등급 외	상	2037	7	6	1	7
준수(遵守)	4	중	2037	7	4	3	7
차액(差額)	4	중	2037	7		7	7
처참(悽慘)	6	상	2037	7	3	4	7
초선(初選)	4	중	2037	7	3	4	7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정치
출입국(出入國)	5	상	2037	7	7		7
과행(跛行)	5	상	2037	7	2	5	7
미합의(未合意)	7	상	2223	6		6	6
민정(民政)	5	상	2223	6	6		6
박차(拍車)	4	중	2223	6	6		6
사면(赦免)	6	상	2223	6	6		6
상견(相見)	5	상	2223	6	6		6
연석(連席)	7	상	2223	6	6		6
우방(友邦)	3	중	2223	6	6		6
위령(慰靈)	5	상	2223	6	6		6
유세(遊說)	5	상	2223	6	4	2	6
의석(議席)	4	중	2223	6	6		6
입교(入校)	5	상	2223	6		6	6
재선거(再選舉)	4	중	2223	6	4	2	6
재연기(再延期)	등급 외	중	2223	6	6		6
전사(戰死)	4	중	2223	6	6		6
지국(支局)	5	상	2223	6	6		6
진본(眞本)	6	상	2223	6	5	1	6
평판(評判)	3	중	2223	6	2	4	6
항구(港口)	1	하	2223	6		6	6
회동(會同)	5	상	2223	6	4	2	6
관보(官報)	4	상	2432	5	5		5
농축산(農畜産)	4	중	2432	5	5		5
당사(黨舍)	5	상	2432	5	2	3	5
동석(同席)	4	중	2432	5	4	1	5
매점(賣店)	2	하	2432	5		5	5
변동(變動)	3	중	2432	5	4	1	5
상봉(相逢)	4	중	2432	5	5		5
압승(壓勝)	5	상	2432	5	5		5
여권(旅券)	1	하	2432	5	5		5
역동(力動)	5	상	2432	5		5	5
영접(迎接)	5	상	2432	5	5		5
원외(院外)	5	상	2432	5		5	5
의총(議總)	7	상	2432	5		5	5
인지(認知)	5	상	2432	5		5	5
주무(主務)	등급 외	상	2432	5	4	1	5
즉답(卽答)	5	상	2432	5		5	5
표본(標本)	3	중	2432	5	4	1	5
후과(後果)	7	상	2432	5	5		5

나) 사회(79개)

<표 7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사회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사회
민영(民營)	5	상	431	49	11	38	49
양육(養育)	4	중	510	42	2	40	42
철도(鐵道)	2	하	555	38	12	26	38
조종(操縱)	3	중	579	36	25	11	36
아동(兒童)	3	하	877	23	5	18	23
탈핵(脫核)	7	상	909	22		22	22
모피(毛皮)	4	중	1018	19		19	19
철탑(鐵塔)	3	중	1058	18	4	14	18
녹조(綠藻)	4	중	1108	17	12	5	17
사육(飼育)	4	중	1108	17		17	17
저자(著者)	5	상	1214	15	11	4	15
수능(修能)	5	하	1288	14	11	3	14
시공(施工)	5	상	1288	14	13	1	14
이적(利敵)	5	상	1288	14		14	14
소방(消防)	3	중	1366	13	1	12	13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사회
자전(自轉)	3	중	1366	13		13	13
도서(圖書)	3	중	1525	11	1	10	11
자막(字幕)	4	중	1525	11		11	11
편향(偏向)	5	상	1525	11	2	9	11
석사(碩士)	3	중	1635	10	10		10
성곽(城郭)	3	중	1635	10		10	10
정시(定時)	5	상	1635	10	10		10
정정(訂正)	5	상	1635	10	2	8	10
지부(支部)	4	중	1635	10	1	9	10
보수(補修)	5	상	1746	9		9	9
유리(琉璃)	2	하	1746	9		9	9
종(鐘)	등급 외	하	1746	9		9	9
청각(聽覺)	3	중	1746	9	7	2	9
대여(貸與)	4	중	1876	8	7	1	8
대자보(大字報)	5	상	1876	8		8	8
번역(翻譯/翻譯)	3	중	1876	8		8	8
별장(別莊)	4	중	1876	8	7	1	8
숭모(崇慕)	7	상	1876	8		8	8
전형(銓衡)	5	상	1876	8	6	2	8
찬양(讚揚)	4	중	1876	8	2	6	8
초대(招待)	2	하	1876	8		8	8
측정(測定)	3	중	1876	8	5	3	8
수명(壽命)	3	중	2037	7		7	7
이과(理科)	3	중	2037	7	5	2	7
자활(自活)	4	중	2037	7	7		7
성벽(城壁)	3	중	2223	6		6	6
수도(水道)	7	중	2223	6	1	5	6
우수(雨水)	6	상	2223	6		6	6
원산(原産)	3	중	2223	6		6	6
은닉(隱匿)	5	상	2223	6	6		6
자립(自立)	3	중	2223	6		6	6
제상승(再上昇)	등급 외	중	2223	6	6		6
지회(支會)	5	상	2223	6	4	2	6
판정(判定)	2	중	2223	6	2	4	6
헌금(獻金)	4	중	2223	6		6	6
고문(拷問)	2	중	2432	5	4	1	5
동상(銅像)	4	중	2432	5		5	5
명당(明堂)	4	중	2432	5	5		5
명함(名銜)	3	중	2432	5	5		5
모욕(侮辱)	3	중	2432	5		5	5
비명(悲鳴)	2	하	2432	5	2	3	5
사료(史料)	5	상	2432	5	5		5
수감(收監)	4	중	2432	5	2	3	5
수기(手記)	3	중	2432	5	3	2	5
수녀(修女)	2	하	2432	5	2	3	5
수색(搜索)	2	중	2432	5	3	2	5
수학(數學)	2	하	2432	5	5		5
수험(受驗)	5	상	2432	5	3	2	5
실내(室內)	3	하	2432	5		5	5
연인(戀人)	2	하	2432	5		5	5
옥외(屋外)	4	중	2432	5		5	5
인부(人夫)	3	중	2432	5		5	5
인세(印稅)	4	중	2432	5	5		5
일리(一理)	4	중	2432	5	1	4	5
전업(專業)	3	중	2432	5	1	4	5
절전(節電)	5	상	2432	5		5	5
제방(堤防)	3	중	2432	5	3	2	5
주일(主日)	5	상	2432	5		5	5
지반(地盤)	4	중	2432	5		5	5
지중(地中)	6	상	2432	5	3	2	5
최루(催淚)	5	상	2432	5		5	5
축의(祝儀)	6	상	2432	5		5	5
피폭(被曝)	7	상	2432	5		5	5
학과(學科)	4	중	2432	5	5		5

다) 경제(22개)

<표 74>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경제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경제
채권(債券)	4	중	837	24	8	16	24
증여(贈與)	5	상	947	21	21		21
신흥(新興)	4	중	979	20	20		20
상법(商法)	4	중	1058	18	18		18
양성(養成)	5	상	1108	17	17		17
보건(保健)	3	중	1214	15		15	15
전경련(全經聯)	7	상	1288	14	14		14
채권(債權)	5	상	1288	14	9	5	14
염분(鹽分)	3	중	1443	12		12	12
질환(疾患)	4	중	1876	8	8		8
차입(借入)	5	상	1876	8	8		8
다중(多重)	5	상	2037	7		7	7
만기(滿期)	5	상	2037	7	7		7
미공표(未公表)	등급 외	중	2037	7	7		7
유동(流動)	6	상	2037	7	3	4	7
차익(差益)	5	상	2223	6	5	1	6
출점(出店)	5	상	2223	6	6		6
통화(通貨)	5	상	2223	6	6		6
대부(貸付)	5	상	2432	5		5	5
복지(福利)	4	중	2432	5	5		5
중견(中堅)	5	상	2432	5	5		5
증시(證市)	7	상	2432	5	5		5

라) 국제(8개)

<표 75>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국제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국제
비준(批准)	4	상	1746	9		9	9
서기(書記)	3	중	2037	7	7		7
이륙(離陸)	2	중	2037	7	7		7
출격(出擊)	5	상	2223	6	6		6
산간(山間)	3	중	2432	5		5	5
운구(運樞)	5	상	2432	5	5		5
총격(銃擊)	5	상	2432	5	5		5
항모(航母)	7	상	2432	5	5		5

마) 문화(313개)

<표 76>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문화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풍자(諷刺)	4	중	909	22		22	22
서평(書評)	5	상	2037	7		7	7
수구(水口)	6	상	2037	7		7	7
황제(皇帝)	2	하	2037	7		7	7
발원(發源)	5	상	2223	6		6	6
시(詩)	등급 외	중	2223	6		6	6
시립(市立)	3	중	2223	6		6	6
약정(約定)	5	상	2223	6		6	6
제사(祭祀)	2	하	2223	6	2	4	6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만평(漫評)	4	상	2432	5		5	5
서거(逝去)	4	상	2432	5		5	5
왕위(王位)	3	중	2432	5		5	5
일기(日記)	1	하	2432	5		5	5
질주(疾走)	5	상	2432	5		5	5
씨족(氏族)	5	상	2684	4		4	4
왕자(王子)	2	하	2684	4		4	4
당대(當代)	4	중	2785	3		3	3
민법(民法)	4	중	2785	3		3	3
법문(法文)	5	상	2785	3	3		3
비평(批評)	4	중	2785	3		3	3
소박(素朴)	6	상	2785	3		3	3
음흉(陰凶)	5	상	2785	3		3	3
채당(替當)	7	상	2785	3		3	3
촌철살인(寸鐵殺人)	7	상	2785	3		3	3
치과(齒科)	2	하	2785	3		3	3
품평(品評)	5	상	2785	3	2	1	3
풍족(豐足)	4	중	2785	3		3	3
향신(香辛)	등급 외	상	2785	3		3	3
흡연(吸煙)	4	중	2785	3	3		3
논거(論據)	4	중	2933	2		2	2
독서(讀書)	2	하	2933	2		2	2
동정(同情)	3	중	2933	2		2	2
모성(母性)	5	상	2933	2		2	2
묘미(妙味)	4	중	2933	2		2	2
무방(無妨)	5	상	2933	2		2	2
묵시(默示)	5	상	2933	2		2	2
문법(文法)	1	하	2933	2		2	2
반상(盤床)	5	상	2933	2		2	2
변사(辯士)	6	상	2933	2		2	2
별미(別味)	4	중	2933	2		2	2
북상(北上)	4	중	2933	2		2	2
분신(分身)	4	중	2933	2		2	2
불자(佛子)	5	상	2933	2	2		2
사물(事物)	2	하	2933	2		2	2
사시(四時)	4	중	2933	2		2	2
산모(產母)	4	중	2933	2		2	2
산문(散文)	4	중	2933	2		2	2
석회(石灰)	4	중	2933	2		2	2
선사(膳賜)	3	중	2933	2	1	1	2
성형(成形)	4	중	2933	2	2		2
쇠퇴(衰退)	4	중	2933	2		2	2
수행(修行)	5	상	2933	2		2	2
시공간(時空間)	5	상	2933	2		2	2
신생(新生)	3	중	2933	2	1	1	2
연근(蓮根)	4	중	2933	2		2	2
온기(溫氣)	4	중	2933	2		2	2
웅장(雄壯)	6	상	2933	2		2	2
위선(僞善)	3	상	2933	2		2	2
유언(遺言)	3	중	2933	2		2	2
유쾌(愉快)	5	상	2933	2		2	2
인후(咽喉)	5	상	2933	2		2	2
임상(臨床)	5	상	2933	2	2		2
재탄생(再誕生)	등급 외	중	2933	2		2	2
절필(絶筆)	5	상	2933	2		2	2
조상(祖上)	1	하	2933	2		2	2
조실(祖室)	6	상	2933	2	2		2
조탄(粗炭)	등급 외	상	2933	2		2	2
주무대(主舞臺)	등급 외	중	2933	2		2	2
주산(主山)	6	상	2933	2		2	2
중세(中世)	2	중	2933	2		2	2
지명(地名)	4	중	2933	2		2	2
체(滯)	등급 외	상	2933	2		2	2
탁월(卓越)	5	상	2933	2		2	2
특산(特産)	5	상	2933	2		2	2
필명(筆名)	5	상	2933	2		2	2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혜) 등급 외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향(香)		상	2933	2		2	2
현란(絢爛)	6	상	2933	2		2	2
후미(後尾)	4	중	2933	2		2	2
과거(科學)	3	중	3136	1		1	1
구실(口實)	2	중	3136	1		1	1
내근(內勤)	5	상	3136	1		1	1
냉장(冷藏)	3	하	3136	1		1	1
능선(稜線)	4	중	3136	1		1	1
다국적(多國籍)	4	중	3136	1		1	1
단선(單線)	3	중	3136	1		1	1
당락(當落)	4	중	3136	1		1	1
대가족(大家族)	3	하	3136	1		1	1
대대(代代)	6	상	3136	1		1	1
대면(對面)	4	중	3136	1		1	1
대부(代父)	6	상	3136	1		1	1
택(宅)	1	하	3136	1		1	1
덕담(德談)	4	중	3136	1	1		1
도약(跳躍)	4	중	3136	1	1		1
독방(獨房)	4	중	3136	1		1	1
독창(獨創)	6	중	3136	1	1		1
독회(讀會)	6	상	3136	1	1		1
돌풍(突風)	4	중	3136	1		1	1
동명(同名)	4	중	3136	1		1	1
동서(東西)	3	중	3136	1		1	1
동시(童詩)	1	하	3136	1		1	1
동심(童心)	4	중	3136	1		1	1
등산(登山)	2	하	3136	1		1	1
등한(等閑)	7	상	3136	1		1	1
막막(寞寞)	6	중	3136	1		1	1
만끽(滿喫)	6	상	3136	1		1	1
만조(滿潮)	7	상	3136	1		1	1
망자(亡者)	7	상	3136	1		1	1
매표(賣票)	4	중	3136	1		1	1
명문(名文)	5	중	3136	1		1	1
명제(命題)	4	중	3136	1		1	1
모유(母乳)	4	중	3136	1		1	1
묘소(墓所)	4	중	3136	1		1	1
무보수(無報酬)	5	상	3136	1		1	1
무위자연(無爲自然)	5	상	3136	1		1	1
무의식(無意識)	4	중	3136	1	1		1
무정(無情)	7	중	3136	1		1	1
미담(美談)	4	중	3136	1		1	1
미덕(美德)	4	중	3136	1		1	1
미련(未練)	6	상	3136	1		1	1
민박(民泊)	7	중	3136	1		1	1
반인륜(反人倫)	4	중	3136	1		1	1
반항(反抗)	3	중	3136	1		1	1
방화(防火)	5	상	3136	1		1	1
배달(配達)	2	하	3136	1		1	1
배수(排水)	3	중	3136	1		1	1
백인(白人)	2	하	3136	1		1	1
범인(犯人)	2	하	3136	1		1	1
변심(變心)	4	중	3136	1		1	1
별거(別居)	4	중	3136	1		1	1
병가(病假)	5	상	3136	1		1	1
병약(病弱)	5	상	3136	1		1	1
보온(保溫)	3	중	3136	1		1	1
부제(副題)	4	중	3136	1		1	1
분회(分會)	5	상	3136	1		1	1
빈부(貧富)	4	중	3136	1		1	1
사유(思惟)	5	상	3136	1		1	1
사찰(寺刹)	4	중	3136	1		1	1
삭풍(朔風)	3	중	3136	1		1	1
산고(産苦)	5	상	3136	1		1	1
상소(上疏)	4	중	3136	1		1	1
상쾌(爽快)	5	중	3136	1		1	1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상패(賞牌)	3	중	3136	1	1		1
상표(商標)	3	중	3136	1		1	1
생사(生死)	3	중	3136	1		1	1
서식(棲息)	5	상	3136	1		1	1
석양(夕陽)	3	중	3136	1		1	1
석패(惜敗)	6	상	3136	1		1	1
선학(先學)	5	상	3136	1	1		1
성의(誠意)	2	중	3136	1		1	1
성채(城砦)	5	상	3136	1	1		1
소시민(小市民)	5	상	3136	1		1	1
속보(速報)	4	중	3136	1		1	1
손익(損益)	3	중	3136	1		1	1
수건(手巾)	1	하	3136	1		1	1
수대(數代)	등급 외	중	3136	1		1	1
수료(修了)	4	중	3136	1		1	1
수목(樹木)	4	중	3136	1		1	1
수반(隨伴)	4	중	3136	1		1	1
수액(數額)	7	상	3136	1		1	1
수염(鬚髯)	1	하	3136	1		1	1
수종(樹種)	5	상	3136	1		1	1
승하(昇退)	5	상	3136	1		1	1
시구(詩句)	3	중	3136	1		1	1
시급(時給)	5	상	3136	1		1	1
시언(時言)	5	상	3136	1		1	1
시호(諡號)	등급 외	상	3136	1		1	1
식감(食感)	등급 외	상	3136	1		1	1
식견(識見)	5	상	3136	1		1	1
신령(神靈)	3	중	3136	1		1	1
신예(新銳)	5	상	3136	1		1	1
신작(新作)	5	상	3136	1	1		1
신하(臣下)	2	하	3136	1		1	1
심사(深思)	7	상	3136	1		1	1
십상(十常)	5	상	3136	1	1		1
악질(惡質)	4	중	3136	1		1	1
안부(安否)	2	하	3136	1	1		1
암묵(暗默)	6	상	3136	1		1	1
암암리(暗暗裏)	5	상	3136	1		1	1
양반(兩班)	2	하	3136	1		1	1
양식(養殖)	3	중	3136	1		1	1
역마(驛馬)	3	중	3136	1		1	1
연대(年代)	3	중	3136	1	1		1
연서(戀書)	5	상	3136	1		1	1
연원(淵源)	5	상	3136	1		1	1
연필(鉛筆)	1	하	3136	1		1	1
완치(完治)	4	중	3136	1	1		1
외신(外信)	4	중	3136	1		1	1
외투(外套)	2	하	3136	1		1	1
요령(要領)	3	중	3136	1		1	1
우월(優越)	4	중	3136	1	1		1
원숙(圓熟)	6	상	3136	1		1	1
위생(衛生)	3	중	3136	1		1	1
위엄(威嚴)	3	중	3136	1		1	1
위정(爲政)	5	상	3136	1		1	1
유래(由來)	3	중	3136	1		1	1
유물(遺物)	2	중	3136	1		1	1
유심(有心)	5	상	3136	1		1	1
유증(遺贈)	6	상	3136	1		1	1
육식(肉食)	2	하	3136	1		1	1
육질(肉質)	5	상	3136	1		1	1
윤회(輪廻)	4	중	3136	1	1		1
융성(隆盛)	3	중	3136	1		1	1
은은(隱隱)	3	중	3136	1		1	1
음습(陰濕)	5	상	3136	1		1	1
음지(陰地)	4	중	3136	1		1	1
의기양양(意氣揚揚)	6	상	3136	1		1	1
이색(異色)	5	상	3136	1		1	1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이조(吏曹)	5	상	3136	1		1	1
이질(異質)	6	상	3136	1		1	1
이채(異彩)	5	상	3136	1		1	1
인형(人形)	2	하	3136	1	1		1
일독(一讀)	6	상	3136	1		1	1
일장(一場)	4	중	3136	1		1	1
입향(入鄕)	등급 외	상	3136	1		1	1
잉여(剩餘)	5	상	3136	1		1	1
자서(自敍)	7	상	3136	1		1	1
자작(自作)	4	중	3136	1		1	1
잠잠(潛潛)	7	상	3136	1		1	1
장려(獎勵)	3	중	3136	1		1	1
장문(長文)	5	상	3136	1		1	1
장염(腸炎)	4	중	3136	1		1	1
장인(丈人)	2	하	3136	1		1	1
재야(在野)	5	상	3136	1		1	1
재해석(再解釋)	6	상	3136	1		1	1
적성(適性)	3	중	3136	1		1	1
적중(的中)	3	중	3136	1		1	1
전매(專賣)	3	중	3136	1		1	1
절멸(絶滅)	5	상	3136	1		1	1
절정(絶頂)	4	중	3136	1		1	1
절제(節制)	4	중	3136	1		1	1
절체절명(絶體絶命)	6	상	3136	1		1	1
정독(精讀)	4	중	3136	1	1		1
정색(正色)	4	중	3136	1		1	1
정속(定速)	7	상	3136	1		1	1
정연(井然)	6	상	3136	1		1	1
정자(亭子)	3	중	3136	1		1	1
정적(政敵)	6	상	3136	1		1	1
제국(帝國)	2	하	3136	1		1	1
제자(弟子)	2	하	3136	1	1		1
조과(釣果)	7	상	3136	1		1	1
조미(調味)	5	상	3136	1		1	1
족적(足跡)	5	상	3136	1	1		1
종착(終着)	6	상	3136	1		1	1
주간(週刊)	4	중	3136	1		1	1
주석(註釋)	3	중	3136	1		1	1
중인(中人)	3	중	3136	1		1	1
중추(中樞)	5	상	3136	1		1	1
지세(地勢)	4	중	3136	1		1	1
지주(支柱)	4	중	3136	1		1	1
지천(至賤)	4	중	3136	1		1	1
진가(眞價)	4	중	3136	1		1	1
진수(眞髓)	2	상	3136	1	1		1
집전(執典)	5	상	3136	1	1		1
집정(執政)	5	상	3136	1		1	1
차출(差出)	5	상	3136	1		1	1
찬탈(篡奪)	5	상	3136	1		1	1
참상(慘狀)	4	상	3136	1	1		1
채색(彩色)	3	중	3136	1		1	1
천(川)	등급 외	하	3136	1		1	1
천부(天賦)	6	상	3136	1		1	1
청국장(淸麴醬)	4	중	3136	1		1	1
청정(淸淨)	5	상	3136	1		1	1
체중(體重)	2	하	3136	1		1	1
초간단(超簡單)	등급 외	중	3136	1		1	1
초특급(超特級)	5	상	3136	1		1	1
총화(總和)	4	중	3136	1		1	1
최장기(最長期)	6	상	3136	1		1	1
주기경(樞機卿)	4	중	3136	1		1	1
축일(祝日)	5	상	3136	1	1		1
충동(衝動)	4	중	3136	1	1		1
치사(恥事)	6	상	3136	1		1	1
쾌거(快擧)	5	상	3136	1	1		1
탁자(卓子)	3	하	3136	1		1	1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문화
탐닉(耽溺)	5	상	3136	1		1	1
파란(波瀾)	5	상	3136	1		1	1
판촉(販促)	5	상	3136	1	1		1
팔괘(八卦)	5	상	3136	1		1	1
편식(偏食)	4	하	3136	1		1	1
평전(評傳)	5	상	3136	1	1		1
폐단(弊端)	4	중	3136	1		1	1
폭정(暴政)	5	상	3136	1		1	1
풍류(風流)	4	중	3136	1		1	1
풍선(風船)	1	하	3136	1		1	1
풍수(風水)	3	중	3136	1		1	1
필통(筆筒)	1	하	3136	1		1	1
핍박(逼迫)	5	상	3136	1		1	1
하급(下級)	5	중	3136	1		1	1
하인(下人)	2	하	3136	1		1	1
학급(學級)	2	하	3136	1		1	1
학부형(學父兄)	4	중	3136	1		1	1
학예(學藝)	2	하	3136	1		1	1
학창(學窓)	4	중	3136	1		1	1
한탄(恨歎)	4	중	3136	1		1	1
합당(合當)	5	상	3136	1		1	1
해산(海産)	7	상	3136	1		1	1
해탈(解脫)	4	중	3136	1		1	1
현미(玄米)	2	하	3136	1		1	1
현미(顯微)	7	상	3136	1		1	1
호의(好意)	4	중	3136	1		1	1
혹사(酷使)	5	상	3136	1		1	1
혼인(婚姻)	2	하	3136	1		1	1
화사(華奢)	4	중	3136	1		1	1
화신(化身)	3	중	3136	1	1		1
환장(換腸)	5	상	3136	1		1	1
황홀(恍惚)	5	상	3136	1		1	1
회(膾)	등급 외	상	3136	1		1	1
횡행(橫行)	5	상	3136	1		1	1
효시(嚆矢)	5	상	3136	1		1	1
후기(後期)	3	중	3136	1		1	1
훈계(訓戒)	4	중	3136	1		1	1
훈훈(薰薰)	7	상	3136	1		1	1
휴게(休憩)	7	중	3136	1		1	1
희한(稀罕)	5	상	3136	1		1	1

바) 스포츠·연예(51개)

<표 77>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스포츠·연예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스포츠·연예
명복(冥福)	3	상	2432	5		5	5
부검(剖檢)	4	중	2432	5		5	5
무실점(無失點)	5	상	2684	4	2	2	4
빙속(氷速)	등급 외	중	2684	4	4		4
천당(天堂)	4	중	2684	4		4	4
지옥(地獄)	3	중	2785	3		3	3
최상(最上)	4	중	2785	3	2	1	3
부고(訃告)	4	상	2933	2		2	2
삼진(三振)	5	상	2933	2	2		2
여왕(女王)	3	하	2933	2	2		2
여제(女帝)	6	상	2933	2	2		2
역투(力鬪)	7	상	2933	2		2	2
전력(全力)	등급 외	중	2933	2		2	2
타선(打線)	5	상	2933	2	1	1	2
투구(投球)	2	중	2933	2	1	1	2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스포츠·연예
투수(投手)	3	중	2933	2	2		2
피임(避妊)	3	중	2933	2		2	2
호투(好投)	5	상	2933	2	2		2
경기(競技)	1	하	3136	1		1	1
동계(冬季)	3	중	3136	1	1		1
발인(發靛)	4	상	3136	1		1	1
부지불식(不知不識)	5	상	3136	1		1	1
불세출(不世出)	5	상	3136	1		1	1
비보(悲報)	4	중	3136	1		1	1
빙판(氷板)	4	중	3136	1	1		1
석별(惜別)	4	중	3136	1	1		1
수(繻)	등급 외	상	3136	1	1		1
슬하(膝下)	4	중	3136	1		1	1
승(勝)	등급 외	중	3136	1	1		1
시시비비(是是非非)	5	상	3136	1		1	1
악수(惡手)	등급 외	상	3136	1		1	1
안타(安打)	4	중	3136	1	1		1
야구(野球)	1	하	3136	1	1		1
억측(臆測)	5	상	3136	1		1	1
예능(藝能)	4	하	3136	1		1	1
유작(遺作)	4	중	3136	1		1	1
육체(肉體)	3	중	3136	1		1	1
은반(銀盤)	5	상	3136	1	1		1
일장춘몽(一場春夢)	5	상	3136	1		1	1
장지(葬地)	5	상	3136	1		1	1
전언(傳言)	5	상	3136	1		1	1
지기(知己)	6	상	3136	1		1	1
착실(着實)	5	상	3136	1		1	1
처치(處置)	5	상	3136	1		1	1
추격(追擊)	5	상	3136	1	1		1
추론(推論)	4	중	3136	1		1	1
추첨(抽籤)	4	중	3136	1	1		1
한지(韓紙)	3	중	3136	1		1	1
향년(享年)	4	상	3136	1		1	1
화장(火葬)	5	상	3136	1		1	1
후발(後發)	5	상	3136	1		1	1

사) 과학·기술·건강(58개)

<표 78>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과학·기술·건강 영역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과학·기술· 건강
산행(山行)	5	중	1525	11		11	11
배양(培養)	4	중	2432	5	5		5
불멸(不滅)	4	중	2432	5	5		5
토성(土星)	2	하	2432	5	5		5
미인(美人)	4	중	2684	4		4	4
취(醉)	등급 외	상	2684	4		4	4
혜성(彗星)	2	하	2684	4	4		4
휴업(休業)	4	중	2684	4	4		4
만추(晩秋)	5	상	2785	3		3	3
수확(收穫)	2	하	2785	3		3	3
채소(菜蔬)	2	하	2785	3		3	3
포도(葡萄)	2	하	2785	3		3	3
교정(校庭)	3	중	2933	2		2	2
대소변(大小便)	5	하	2933	2		2	2
여간(如干)	2	중	2933	2		2	2
외숙모(外叔母)	4	하	2933	2		2	2
은행(銀杏)	2	하	2933	2		2	2
전학(轉學)	2	하	2933	2		2	2
창피(猖披)	4	하	2933	2		2	2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과학·기술· 건강
처녀(處女)	2	하	2933	2		2	2
험(險)	등급 외	상	2933	2	1	1	2
단아(端雅)	7	상	3136	1		1	1
도립(道立)	5	상	3136	1	1		1
독사진(獨寫眞)	4	중	3136	1		1	1
무능력(無能力)	4	중	3136	1		1	1
박자(拍子)	2	하	3136	1		1	1
변덕(變德)	4	중	3136	1		1	1
복용(服用)	4	중	3136	1		1	1
부착(附着/付着)	5	상	3136	1	1		1
산소(酸素)	2	하	3136	1		1	1
산후(産後)	5	상	3136	1		1	1
성화(成火)	3	중	3136	1		1	1
수신(受信)	4	중	3136	1		1	1
수화(受話)	7	상	3136	1		1	1
애지중지(愛之重之)	4	중	3136	1		1	1
액자(額子)	3	중	3136	1		1	1
약주(藥酒)	4	중	3136	1		1	1
우측(右側)	4	중	3136	1	1		1
원제(原題)	5	상	3136	1	1		1
음색(音色)	3	중	3136	1		1	1
음정(音程)	4	중	3136	1		1	1
이목구비(耳目口鼻)	3	중	3136	1		1	1
자격지심(自激之心)	4	중	3136	1		1	1
자정(子正)	3	중	3136	1		1	1
전이(轉移)	5	상	3136	1	1		1
점화(點火)	3	중	3136	1	1		1
주방(廚房)	4	하	3136	1		1	1
주저(躊躇)	4	중	3136	1		1	1
중매(仲媒)	3	중	3136	1		1	1
진수성찬(珍羞盛饌)	4	중	3136	1		1	1
취급(取扱)	2	중	3136	1	1		1
친정(親庭)	2	하	3136	1		1	1
퇴짜(退字)	4	중	3136	1		1	1
하필(何必)	3	중	3136	1		1	1
혼기(婚期)	5	상	3136	1		1	1
화창(和暢)	6	상	3136	1		1	1
황송(惶悚)	5	상	3136	1		1	1
흑백(黑白)	2	하	3136	1	1		1

3) 고빈도 필수 어휘(100순위)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중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로 100순위에 해당하는 개념어는 다음과 같다.

<표 79>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고빈도 필수 어휘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대(對)	등급 외	중	1	1498	750	748	846	404	113	68	56	8	3
대통령(大統領)	1	하	2	1271	803	468	915	241	47	45	21		2
정부(政府)	3	중	3	1020	690	330	619	211	126	61	3		
위(爲)	등급 외	상	4	772	338	434	296	288	87	63	27	5	6
문제(問題)	1	하	5	750	329	421	388	278	45	20	17		2
전(前)	1	하	6	749	314	435	297	351	25	32	28	3	13
후보(候補)	3	중	7	736	320	416	569	130	26	2	9		
의원(議員)	5	상	8	722	313	409	613	81	11	13	4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종이	인터넷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정치(政治)	2	하	9	535	223	312	333	132	13	16	41		
중(中)	등급 외	하	10	517	290	227	203	185	51	35	32	5	6
통(通)	등급 외	중	11	432	211	221	208	137	41	25	10	7	4
청와대(靑瓦臺)	4	하	12	406	285	121	351	44	10	1			
대선(大選)	4	중	13	377	172	205	261	97	11	1	6	1	
장관(長官)	2	하	14	372	292	80	259	67	24	21	1		
사실(事實)	1	하	15	352	141	211	147	137	31	12	21		4
대표(代表)	2	하	16	350	167	183	258	61	19	5	5	1	1
사건(事件)	1	하	17	334	145	189	199	103	9	4	10	8	1
내용(內容)	1	하	18	319	148	171	122	137	28	19	9	4	
상황(狀況)	1	하	19	311	123	188	152	102	24	16	14	1	2
주장(主張)	3	중	20	306	122	184	161	87	11	23	18	4	2
발표(發表)	2	하	21	296	190	106	159	94	24	14	3		2
의혹(疑惑)	4	중	22	293	166	127	194	92	5			2	
이후(以後)	1	하	23	292	165	127	139	79	39	14	14	5	2
사회(社會)	1	하	24	283	110	173	78	111	65	6	21		2
시작(始作)	1	하	25	281	77	204	82	100	30	18	42	2	7
당시(當時)	1	하	26	275	79	196	119	110	16	10	17	1	2
지금(如今)	1	하	27	274	78	196	102	89	24	6	46		7
핵(核)	등급 외	상	28	258	116	142	68	32	12	145			1
책임(責任)	3	중	29	253	120	133	162	55	21	9	5		1
인사(人事)	등급 외	중	30	248	152	96	216	26	2	1	3		
총장(總長)	2	하	31	246	193	53	158	85	3				
필요(必要)	1	하	32	245	133	112	125	64	25	14	16	1	
수사(搜查)	2	중	33	243	108	135	105	132	1	1	1	3	
사업(事業)	1	하	34	233	92	141	59	138	26	5	2		3
대화(對話)	1	하	35	232	170	62	179	30	1	17	3		2
현재(現在)	1	하	35	232	110	122	97	78	31	15	6	2	3
당선(當選)	2	하	37	229	162	67	196	26	3	3	1		
요구(要求)	2	하	38	221	123	98	150	48	16	3	3	1	
선거(選舉)	2	하	39	220	87	133	138	76	2	1	3		
정책(政策)	3	중	40	219	130	89	113	58	29	18	1		
비판(批判)	2	하	41	216	75	141	135	54	10	9	8		
대변(代辯)	5	상	42	212	139	73	180	17	3	12			
후(後)	등급 외	하	43	211	93	118	91	62	24	13	6	3	12
시민(市民)	2	하	44	210	34	176	52	107	8	3	38	2	
사용(使用)	1	하	45	209	88	121	71	69	56	3	8	1	1
확인(確認)	3	중	46	208	106	102	89	96	15	5	3		
직원(職員)	2	하	47	207	106	101	58	125	14	3	7		
입장(立場)	3	중	48	203	90	113	136	38	15	11	2	1	
시간(時間)	1	하	48	203	71	132	78	70	14	15	15	5	6
조사(調查)	1	하	50	202	139	63	96	78	12	11	3	2	
참여(參與)	3	중	51	200	113	87	75	72	39	11	1		2
언론(言論)	3	중	52	198	63	135	78	88	16	7	7	2	
영화(映畵)	1	하	53	194	1	193	75	97			20		1
점(點)	3	하	54	193	61	132	84	72	11	10	12	3	1
진행(進行)	2	하	55	191	75	116	89	71	13	10	7	1	
회의(會議)	3	중	55	191	124	67	123	18	29	21			
분석(分析)	4	중	57	190	96	94	58	101	26	2	1	2	
오후(午後)	1	하	57	190	74	116	86	74	11	10	4	3	2
포함(包含)	3	중	57	190	132	58	92	64	18	11	3		2
이상(以上)	1	하	60	186	105	81	77	47	39	11	6	2	4
보도(報道)	2	하	60	186	91	95	77	84	6	15	1	2	1
자신(自身)	1	하	62	185	63	122	74	61	20	15	12	2	1
정도(程度)	1	하	63	184	64	120	58	65	24	9	24		4
학교(學校)	1	하	63	184	97	87	8	122	3	13	34		4
논란(論難)	5	상	65	182	96	86	99	64	11	2	3		3
중요(重要)	3	하	65	182	73	109	84	55	20	10	11	1	1
전(傳)	등급 외	상	67	181	124	57	98	41	12	18	6	5	1
최근(最近)	2	하	67	181	124	57	99	47	19	7	9		
정권(政權)	2	중	69	179	92	87	104	49	7	8	11		
지적(指摘)	4	중	70	178	81	97	77	68	24	3	3	2	1
설명(說明)	1	하	71	172	89	83	94	49	17	4	6	2	
지방(地方)	1	하	72	170	92	78	114	50	3		2		1

필수 어휘	어휘 등급 (김광해)	최종 난도	빈도 순위	총 빈도	중어	인터넷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활동(活動)	1	하	73	169	70	99	64	59	14	10	19	2	1
반대(反對)	2	하	74	168	65	103	81	64	19	2	1		1
대상(對象)	4	중	75	167	88	79	66	65	22	9	3		2
추진(推進)	4	중	76	163	126	37	88	40	26	9			
평가(評價)	2	하	76	163	88	75	97	38	10	8	10		
이유(理由)	1	하	78	162	38	124	53	67	8	10	21	1	2
지역(地域)	1	하	78	162	80	82	54	66	24	10	8		
세계(世界)	1	하	80	160	94	66	25	35	32	40	11	13	4
당(黨)	등급 외	상	81	159	58	101	126	9	4	19	1		
위원(委員)	2	하	81	159	93	66	127	29	2	1			
오전(午前)	1	하	83	158	103	55	88	42	6	12	2	6	2
회사(會社)	1	하	84	157	95	62	25	54	64		12	1	1
지원(支援)	5	상	85	155	84	71	49	57	25	18	4		2
여야(與野)	6	상	85	155	86	69	136	9	7	2	1		
조치(措置)	4	중	85	155	107	48	88	45	8	13	1		
역사(歷史)	2	하	88	154	61	93	53	83	4	3	9	2	
논의(論議)	4	중	89	153	89	64	90	37	16	9		1	
직접(直接)	2	하	89	153	83	70	93	36	11	8	4		1
주민(住民)	2	하	91	152	42	110	28	92	20	7	5		
의견(意見)	1	하	92	151	75	76	103	32	9	5	2		
비서(祕書)	3	중	93	149	106	43	127	17	1	4			
운영(運營)	3	중	94	147	84	63	86	42	11	6	2		
노동(勞動)	2	하	95	146	56	90	35	65	3	7	36		
해결(解決)	2	하	96	145	73	72	73	52	9	9	2		
방안(方案)	3	중	97	143	112	31	91	25	22	4		1	
정보(情報)	2	하	97	143	70	73	87	33	16		3		4
시장(市長)	3	하	99	142	16	126	72	66	2	2			
참석(參席)	4	중	99	142	95	47	85	35	7	12	1	1	1

4)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과 기존에 개발된 교과서 한자어 목록을 비교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민현식(2003)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목록, 민현식(2004)에서 제시한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초·중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한자어 개수는 3,440개이다. 이를 민현식 외(2003)에서 개발한 초등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 비교한 결과, 2,016개가 중복되었고, 민현식(2004)에서 개발한 중학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는 2,694개가 중복되었다. 이는 전체 3,440개 어휘 중 58.6%, 78.3%가 중복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보다는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와 중복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한자어와 중학 교과서 한자어에 모두 중복되는 한자어는 1,949개로, 전체 목록의 56.7%가 초·중학교 교과서 한자어와 중복됨을 확인하였다.

<표 80> 교과서 한자어 목록과의 비교 결과

	비교 대상 목록	중복 어휘량	
		개수(개)	비율(%)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한자어 3,440개	민현식 외(2003), 초등 교과서 한자어 목록	2,016	58.6
	민현식 외(2004), 중학 교과서 한자어 목록	2,694	78.3
	민현식 외(2003), 초등 교과서 한자어 목록	1,949	56.7
	민현식 외(2004), 중학 교과서 한자어 목록		

나) 교과서 한자 목록과의 비교²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한자 수는 총 1,632개이다. 이는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와 1,503개가 중복되며,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와는 1,597개가 중복된다. 비율로 보자면, 전체 1,632개 중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와는 92.1%, 중학교 교과서 한자와는 97.9%가 일치한다.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보다 중학교 교과서 한자와의 중복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비교하였을 때 1,273개가 일치하여 약 78.0%의 중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휘 목록의 한자는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보다는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한자 목록과 좀 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초등 교과서 한자와 중학 교과서 한자에 모두 중복되는 한자는 1,494개로, 전체 목록의 91.5%가 초·중학교 교과서 한자와 중복됨을 확인하였고, 여기에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목록까지 더하여 총 세 개의 목록과 일치되는 한자 수는 1,240개로 전체 목록의 약 76.0%임을 확인하였다.

<표 81> 교과서 한자 목록과의 비교 결과

	비교 대상 목록	중복 한자량	
		개수(개)	비율(%)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개별 한자 1,632개	민현식 외(2003), 초등 교과서 한자 목록	1,503	92.1
	민현식 외(2004), 중학 교과서 한자 목록	1,597	97.9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1,273	78.0
	민현식 외(2003), 초등 교과서 한자 목록	1,494	91.5
	민현식 외(2004), 중학 교과서 한자 목록		
	민현식 외(2003), 초등 교과서 한자 목록	1,240	76.0
	민현식 외(2004), 중학 교과서 한자 목록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20) 컴퓨터의 한자 폰트 인식의 차이로 일부 오차 가능성이 있다.

6.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가. 어휘 교육 모형의 원리

1) 기본 개발 방향

- NIE를 활용한 자기주도적인 어휘 학습의 단계 구성
- 대상과 학습 목적에 따른 맞춤형 어휘 교육 자료 시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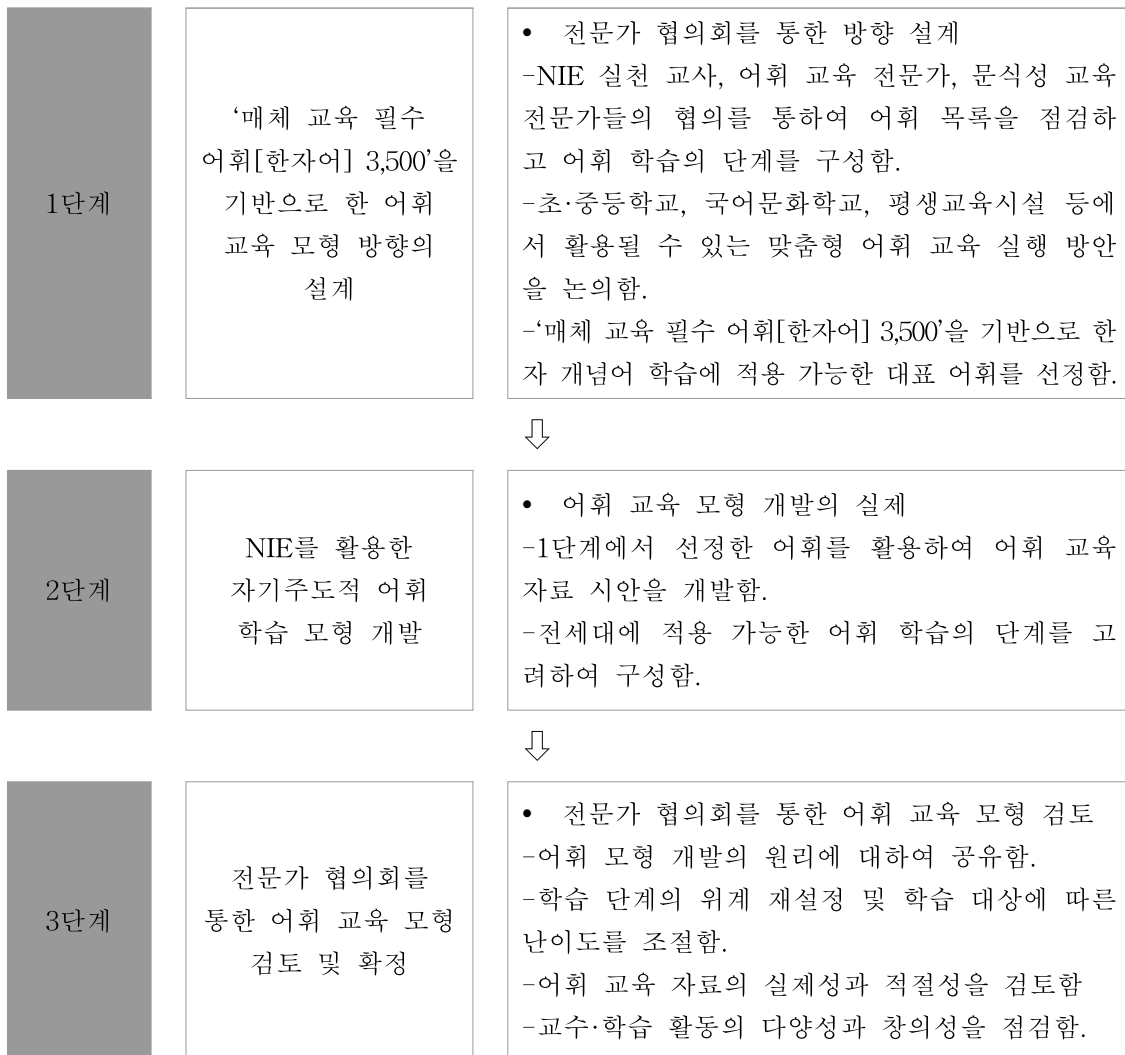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지향하고 국민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앞서 구축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NIE 활용 교육을 통해 구현된 어휘 교육 모형’이나 그것의 효과성을 분석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단순 수업 사례들에 대한 나열이나 신문의 어휘를 활용한 학습 활동만을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와 같이 ‘어휘 교육’에 특화된 NIE 교육 모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신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육용 어휘 목록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학습 목적과 대상에 따른 어휘 학습의 단계를 구성하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시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단계에서는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 목적과 대상에 따라 어휘 학습의 단계를 구성하고 전세대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휘 교육 자료의 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NIE를 활용한 어휘 학습 모형을 구축하되, 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국어문화학교, 평생교육시설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어휘 교육 실행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어디에서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휘 교육 모형의 실현을 위하여 학습 단계의 수준을 적절성을 고려하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의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자료의 실제성과 활동의 창의성에 초점을 두었다.

개발된 어휘 교육 모형에 있어서는 NIE 실천 교사, 어휘 교육 전문가, 문식성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림 9]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 개발의 절차

2) 세부 개발 방향

본 연구에서 구축한 어휘 목록은 실제 신문에 출현한 한자어 중심의 개념어를 다루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한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첫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휘의 뜻과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암기하게 하는 형태의 주입식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어휘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상황에서 어휘가 사용되는 모습을 이해하는 자기주도 학습

방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텍스트인 신문을 활용하여 실용적이고 현장성이 강한 어휘의 활용 양상을 제시하고, 교과서나 책에 등장하는 학습 어휘를 이해하는 선을 넘어 시의성 있고 활용도가 높은 자기주도적 어휘 학습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휘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 파생적인 의미, 확장적인 의미를 학습하고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양상이나 실생활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화용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인 어휘력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넷째, 어휘력 고양을 통해 사회 통용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천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어휘 교육 모형은 한자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각각의 한자어를 구성하는 낱글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들이 결합된 어휘(한자어)를 학습하는 형태의 교육 모형 ‘제1안: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과, 각각의 어휘들이 등장하는 신문의 주제 영역 안에서 해당 어휘들이 활용되는 다양한 양상을 제시하고, 그들의 다양한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모형 ‘제2안: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제1안’의 경우, 한자 생산성에 초점을 둔 모형이라면, ‘제2안’은 한자어의 생산성에 초점을 둔 모형이다.

교육 모형 ‘제1안’에서는 어휘를 구성하는 각 글자이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글자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와 그 기원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한자의 기원과 한자어의 어원을 설명함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교육 모형 ‘제2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학습 대상 어휘 자체가 가지는 생산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어휘의 양상을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 모형 전체에서 어휘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제시하여 그것이 가진 고유하고 지시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이해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정보 텍스트인 신문 속에서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학습의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어휘를 머릿속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구성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휘 목록이나 교육 모형은 국민 문식성의 신장이라는 큰 목표 하에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단계에 따른 활동의 심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종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의 검색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활동에서부터 어휘 학습 후에 직접 자신의 언어로 예문을 만들도록 하는 심화 활동까지 포함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어휘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나. 어휘 교육 모형의 특징

1) 수준의 적절성

본 연구는 국민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는 전세대를 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의 단계에 있어 다양한 층위를 고려함으로써 모형의 수준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휘의 있는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학습활동에서부터 학습한 어휘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심화 활동까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단계의 위계성을 강조하였다. 하나의 어휘를 학습하기 위하여 기본 학습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응용 학습 단계까지를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초급 수준의 텍스트와 중·고급 수준의 텍스트를 적절히 혼용하여 제시하였다. 또, 학습하고자 하는 어휘가 포함된 예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문장에서부터 문단, 신문 기사 전문에 이르기까지 제시문의 길이와 수준을 안배함으로써 수준의 적절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2) 자료의 실제성

교육용 필수 어휘 목록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실제 신문 기사에 출현한 어휘들을 밑자료로 구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 모형에서도 실제 신문 기사 텍스트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종이신문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신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신문에 제시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신문 기사 자료를 활

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텍스트 난이도를 고려하여 안내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신문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복합 양식 텍스트라는 점에서 인터넷신문의 기사나 인터넷사전의 글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어휘 목록이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여부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제시하거나 사전의 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 학습자들의 사전 찾기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3) 활동의 창의성

기존의 어휘 학습 자료들은 텍스트 중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동기유발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휘의 의미를 떠올리거나 어휘의 실제 사용 및 활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 사진이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때 사용되는 사진들은 실제 신문 기사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자료의 실제성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모형이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기 전에 충분히 의미를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적극 활용하거나, 어휘의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 지도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휘들의 미묘한 어감 차이와 맥락 안에서 쓰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에서 해당 어휘가 사용된 속담이나 격언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각 어휘들이 국민들의 인식과 사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자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생산성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인 동음이의어의 학습을 제시하였다. 같은 소리를 지니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해당 어휘에 대한 한자가 제시되지 않아도 사용된 맥락을 통하여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 어휘 교육 모형의 실제

앞서 기술한 원리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NIE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어휘 교육 모형’은 ‘1) 필수 어휘 교육 모형: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 ‘2) 필수 어휘 교육 모형: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의 제시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필수 어휘 교육 모형: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

단원의 구성

- 소단원 (1)
- 소단원 (2)

개념어 구성
글자 학습

1. 어휘 고리 연상하기
2. 어휘 뿌리 찾기
3. 어휘 품은 글 만나기
4. 옛말 속에서 어휘 의미 추적하기
5. 짧은 글짓기로 어휘력 키우기

- 소단원(3)

응용 어휘 학습

1. 어휘 의미 추측하기
2. 어휘 의미 이해하기
3. 어휘 지도 만들기
4. 세상 속 어휘 찾기

- 대단원 정리

- 숨은 낱말 찾기

대단원 1. 명분(名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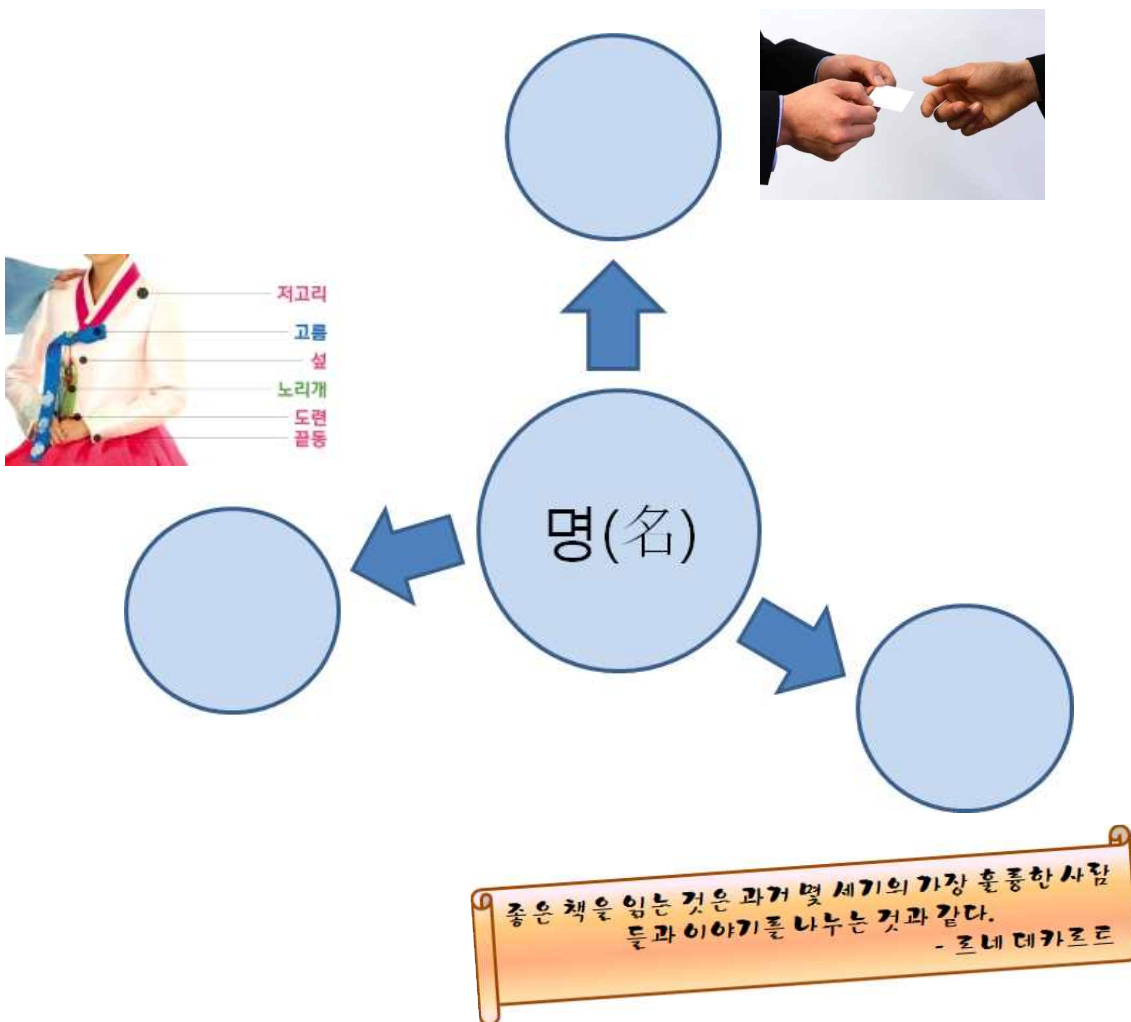


- (1) 명(名)
- (2) 분(分)
- (3) 명분(名分)

소단원 (1) 명(名)

1 어휘 고리 연상하기

‘명 명 명’자로 시작하는 말은? 제시된 그림을 참고하여 ‘명’자로 시작하는 다양한 어휘를 찾아봅시다.



2 어휘 뿌리 찾기

글자의 뿌리에 대한 설명을 읽고, 글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명(名) - 저녁(夕)에 입으로 찾음(口)>

명(名)자는 저녁 석(夕)과 입구(口)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녁 석(夕)자는 갑골문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 월(月)’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명(名)’의 의미는 저녁에 입으로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夕’이 석(夕)자가 아니고 입구(口)를 90도 회전한 모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名)’의 의미는 저녁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서로 부른다는 뜻이 됩니다. 저녁에 입으로 찾든 입으로 서로 부르든 간에, 명(名)의 핵심적 의미는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명(名)’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부르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명(名)자가 들어간 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칭(名稱)’, ‘명성(名聲)’, ‘명예(名譽)’, ‘명문(名門)’ 등이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어휘들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²¹⁾

21)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3 어휘 품은 글 만나기

다음은 신문기사에 나온 글입니다. 글의 문맥을 참고하여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보기>에 있는 의미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찾아 해당 기호를 써 봅시다.

<보기>

- (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 (나)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
- (다) 1. 이름 있는 문벌. 또는 훌륭한 집안. 2. 이름난 좋은 학교
- (라)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

(1)

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 법학과 출신에, 추앙받는 총리의 최측근이었고, 장관을 역임했으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세계적 명성의 대작가가 안면 습진과 싸우며 힘들게 집필한 초등학교 2,3학년, 저학년 용 교재가 채택될 가능성은 고작 30%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그는 교과서 집필 경험이 풍부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에게도 그리스의 교과서 검정 절차는 공정하고 까다로운 관문이었다,

- 오마이 뉴스, 20131001, 사회.

의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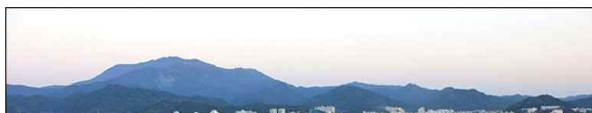
(2)

세상에, 광주에도 '한강'이 흘렀었다고?

[광주천 따라가기①] 지금은 셋강 중 하나일 뿐이지만...

13.01.06 21:51 | 최종 업데이트 13.02.10 06:18 | 이주빈(clubnlp) ▼

크게 | 작게 | 인쇄 | URL줄이기 | 스크랩 | f 3 | 8 | 0 | 0



광주천이란 **명칭**은 1916년 6월 일제가 전국의 하천 명칭을 정리해 고시하면서부터 사용됐다. 일제는 전국의 주요하천을 조사하면서 "하천 이름을 정하기 곤란할 때는 그 발원지가 되는 유명한 산이나 하천이 통과하는 큰 고을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라 정해진 이름이 바로 '광주천'이다.

- 오마이 뉴스, 20130107. 문화.

의미: ()

(3)

■ 수상자 간담회

“봉사에 더 많은 투자 지방자치 발전 기여”

16일 열린 제16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수상자들은 대상의 명예에 걸맞게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시상식 직후 열린 수상자 간담회에서 김시성 의장과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수상자들은 “자치봉사대상이 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일반행정부문 수상자 윤갑식 태백시 한국청소년안전체험 관장은 “도민들이 인정해 주신 만큼 다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

치봉사대상의 의미가 공직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치가 더욱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교육행정부문 엄기훈 춘천 한샘고 교사는 “봉사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하면 할수록 학생들이 어르신, 장애우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뻐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방행정부문 황재식 태백소방서 소방위는 “20년 가까이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고 느꼈다”며 “있는 동안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부문 신익수 원주경찰서 경위는 “대상 수상자로서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것 같다”며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봉사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석 사장은 “민의의 대표기

- 강원도민일보, 20140917.

의미: ()

(4)

36세 한국 과학자, <네이처> 이어 <셀>에 논문 게재

[해외리포트] 구본경 박사, 줄기세포 논문 주목 받아...영국 캠브리지에 새 둥지

그는 “과학자라면 **명성**을 쫓기보다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하다보면 새로운 기회는 얼마든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 뉴스, 20130106, 국제.

의미: ()

4 옛말 속에서 어휘 의미 추적하기

다음은 ‘명(名)’자로 시작하는 어휘들과 관련된 관용구와 속담입니다. 각각의 관용구와 속담을 읽으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고, 어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봅시다.

<보기>

명칭(名稱) 명문(名門) 명성(名聲) 명예(名譽)

(1) 명칭

[속담] 초록은 동색

▶ 명칭은 다르나 따져 보면 한가지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

[속담] 돌절구도 밑 빠질 때가 있다

▶ □□거족이라도 영원히 몰락하지 않는 법은 없다는 말.

(3) □□

[속담] 울음 큰 새라

▶ 울음만 컸지 불품없는 새라는 뜻으로, □□은 자자하나 실제로는 보잘 것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

[관용구] 땅에 떨어지다.

▶ □□나 권위 따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다.

5 짧은 글짓기로 어휘력 키우기

다음은 <명칭>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한 내용입니다. ‘명’이 들어간 다음 어휘들의 뜻을 짐작하여 빈칸에 그 뜻을 적어 봅시다. 이 중에서 1~2개의 어휘를 선택하여 짧은 글을 지어봅시다.

※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화면 크기 + 기본 -

인쇄

명칭02 발음 듣기 (名稱)

활용 정보:

「명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부르는 이름.

① 명칭을 붙이다/새 회사의 명칭을 공모하였다./거의가 부동산 소개소라는 명칭으로 바뀐 복덕방을 몇 군데 둘러보니... <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목록 보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명단 (名單) 이름명/홀단	명망 (名望) 이름명/바랄망	명사 (名士) 이름명/선비사	명장 (名將) 이름명/으뜸 벼슬장



* 내가 선정한 어휘:

* 짧은 글짓기:

* 내가 선정한 어휘:

* 짧은 글짓기:

소단원 (2) 분(分)

1 어휘 고리 연상하기

‘분 분 분자’로 시작하는 말은? 제시된 그림을 참고하여 ‘분’자를 활용한 다양한 어휘를 찾아봅시다.

$\frac{2}{5} = \frac{1}{3} + \frac{1}{15}$

2 어휘 뿌리 찾기

다음 글을 읽고 ‘분(分)’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분(分) - 나누면 불어난다.²²⁾

분(分)자는 ‘여덟 팔(八)’자와 ‘칼 도(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덟 팔(八)’자는 원래 ‘나눈다’, ‘불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一)를 나누면(八) 둘(二)로 불어나고, 둘(二)을 또 나누면(八) 넷(四)으로 불어나입니다. 이때 나누는 도구가 바로 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나눌 분(分)’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는 ‘네 분수(分數)를 알고 행동하라’라고 할 때의 ‘분수(分數)’가 있는데, 실은 예부터 ‘푼수(分數)’라고 해 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네 푼수(分數)를 좀 알아라.’ 할 때의 ‘푼수(分數)’는 곧, ‘너의 팔자(八字)를 좀 알아라’라고 할 때의 ‘팔자(八字)’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 ‘푼수(分數)’나 ‘팔자(八字)’라는 말도 비록 오랫동안 계급적, 관념적 지배를 합리화 시키는 용어로 쓰여 오기는 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좋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크게 불리기(汾: 크게 불릴 분) 위해서라도 저마다의 나누어 사는 ‘푼수(分數)’를 알아야 하는 것이며, 모두가 크게 물결치기(汎: 물결칠 팔) 위해서라도 저마다의 팔자(八字)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처럼 ‘나누는(八) 것이 곧 불어나는(分) 길’이라는 뜻을 ‘분(分)’이라는 글자에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分)’자가 들어가는 어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분(部分)’, ‘지분(持分)’, ‘덕분(德分)’, ‘신분(身分)’ 등이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어휘들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22)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웹진 한겨레(2009.11), 한자원 62.

3 어휘 품은 글 만나기

다음은 신문기사에 나온 글입니다. 글의 문맥을 참고하여 밑줄 친 어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보기>에 있는 의미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찾아 해당 기호를 써 봅시다.

<보기>

- (가)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 또는 그런 비율. '몫'으로 순화.
- (나)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
- (다)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
- (라)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1)

한국가스공사, 멕시코 **지분**투자사업 배당금 61억8000만원 받아

[해럴드경제] | 2014-11-12 | 뉴스 | 982자

[해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한국가스공사가 멕시코 지분투자사업 배당금 61억8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가스공사는 오는 14일 2013년도 멕시코 만사니요 LNG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575만달러(한화 61억8000만원) 배당금이 입금된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8~2009년께 이곳에 4880만달러(한화 623억원)를 투자했었다.

- 해럴드경제, 20141112.

의미: ()

(2)

사회
사회일반

수상한 **ㄱ**씨, 국정원 김씨보다 '오유'에 글 도배

ㄱ씨가 의도적으로 **신문** 노출을 피하면서 대량의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ㄱ씨가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30여개 아이디의 아이디피 변동 상황을 보면, ㄱ씨는 한번에 5~6개의 아이디로 게시글 작성 및 추천·반대 표시를 한 뒤, 다음날에는 다른 장소에서 또다른 5~6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게시글 작성자의 신문 노출을 피하는 동시에 혼자서 여러 아이디를 동시에 활용해 '물량공세'를 펼친 셈이다.

- 한겨레, 20130206, 사회.

의미: ()

(3)

chosun.com 사회

뉴스 ▾ 오피니언 ▾ 경제 ▾ 스포츠 ▾ 연예 ▾ 라이프 ▾

사회 ▾
환경·재해 이재준 기자 ▾

기사 100자평(0) 日文

입력 : 2013.01.22 09:00 | 수정 : 2013.01.22 09:48

쓰레기 대란 임시대책 마련
市 "음폐수 하루 450t 추가처리... 1년까지만 가능"

음식 쓰레기 처리 민간 업체들이 음식 쓰레기 폐수(음폐수) 처리를 하지 못해 탱크에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서울시가 21일부터 업체에 대한 긴급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민간 업체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은 임시로 기존의 분뇨 처리 시설을 가동해 당장의 음식 쓰레기 대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20130122, 사회.
의미: ()

(4)

JOINS JTBC | 중앙일보

① **중앙일보 뉴스** 경제 | 라이프 | 오피니언 | 핫이슈 | 포토

전체 정치 사회 지구촌 문화 지역 스포츠 연예 영미뉴스 블로그뉴스

전체 |

인류가 빚진 헬라세포 ... 불멸의 삶 2막 열리다

[중앙일보] 입력 2013.08.08 02:01 / 수정 2013.08.12 04:49

전 세계에 퍼진 헬라세포는 의학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그간 동물실험만 해오던 과학자들이 인간의 세포를 이용해 의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껏 5000만t이 넘는 헬라세포가 배양됐다. 관련 연구 논문만 현재까지 7만 건 넘게 나왔다. 1952년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된 것도, 2008·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연구도 헬라세포 **덕분**이었다.

- 중앙일보, 20130526, 과학.
의미: ()

4 옛말 속에서 어휘 의미 추적하기


다음은 ‘분(名)’자로 끝나는 어휘들과 관련된 관용구와 속담입니다. 각각의 관용구와 속담을 읽으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고, 어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봅시다.

<보기>

부분(部分) 지분(持分) 신분(身分) 덕분(德分)


(1) 부분

[관용구] 말꼬리(를) 잡다

 남의 말 가운데서 잘못 표현된 부분의 약점을 잡다.


(2) □□

[예문] 자신의 □□을/를 정리했다.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가 소유하는 몫을 정리하다.


(3) □□

[관용구] 팔자(를) 고치다.

 이 낮은 사람이 지위를 얻어 판사람처럼 되다.

(4) □□

[속담] 사또 □□에 나팔 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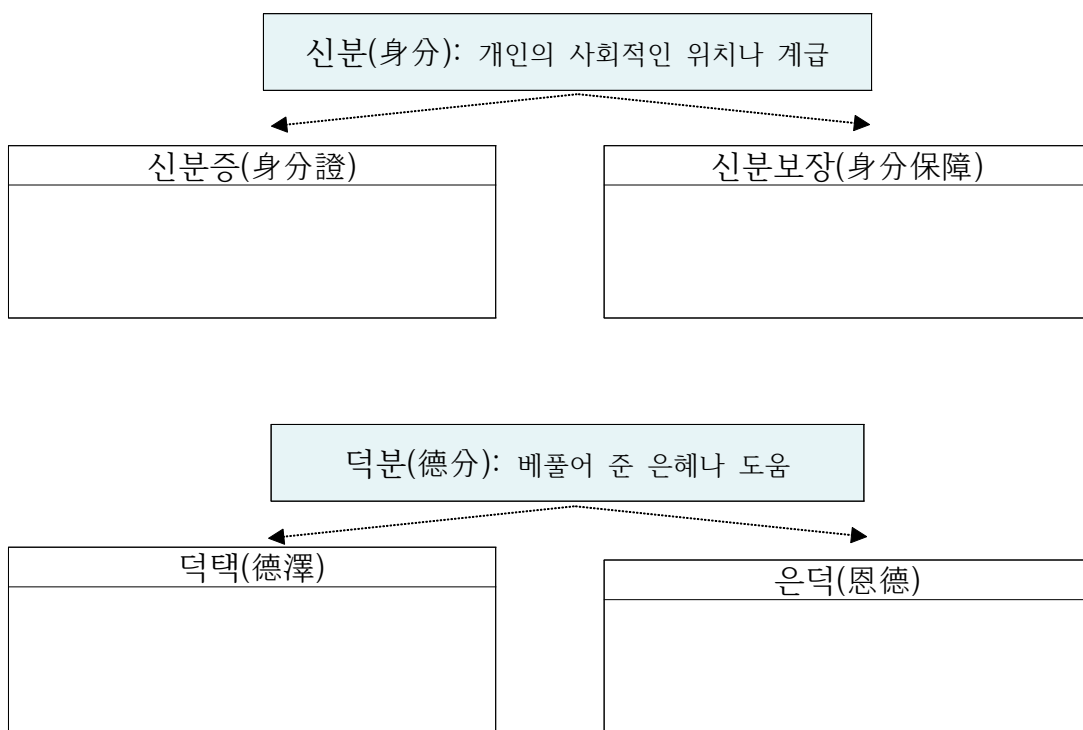
 사또와 동행한 덕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짧은 글짓기로 어휘력 키우기

다음에 제시된 어휘의 뜻을 참고하여 아래의 어휘들의 뜻을 짐작하여 빈 칸에 적어 봅시다.

※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위에 제시된 어휘들 중에서 1~2개의 어휘를 선택하여 짧은 글을 지어봅시다.

* 내가 선택한 어휘:

* 선택한 어휘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

* 내가 선택한 어휘:

* 선택한 어휘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

소단원 (3) 명분(名分)

1 어휘 의미 추측하기

다음에 제시된 글을 보고, ‘명분’의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대학가 주민 기숙사 건립 반대, **명분** 약하다

[대전일보] 2014-10-23 23면 뉴스 1156자

대학의 기숙사 건립을 싸고 학교측과 인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목: **명분**과 의리의 김
상헌이나 현실과 변통의
최명길이나



내가 생각한
'명분'의 뜻은?

담뱃값 인상 **명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충청투데이] | 2014-09-12 | 뉴스 | 1106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현재 갑당 2500원 기준으로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추측한 '명분'의 뜻은?

2 어휘 의미 이해하기

다음은 국어사전에 제시된 ‘명분’의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명분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써 보고, 예문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명분

「명사」

「1」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른다.

「2」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이름 「8」.

<나만의 정의 또는 나만의 설명>

명분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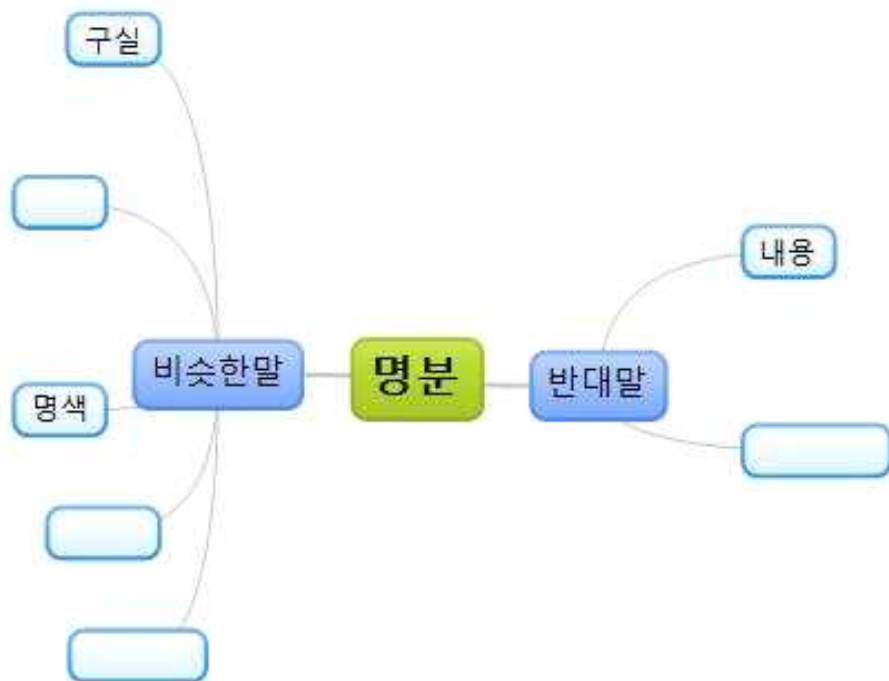
<예문 만들기>

예) 옛 선비들은 물질이나 이득보다는 절의나 명분을 중시하였다.

<나만의 예문>

3 어휘 지도 만들기

비슷한말과 반대말을 활용하여 ‘명분(名分)’의 어휘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보기>에 제시된 어휘를 빈칸에 적절히 채워보세요.



<보기>

명목 핑계 실질 도리 이유 본질

4 세상 속 어휘 찾기

다음의 신문 기사에서 ‘명분(名分)’이 포함된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자세히 작성해 봅시다.

(1) 정치 기사에서 만난 ‘명분’

한·일 정상회담 명분 쌓기 나선 정부

‘일, 성의 보이면’ 연내 개최
위안부 문제 한발 물러서
일본 내 분위기도 긍정 평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한·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대해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성의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기간 내 위안부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없더라도 일

본이 성의를 보이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를 사실상 정상회담 조건으로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수사(修辭)가 최근 나아지고 있다”며 일본 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 언급과 달리 일본에서는 최근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관련 오보 사태로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인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

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근 태도는 지난 3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할 때와 유사하다. 당시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말한 것을 중대한 진전으로 ‘과대평가’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 참여 명분으로 삼았다. 특히 청와대는 당시 “우리가 대일외교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온 결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28일 “최근 정부의 기조가 정상회담 개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일본이 현재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9.29. 정치면

표현	한 · 일 정상회담 명분 쌓기 나선 정부
문맥적 의미	☞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	☞

(2) 국제 기사에서 만난 ‘명분’

파국 치닫는 터키 ‘에르도안 시대’

〈11년 장기집권 총리〉

집권당 내 반발세력과 권력다툼 … 핵심관료 측근 교체 등 독재로 개혁이미지 퇴색, 지지세력도 등돌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의 이슬람 민주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터키는 집권 정의개발당(AKP) 내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고 있다.

급기야 25일(현지시간) 에르도안 총리는 부총리 1명과 장관 9명을 교체하는 사실상 전면 개각에 나섰다. 측근들이 핵심 각료로 들어서면서 터키 국민의 반발을 더 키워 정국은 더 열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이스탄불 택시 광장의 게지 공원 재개발 문제를 둘러싼 충돌은 이슬람 세력과 세속주의 세력의 충돌로 비쳤다. 혼란은 이제 에르도안 총리를 지지한 이슬람 세력 간의 내분으로 번져 ‘에르도안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에르도안은 터키 최초의 3선 총리다. 새해가 되면 집권 12년을 맞는다. 에르도안이 처음 집권한 2003년 터키의 국내총생산(GDP)은 3030억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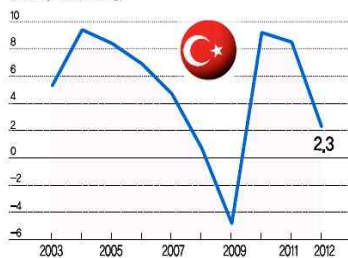
GDP는 지난해 7893억달러(약 835조4740억원)로 늘었다. 160%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장기 집권해온 에르도안 총리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양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가 권위주의자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독재’로 표현되는 에르도안 총리의 폭주는 6월 반정부 시위의 발단이 됐다. 이제 그의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었던 이슬람 세력 일

터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자료: 세계은행)



부도 그에게 등을 돌리려 하고 있다.

발단은 에르도안 총리가 주장한 사립 학교 폐지안이다. 그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은 AKP 내에서 그에게 반발하고 있는 페툴라 굴렌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이맘(이슬람 성직자) 굴렌은 중도 이슬람주의 운동 ‘히즈메트’를 이끌고 있다.

굴렌은 에르도안 총리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다. 그는 에르도안이 AKP 창당에 나선 2001년부터 AKP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히즈메트는 터키 사립학교의 25%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히즈메트의 근간이자 재정수입의 원천이다.

에르도안 총리가 사립학교를 공격하자 히즈

메트는 영향력 있는 법조계를 동원했다. 히즈메트 세력은 기업 비리 단속에 나서 기업인 수십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무아메르 굴러 내무장관, 자페르 카글리안 경제장관, 에르도안 바이라크타르 환경부 장관의 아들도 1명씩 포함됐다. 이들 장관은 25일 오전 사임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8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3선까지 허용된다.

내년 총선에서 에르도안은 총리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에르도안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대통령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국제정치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는 “에르도안 총리의 강력한 권력이 지난 10년 동안 터키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한몫했지만 지금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국 혼란 속에 터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시간 오후 4시35분 현재 리라화는 달러당 2.1110리라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달러·리라 환율 기록이 남아 있는 1981년 이후 리라 가치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

아시아경제 2013.12.27. 국제

표현	그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문맥적 의미	→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	→

(3) 인터넷에서 만난 ‘명분’

서희-소손녕 담판

문관출신이며 병관어사(兵官御事), 즉 현재의 국방부 대변인급에 해당하는 지위를 지낸 서희는 거란군 총사령관 소손녕과 직접 담판을 하기 위하여 거란군 주둔지 봉산군으로 갔다.

서희가 소손녕이 머무는 장막으로 가자, 거란군은 "먼저 대국의 귀인에게 절을 올리는 예를 갖추어라!"라며 위협적으로 서희를 압박하였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가? 어서 절을 올려라!"라고 하자, 서희는 크게 노하면서 "무슨 말인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양국의 대신이 대면하는 좌석에서 절을 하는 예는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숙소로 돌아가 움직이지 않았다.


소손녕이 내심 서희의 인품을 비범하게 여기며, 결국 뜰에서 서로 마주 절을 한 뒤에 동서로 마주 앉았다. 결국 소손녕이 서희를 압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상식적인 예를 고집했으나 오히려 서희가 기선을 먼저 제압하게 되었다. 홀로 거란군 진영 내에서 담판을 하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만약 서희가 먼저 기세에 눌려 굽히고 들어갔다면 협상 내내 소손녕에게 끌려 다녔을 것이다.

서서히 협상이 진행되자 소손녕은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라고 하며 침략명분을 밝히자, 서희는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오."라고 하며 오히려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했다. 이는 전쟁의 침략 명분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역사적 연고권 논쟁이었다. 고구려의 역사적 연고권 논쟁인 명분 싸움에선 서희가 보기 좋게 승리하였다.

그러자 소손녕은 다음으로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고 있는가?"라고 본색을 드러냈다. 즉, 거란은 거란과 송과의 전면전이 발생 시 배후에 있는 고려의 침입이 두려워 먼저 고려가 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거란의 침략목적이었다. 소손녕의 말을 통해 이와 같은 거란의 속마음을 간파한 서희는 "고려와 거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여진이란 핑계거리를 만들어낸 다음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만 있다면 어찌 귀국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라 하며, 서희의 애초 목적은 거란군의 철수였으나 오히려 이 담판기회를 통해 고구려의 옛땅 회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국 서희는 거란과의 협상에 성공하며, 서경이 북방을 잃으며 항복하는 것이 아닌, 강동 6주의 땅을 거꾸로 얻어냄과 동시에 소손녕은 서희에게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000마리와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고 떠났다.

위키백과²³⁾

표현	전쟁의 침략 명분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역사적 연고권 논쟁이었다.
문맥적 의미	

23) <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D%9D%AC>

단원 정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휘 놀이를 해봅시다.

숨은 낱말 찾기

발	단	문	대	타	자	강	객
성	명	칭	평	당	외	면	적
의	분	대	명	함	뢰	된	해
장	기	발	언	장	분	부	결
물	예	명	인	기	수	분	절
과	의	문	기	신	적	보	신
인	도	담	지	분	갈	편	개
물	장	전	본	덕	기	리	작
추	운	물	과	분	찾	명	식
론	명	성	과	직	단	확	현

<낱말 놀이 방법>

- ① 모둠(5인 또는 6인 1조)을 구성하고 각자 색이 다른 펜을 준비합니다.
- ② 5분 동안 앞서 배운 단어들을 훑어봅니다.
- ③ 단원에서 배운 어휘들이 담긴 <숨은 낱말 찾기> 학습지에서 배운 어휘를 찾습니다.
 - 본문 학습에서 배운 어휘들은 다음 문제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휘는 좌, 우, 상, 하, 대각선 등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한 칸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총 10개이고 시간은 5분입니다. 3분이 지난 후 정탐꾼을 보내어 다른 모둠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④ 다른 색깔의 펜을 들고 찾은 글자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후 아래 여백에 적습니다.
- ⑤ 가장 많은 낱말을 맞춘 모둠은 상을 받습니다.

- 각자 다른 색깔의 펜을 들고 찾은 글자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후, 아래 여백에 쓰세요.

1		6	
2		7	
3		8	
4		9	
5		10	

2) 필수 어휘 교육 모형: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

단원의 구성

- 대단원 (1)

- 주제 영역별 어휘의 활용 양상 학습
- 동음이의어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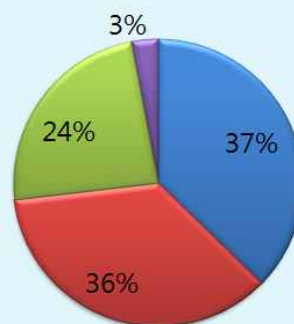
- 어휘 고리 연상하기
- 신문 속 어휘 찾기
- 어휘 의미 이해하기
- 어휘 지도 만들기
- 어휘 활용 날개 달기
- 세상 속 어휘 찾기

대단원 1. 시장(市場)

등급 ★

시장(市場)

■ 경제 ■ 사회 ■ 정치 ■ 국제



영역 빈도

1 어휘 고리 연상하기

다음에 제시된 이미지 상자를 보고, ‘시장’이라는 어휘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을 모두 적어 봅시다.

- ‘시장’과 관련된 이미지 상자의 사진들을 잘 살펴봅시다.



- ‘시장’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내용을 자유롭게 연상하고 적어봅시다.



2 신문 속 어휘 찾기

신문 속에서 ‘시장’이라는 어휘가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어휘가 지닌 뜻을 추측해 봅시다.



신문의 ‘경제면’에 등장한 ‘시장(市場)’

중도일보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001면 종합

내년 분양시장 첫 포문 어디?

LH 관저5지구 A2 상반기 예정
공공+민간 6000여세대 달할듯

시장의 ‘큰 손’ 어린이 수혜 종목 주목”

[헤럴드경제] | 2014-11-22 | 뉴스 | 959자

시장의 ‘큰 손’ 어린이 수혜 종목 주목”

강원도민일보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012면 지역

원주 김장비용 전통시장 더 싸다

18만9076원으로 조사

마트보다 13.8% 저렴

올 원주지역 김장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할 경우 할인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산됐다.

해 4472원 (2.1%) 저렴했다.

이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의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보다 산지 출하가격과 경매가가 다소 내려갔기 때문이다. 김장철이 가까워지면서 각 할인마트와 전통시장이 할인행사에 들어가 앞으로

품목별로는 국산 대파(1kg) 가격이 전년 대비 21.8% 내렸으며 △국산 무(1.5kg) 18.7% △국산 새우육젓(1kg) 17.0% △국산 천일염(1kg) 15.3% 등 대부분의 김장 주재료 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생강(1kg) 가격이 70.0% 오른 것을 비롯해 갓(400g) 55.8%, 굴(375g) 21.8% 등은 전년 대비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 신문에 등장한 ‘시장’의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려봅시다.

시장이란, _____

3 어휘 의미 이해하기

다음은 국어사전과 한자사전에 제시된 ‘시장’의 뜻입니다. ‘시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예문을 만들어 봅시다.

<국어사전에 나타난 시장(市場)의 의미>

시장04 (市場) | [시:-]

「명사」

「1」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ㄴ시상02(市上) · 장27(場)「2」.

㉠ 수산물 시장/농산물 시장/고물 시장/시장이 열린다

「2」『경제』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 경제 호황으로 소비 심리가 촉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었다.

<한자사전에 나타난 시장(市場)의 의미>

市場

시장 [장단음] 시 : 장 단어
市 저자시 場 마당장

관련단어

- 市場價格 시장가격(상품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 市場價值 시장가치(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치. 사회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 市場代理人 시장대리인(증권 회사의 직원으로서 거래소 시장에서 그 증권 회사의 거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 내가 만든 예문(1): ‘시장’이라는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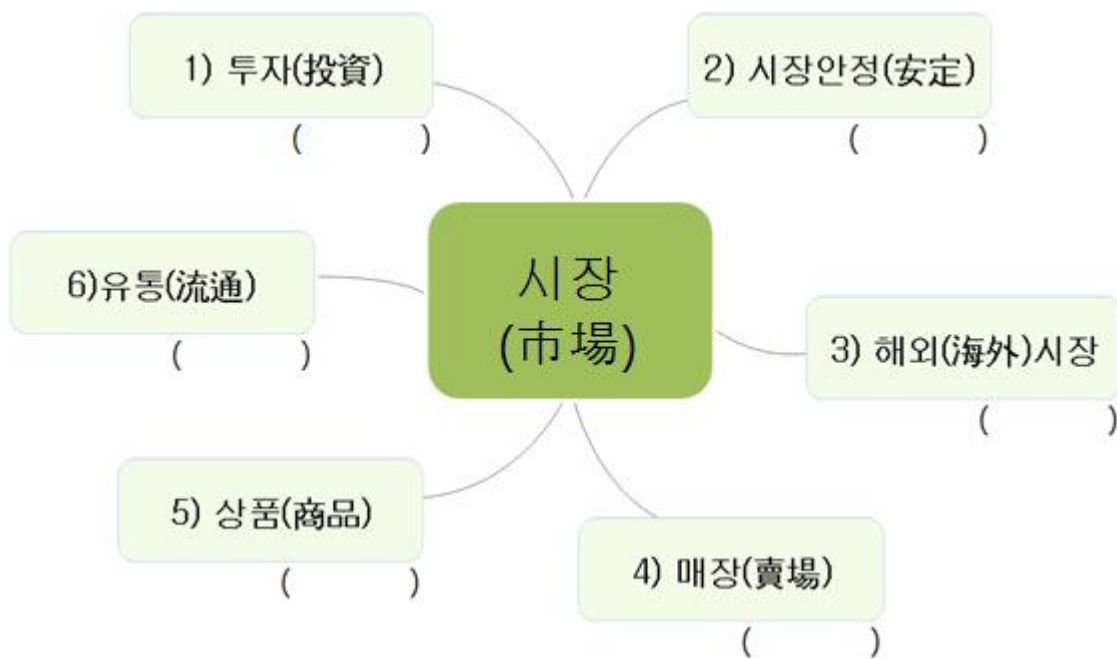
- 내가 만든 예문(2): 한자사전에 등장한 시장 관련 단어(시장가격, 시장가치 등)를 넣어 문장 만들기

4 어휘 지도 만들기

다음은 ‘시장(市場)’의 어휘 지도입니다. 각 단어들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연결해 봅시다.

<보기>

- (가)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 (나) 경제 주체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 (다) 사고파는 물품, 장사로 파는 물건.
- (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 (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
- (바) 국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



5 어휘 활용 날개 달기

‘시장’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어휘와 결합하여 봅시다.

(1) ‘시장’과 <보기>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_____ <보기> _____ 재화, 소비, 지출, 소득, 수요, 공급, 증가, 감소, 가격, 거래
--

(2) 작성한 어휘 중에서 ‘시장’과 결합될 수 있는 어휘를 찾아 직접 연결해 봅시다.

예) 주식+시장 ⇒ 주식 시장	
내가 결합한 어휘	

(3) 자신이 결합한 어휘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인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

6 세상 속 어휘 찾기

다음 제시된 신문에서 '시장(市場)'이 포함된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추측하여 자세히 작성해 봅시다.

※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1) <신문 독자의견> 기사에서 만난 '시장'

강원도민일보
2014년 09월 05일 금요일
008면 오피니언


독자서
풍물시장에서 길을 묻다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관광객이 몰려오고 춘천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아지고 서울사람은 의심어린 눈으로 날마다 약아진다 장돌뱅이 전국 노점상들이 풍악을 울려 팔고 사며 풍류를 나누는 시골벽적 한 곳 시장경제가 살아 숨쉬는 춘천 풍물시장이다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왁자지껄 장마당이 제법 부산한데 길 모퉁이에 목도리로 목을 휘감고 쪼그리고 앉은 찬바람에 맞서는 세월의 물발에 탁마된 어느 할머니 모습 살찐 대파, 시금치 한바구니 펼쳐 놓고 오가는 사람 발길 붙잡으려 애써 보지만 경기불황 탓인지 매물찬 발길은 할머니를 외면한채 번번이 비껴간다 어쩌다 지나가던 아낙네와 눈이

맞아 흥정을 하다가 푸성귀 한줌 덩으로 주고받은 반지르르 손 때 묻은 천원짜리 한 장 구깃 구깃 허리춤 찜지 주머니에 넣을 때 삶에 찌든 할머니 입가에 얹은 미소가 번진다

저런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인가? 더 농도 짙은 삶의 진가가 지금 내 눈앞에서 콧등 시큰한 감동인채 현실로 찾아들며 언제나 인정의 샘이 웅숭웅치기에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민족혼을 찾아 어제와 오늘도 나그네 발길은 이어진다



최인철
월드비전
시민강사 연합회장

시장이 들어간 어휘	풍물시장 시장경제
어휘 의미 파악 하기	<p>☞ 풍물시장</p> <p>☞ 시장경제</p>
제목 의미 파악 하기	<p>풍물시장에서 길을 묻다</p> <p>☞</p>

(2) 경제 기사에서 만난 '시장'

KOCCA, 세계 최대 게임시장 중국 공략 해법 찾는다


[한국경제] | 2014-11-21 | 1747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홍상표)은 글로벌 퍼블리싱 전문기업인 (주)디브로스(대표 이호대)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선유센터 17층 스카이홀에서 세계 최대 모바일게임 시장인 중국시장 진출 정보 제공과 공유를 위한 '모바일게임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일본과 북미, 대만·동남아에 이어 국내 모바일게임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행사로 해당지역의 대표 모바일게임 개발자 및 임원 등을 초청, 시장동향 분석과 효율적인 시장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한다.

□ 2014 상반기 중국게임시장 연구보고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올 상반기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3% 성장한 117.8억 위안(한화 2조 1천억 원)이며 이용자만 4억 5천만 명에 달해 규모와 잠재성 측면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시장이다.

□ 세미나 1부에서는 중국 및 대만 모바일게임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탑전기 개발사인 롱투게임즈(LongTu Game)의 양성휘(Yang Shenghui) 대표가 중국 시장 환경 정보와 도탑전기의 성공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표현	게임시장, 글로벌 시장, 시장진출, 시장동향
각 어휘들의 의미 파악하기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 요약하기	

(3) 인터넷에서 만난 '시장'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시장

◎ 시장의 의미

- 시장(市場, 문화어: 장마당)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 (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곳을 말한다.

시장이 서는 주기에 따른 분류

- 상설시장: 날마다 장이 서는 시장이다.
- 5일장: 5일마다 한 번 장이 서는 시장이다. 동양의 재래시장은 5일장이 많았다.
- 7일장: 7일마다 한 번 장이 서는 시장이다.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7일마다 장이 섰다.
- 계절시장: 특정 계절에만 서는 시장이다. 약령시는 주로 봄과 가을에 열리던 계절시장으로 시작하였다.

규모와 방식에 따른 종류

- 재래시장: 오래전부터 자연히 발생된 시장으로 남대문시장, 경동시장과 같이 지역 이름이 붙는다.
- 상가: 복합 건물에 여러 종류의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용산전자상가처럼 전문적인 품목을 취급하는 곳도 있고 청계천상가처럼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곳도 있다.
- 할인매장: 대규모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시장으로 월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이 고유의 브랜드명이 있다.

취급 품목에 따른 종류: 취급 품목에 따라 분류 되는 시장은 전문 시장이라고도 하며 주로 도매로 거래한다.

- 농산물 시장: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수산물 시장: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약령시: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전자상가: 전기제품이나 전자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시장'과 관련된 인터넷 글을 읽고 모르는 낱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어휘를 직접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찾아봅시다.

심화학습

다른 빛깔의 어휘 만나기

다음은 ‘시장’과 글자는 같지만 다른 뜻을 가진 어휘들입니다. 각각의 어휘가 포함된 짧은 문장을 지어봅시다.

가. 시장

품사	명사
의미	배가 고피
문장	



나. 시장(市長)

품사	명사
의미	지방 자치 단체인 시의 책임자. 집행 기관으로서 시를 맡아서 다스린다.
문장	



다. 시장(試場)

품사	명사
의미	시험장
문장	



-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이라는 어휘의 동음이의어(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7.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제언

가.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본 연구 결과는 국어교육 학계에 어휘 교육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크게 어휘 목록의 측면, 교육 모형 및 교재화의 측면, 국민 문식성의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매체 교육 및 어휘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어휘 목록은 사회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 추출하고 선정한 것이다.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용 어휘에 해당한다. 특히 신문 매체에서 실제 사용된 띄어쓰기 단위를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어휘가 실제 사용되는 양상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본 어휘 목록은 사회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을 고려한 국어교육 및 매체 교육, 어휘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어휘에 대한 학문적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어휘 목록은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하여, 신문을 기반으로 한 양적 계량과 교육 전문가들의 질적 계량을 통해 구축되었다. 또한 본 어휘 목록은 설문조사와 시선추적장치 실험과 같이 신문 읽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어휘 능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추후 교육용 어휘 목록 구축을 위한 후속 연구들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국어교육의 연구 방법론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그 동안 구축된 기존 어휘 목록을 보완하며, 기존 어휘 목록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어휘 목록은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어휘이기 때문에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이전에 구축된 목록에 있는 난이도와 빈도 등은 지금 이 시대에 구축된 본 어휘 목록과 비교함으로써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김광해 교육용 어휘 목록에 있는 ‘동영상’이란 어휘가 2003년도 당시에는 낯설고 어려운 어휘이지만, 현재에 구축된 본 연구의 목록에서는 ‘하’로 재설정되는 것이 해당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과 통합적 한자 어휘 교

육 모형은 향후 어휘 교재 개발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은 신문 매체에서 필수 어휘가 사용되는 실제 양상을 교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동일한 어휘가 다양한 주제에서 다르게 사용되는 양상을 배울 수 있는 자료의 실제성을 갖추었고, 생산성 높은 개념어를 중심으로 어휘를 학습함으로써 활동의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 교육 모형과 차별화될 수 있다. 어휘를 어절 단위로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어절 단위 및 담화 단위로 통합적으로 파악하며,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까지 갖추도록 어휘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과 통합적 한자 어휘 교육 모형은 자기주도적인 어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기존의 어휘 학습 자료들은 텍스트 중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동기유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학습자들이 어휘의 의미를 학습하기 전에 충분히 의미를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적극 활용하거나, 어휘의 고유한 성격과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 지도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어휘들의 미묘한 어감 차이와 맥락 안에서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육 모형이 자기주도적 학습형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어휘를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본 연구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과 어휘 교육 모형은 현장의 매체 교육 전문가와 어휘 교육 전문가에게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어휘’의 실제 사용 양상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의 분야별 활용 형태를 어휘 교육의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곱째, 세대별로 실시된 설문조사 및 시선추적장치 실험과 청소년과 어휘 교육 전문가에게 실시된 표적집단면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읽기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읽기 교육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설문조사는 신문 읽기에 대한 태도와 신문을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어휘 이해의 양상을 세대별로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인식 조사와 함께 어휘 이해 및 표현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함께 구성되어서 국민의 신문 읽기 및 어휘 교육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시선추적장치 실험을 통해서도 세대별로 난이도에 따른 어휘 이해의 곤란도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결과로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현장의 어휘 교육 전문가를 대

상으로 이루어진 표적집단면담은 양적 연구에서 파악된 어휘 교육 및 신문 읽기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민들의 문식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여덟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문식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사회적 공론장 역할을 하는 신문을 읽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이면서 세대 간 소통을 위해서 공통적,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세대 간 문식성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필수 어휘는 세대 간 문식성을 향상시킬 교재 개발, 교육 자료 개발, 앱 자료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다.

아홉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의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은 어휘 능력 평가 도구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 능력 평가 결과는 중, 고등학생 및 성인의 어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맞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학습함으로써 신장된 어휘 능력 향상은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 문학, 문법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나. 제언

본 연구에서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어휘 목록을 구축하고 어휘 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기반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문어 텍스트 이외에 구어 텍스트로 확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문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매일 방송되는 텔레비전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매체 교육을 위한 어휘 목록을 확장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별로 국민이 공유해야 할 사회적 의제를 매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 기사는 유사점이 있지만, 구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방송 뉴스 기사에 사용되는 어휘의 특수성이 있다. 국민의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체 교육 필수 어휘를 문어 텍스트와 함께 구어 텍스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문 1면의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자어뿐만 아

나라 고유어, 혼종어, 외래어 등 어종을 확대하여 어휘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어종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어휘 목록과 함께 짝을 이루어, 고유어, 혼종어, 외래어 등의 목록을 확충할 수 있다. 이는 어휘 목록의 양을 늘리는 일이면서, 국민의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 교육 자료의 실제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하나의 어종을 단독으로가 아니라 한자어와 고유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어종 간의 관계 속에서 어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어휘 교육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범용 어휘 교재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준별, 학습 대상별, 영역별 교재와 생애주기별, 목적별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를 바탕으로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어휘 목록과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사용될 어휘 교육의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특화된 다양한 교재가 필요하다.

넷째, 성인을 위한 교육 모형 및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교육 모형은 전세대를 대상으로 어휘 교육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장년층이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인들에게 초점화된 교육 모형과 교재 개발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개별 어휘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직업과 목적에 따라서 갖추어야 하는 어휘의 이해와 표현 수준을 상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모형과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을 바탕으로 교재 이외에도 게임, 카드, 앱,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물 교육 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교재이지만, 국민이 자기주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 자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어휘 교육을 위한 앱 개발이 필요하며 교사가 전자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어휘 카드의 경우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교재보다 어휘에 대한 다량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간에 걸쳐 우리 국민의 언어생활을 기록하고 자료를 구축할 필요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한 해 신문의 1면에 등장하는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10년 이상, 신문의 모든 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어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 결과 ‘2000년-2010년’에 사용된 한국인의 언어(생활)을 기록하고,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종단연구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간이나 어종, 텍스트, 매체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연구하여 축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보선(2013), 「표현 어휘 신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정일(2003), 「의미망 만들기 활동을 통한 어휘 지도 방안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 외(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학습용 워크북 개발 모형 연구—그림 어휘사전 워크북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 2, 문화체육관광부.
- 고려대학교(2006), 『다국어 어휘 데이터베이스』, 고려대학교.
- 고영철(2010), 한·미의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다양성 요인 비교 분석—뉴스 주제 및 취재원 유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1), 한국지역언론학회.
- 구정화(2012), 「초등학생의 NIE 학습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관련성」, 『社會科教育』 5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김정은(2012), 「NIE 경험과 중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교과교육학연구』 16,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김광해(1993),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2003), 『등급별 한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김도남(2003), 「자기 주도적 국어과 학습 지도 방법 탐색」, 『청람어문교육』 27, 청람어문교육학회.
- 김동일 외(2013),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열린교육연구』 21, 한국열린교육학회.
- 김병욱(2010), 「문해 능력과 문해 교육—역사성과 프랑스어권 연구를 위한 현황 분석」, 『한국프랑스학논집』 71, 한국프랑스학회.
- 2020 미디어위원회 실행위원회(2006) 『한국의 뉴스미디어 2006 - 한국 저널리즘과 뉴스미디어에 대한 연차보고서』, 한국언론재단.
- 김영경 외(2011), 「방송대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 계속학습 활동에 나타난 학습 지속 요인」, 『평생교육학연구』 17(4), 한국평생교육학회.
- 김은성(1999),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외(2010), 「가정환경, 학생특성, 금융교육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금융이해력

- 차이검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1),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김정우(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문학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 김지영(2013), 「워크숍 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어휘 교육 방안」, 『문법교육』 18, 한국문법교육학회.
- 김창원 외(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김창원(2012), 「고등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어휘 교육론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44, 국어교육학회.
- 김한별(2006), 「조직 내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비판적 접근」,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2), 한국성인교육학회.
- 김효진 외(2004), 「중학교 3학년 국어 지식 영역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8(3),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 노명완·이형래(2005), 「직업 문식성 연구: 9,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3, 한국독서학회.
- 민병곤(2012), 「화법 및 화법 교육에서 어휘의 위상 논고」, 『국어교육』 139, 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 외(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사용 실태조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03),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04),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 박민수(2004), 「수준별 자기 주도적 교수 학습 본질 탐구」, 『人文社會教育研究』 7, 춘천교육대학교.
- 박영목(2003), 「21세기의 새로운 문식성과 국어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10, 국어교육학회.
- 박인종(2009),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19(2), 국립국어연구원.
- 박재영·이완수(2007),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6), 한국언론학회.
- 배을규 외(2006), 「중산층 전업주부의 자기 주도적 학습 과정 특성」,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4), 한국성인교육학회.
- 변종임·이경아(2006), 「성인 문해 정보화 교육의 전략 탐색을 위한 성과 분석 연구」, 『컴퓨터교육』 9(5), 한국컴퓨터교육학회.

- 설규주 외(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정치정보연구』 14, 한국정치정보학회.
- 성용근(2005), 「효율적인 고등학교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읽기 자료와 어휘 지도 관점의 비교를 통하여」,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 성태모(2003), 「자기 주도적인 NIE 학습 방법 연구—통합적인 국어 능력 향상 모형—」, 『교육연구』 26,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송용희(2004), 『저널리즘 평론: 신문의 지면 구성과 내용』, 한국언론재단.
- 신명선(2004a), 「국어 사고도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선(2004b),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 심재홍(1991), 「글의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독성 측정의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 외(2004),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05), 『국어사용환경 조사(2005)』, 국립국어원.
- 양정환 외(2010), 『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오창순 외(2009),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 옥철영 외(2008), 『한국어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기본어휘 사전 구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원진숙(2008),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 방향」, 『한국초등교육』 19,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유영희(2004), 「제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쉽티’의 유형과 활용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2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윤상일(2008), 「통합논술의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모델 연구」, 『동국어문학』 19-20,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건호 외(2007),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한국언론재단.
- 이경화(2005),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독서 전략 연구」, 『새국어교육』 71,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기연(2006), 「어휘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낯선 어휘의 의미 처리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돈 외(2013), 『2013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설명회 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성일 외(2009), 「생활중심 신문활용교육(NIE)이 정신지체학생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韓國教育論壇』 8, 한국교육포럼.

- 이영선 외(2012), 「수동적인 초기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 변화 연구」,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5(3), 한국성인교육학회.
- 이영숙(1996), 「국어과 지도 대상 어휘의 선정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선청어문』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은희(2003), 「신문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7, 국어교육학회.
- 이정희 외(2007), 「성인학습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자기주도학습과 학습접근방식 차이」,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한국성인교육학회.
- 이준우(1987). 「한국신문의 문화적 기능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84년까지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향근(2010), 「이야기 읽어주기 방법을 활용한 어휘력 향상 방안」,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 이현희 외(2013), 「성인의 어휘 능력과 텍스트 이해의 상관 관계에 대한 기초 연구」, 『사회언어학』 21(3),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희수 외(2000), 「평생학습능력으로서 정보문해개념의 변천에 관한 고찰」,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3(2), 한국성인교육학회.
- 임지룡(2010), 「국어 어휘 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 임천택 외(2013), 「토의·토론 활동을 통한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 46, 한국어문교육학회.
- 장낙인(1987). 「신문과 TV의 문화예술기사 및 프로그램 조사분석」. 『문화예술』, 11(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전은주(2012), 「중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 전점이(2007), 「국어교육: 문학 작품을 활용한 어휘 교육」,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 정희창 외(2013), 『한국어 개방형 지식 대사전』 교육용 규범 정보(사전) 구축, 국립국어원
- 정소민(2009), 「도식조직자(Graphic Organizers)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지도 모형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9), 『발달심리학: 전 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조미경(2012), 「유네스코의 비판적 성인문해 교육 변천 과정 및 동향 분석—세계성
인교육회의(CONFINTEA)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경미(2013), 「감정 어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1997),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 천경록(2003), 「독서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탐색」,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
학회.
- 한학범(2009), 「주제중심학습이 고학년 아동의 학업성취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에 미
치는 영향」, 『통합교육과정연구』 3(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 허준(2008), 「학습사회론에 비추어 본 문해 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4(4), 한국평생교육학회.
- 홍은희(2012), 「신문 증면과 문화저널리즘의 변화」, 『문화경제연구』 15(1), 한국문화
경제학회.
- Bachman, L. F.(ed.)(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omley, K.(2007), Nine things every teacher should know about words and
vocabulary instruction,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0(7),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Kutner, M. et al.(2007), *Literacy in Everyday Life: Results From the 2003
National Assessment of Adult Litera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NCES 2007.
- Marconi. D.(1997), *Lexical Compet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McConkie, G. W. et al.(1991), Children's eye movements during reading, In J. F.
Stein(ed), *Vision and Visual Dyslexia*, UK London: Macmilan.
- McShane, S.(2005), *Applying Research in Reading Instruction for Adults: First
Steps for Teachers*, National Center for Family Literacy.
- Merrill, B. & West, L.(2009). *Using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Research*,
Los Angeles, CA: Sage.
- OECD(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Publishing.
- Paulson & Freeman(2003), *Insight from the Eyes: The Science of Effective
Reading Instruction*, NH: Heinmann.
- Purves, A. C.(ed.)(1994),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s: A*

Project of th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ew York: Scholastic.

Rayner, K.(1997), Understanding Eye Movements in Reading,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4), Taylor & Francis.

Stempel, Guido H. Sample size for classifying subject matter in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29.2 (1952): 333-334.

Ward, M.(2002). *Journalism Online*, 이용준 역(2003), 『온라인 저널리즘』 건국대학교 출판부.

금융 문해력 관련(OECD/IGFE): <http://www.financial-education.org/home.html>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성인 문식성 교육: <http://www.calpro-online.org/newTeachers/newTeachers.asp>

【별첨 1】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
-초·중 교과서 한자어와의 비교**

별도 파일 참조

【별첨 2】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신문 사용 양상**

별도 파일 참조

【별첨 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한자 목록
-초·중 교과서 한자 및 기초 한자 1,800자 목록과의 비교

별도 파일 참조

【별첨 4】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자문위원회 회의록

- ◆ 회의 일시: 2014. 11. 17. 월
- ◆ 회의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 ◆ 자문위원: 박갑수(서울대), 임지룡(경북대), 김혜숙(동국대), 구본관(서울대), 정혜승(경인교대), 김혜정(경북대)
- * 자문위원 회의 전후로 서면을 통한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회의에서도 함께 논의함.

서 혁: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에 대한 자문의견을 듣고자 여러 자문위원을 모셨다. 일전에 본 연구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내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의 진행과 방향,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용 어휘 목록과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박갑수: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라고 했을 때, 교육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체화해 가야할 것이다.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교육의 모형을 구안함에 있어서는 한자어의 한글자, 한 글자에 대한 ‘훈’의 교육이 필요하다. 즉, 한자어가 어떻게 조자(造字)되었는지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한자어와 본 연구에서 마련한 한자어 목록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으나,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자어라고 하여 반드시 교육 내용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혜승: 어휘 목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념어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고유명사라든지 한자에 대한 이해 없이도 파악할 수 있는 어휘는 개념어로 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또한 김광해 등급별 어휘 목록을 참조하여 난도를 우선 판정하였는데, 이 외에도 개념 자체의 어려움과 빈도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영역별 어휘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휘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문 1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학, 스포츠 등의 어휘가 부족하게 된 것 같다. 어휘를 주제 범주별로 구분할 때 그 기준이 ‘신문에 등장한 지면’인지 ‘어휘 자체의 특성’인지 명확히 밝히면 좋겠다.

임지룡: ‘교육용 필수 개념어 목록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 및 방향이 잘 구안되었으며, 4단계의 진행과정이 순조로우며, 교육용 필수 개념어 3,520개의 양상이 충실하고 우수하다고 사료된다. ‘설문조사’의 여러 항목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고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표적집단면담’ 역시 잘 계획되었고 충실히 수행되었다. ‘시선추적장치 실험을 통한 읽기 양상 분석’은 창의적인 실험계획이며, 그 양상 분석이 매우 유의미하다. ‘어휘 교육 모형’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안되어 있다. 종합했을 때, 현재까지의 연구가 매우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 보고서가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본관: 어휘 목록을 마련할 때 개념어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개념어의 범주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에서 의도한 개념어는 결국 생산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개념어 포함될 수 있는 품사와 어근의 성격이 일관되게 적용되면 좋겠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이라는 제한된 장르의 개념어만 다루기 때문에 해당 어휘 목록만으로 일

반적인 교육용 필수 개념어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휘 목록 마련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더 많은 말뭉치로 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될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

김혜숙: 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자어 개념어 중심의 어휘 목록을 추출한 것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 다만 한자어의 첫 어근을 개념어로 삼아야하는 필요성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주면 좋겠다. 어휘 교육 모형에서 어휘가 구성되는 어휘소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심화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으나, 그 가운데 해당 어휘소 혹은 어휘가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휘가 사용되는 단어의 집합이듯이, 어휘의 학습은 반드시 맥락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어휘소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되 이와 관련된 관용어, 속담, 연어 등 국어문화의 맥락에 관련된 활동이 연계되면 더 좋겠다. 현재 어휘의 난도는 김광해 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을 참조하였는데 해당 목록에 없는 단어에 대해서도 난도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미 부여된 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 기사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어를 청소년 필수 어휘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혜정: 방대한 언어자료로부터 교육용 필수 어휘를 추출하고, 그 어휘의 교육 방안까지 제안한 매우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2차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언어생활의 밑바닥부터 훑어 올라오려고 했던 데서 보이는 연구의 치열성과 엄격성,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식을 감히 시도하고 설계했던 데서 보이는 용기와 도전 의식이 더욱 놀랍다. 신문(특히 경제면)에서 어휘 이해도가 낮아 신문을 잘 읽지 못하고, 또 읽기를 꺼리게 되는 태도가 생긴다는 설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결과 보고서를 기술할 때에 설문 결과 중에서 연구 목적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각하여 기술하거나 설문 결과에 대한 해석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시선 추적 장치를 난이도 구분에 함께 적용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어휘 난도에 대해서는 김광해 등급 구분을 참고하더라도 연구팀의 2차 재조정 작업을 거침으로써 과거의 구분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어휘 교육 모형을 구안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한자어가 문식 단위가 된다고 했으니 그것을 기초 단위로 하는 확장형 어휘 결합이나 어휘 변형으로 나아가면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틀리기 쉬운 어휘들에 대한 학습 방법의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예컨대,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것.

권순희: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니 남은 시간 동안 더욱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 주제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초점화할 수밖에 없었다. 문식성 교육에 있어서는 다양한 세대를 고려하고자 하였고, 어휘 교육에 있어서는 세대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한자어 교육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연구진은 다양한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을 주된 텍스트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김정우: 여러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휘 계량 단위로 삼은 ‘개념어’의 논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

기 때문에 자문위원 선생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래 어휘 계량의 과정에서 의도했던 어휘 목록의 경제성과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념어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구분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산성’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더욱 설득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연: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신문에 실제 나타난 어휘를 추출하여 우리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 목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광해 선생님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난이도 등을 부여한 후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휘 목록을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의 성과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정말 감사드린다.

서 혁: 여러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에 깊이 감사드린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모두 저희도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토대로 더욱 발전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참석해 주시고,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연구 책임자: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공동 연구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김정우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성 (이화여자대학교)
정소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희 (한성대학교)
신명선 (인하대학교)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보조 연구원: 권혜정 (이화여자대학교)
류수경 (이화여자대학교)
이세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홍 (이화여자대학교)
담당 연구원: 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 화: 02-2669-9740 팩스: 02-2669-9747

인 쇄 일 2014년 11월 27일

발 행 일 2014년 11월 27일

인 쇄 새로문화